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 일 시 : 2016. 5. 11(수) 10:00 ~ 5. 12(목) 15:00
- 장 소 : 롯데시티호텔대전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일 정 표



■ 세부일정(2권역) : 2016. 5. 11(수) 10:00 ~ 5. 12(목) 15:00, 크리스탈볼룸

첫 째 날 (5. 11. 수)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등 록	
10:00~10:20	20'	인사말씀	
10:20~11:20	60'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 소개	이 용 욱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무관)
11:20~11:30	10'	휴 식	
11:30~12:30	60'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필요와 담당자의 역할	정 광 필 (전)이우중고등학교 교장)
12:30~13:20	50'	중 식	
13:20~14:50	90'	학교 내 대안교실: 학생 맞춤형 교육기획	이 승 주 (웅상고등학교 교사)
14:50~15:10	20'	휴 식	
15:10~16:00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의 소통과 공유	
	25'	2015년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운영사례1 : 대전지역	김 은 형 (한밭고등학교 교사)
	25'	2015년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운영사례2 : 경북지역	양 미 경 (김천여자중학교 교사)
16:00~17:00	60'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구성	
17:00~17:20	20'	휴 식	
17:20~18:00	40'	분임토의	
18:00~19:00	60'	석 식	
19:00~21:00	120'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를 위한 힐링 톡!톡! - 통합예술심리치료(실습) -	김 상 만 (심힐링센터 소장)

※ 주요내용은 강사 섭외 등 추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둘 째 날 (5. 12. 목)			
시 간		내 용	비 고
8:00~9:00	60'	조 식	
9:00~9:50	50'	분임토의 결과발표	
9:50~10:10	20'	휴 식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이해	
10:10~11:00	50'	학생 무기력의 원인과 해결책	박 경 현 (샘교육복지연구소 소장)
11:00~11:50	50'	다문화 학생의 특성과 학교적응	오 성 배 (동아대학교 교수)
11:50~13:00	70'	중 식	
13:00~14:30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사례	
	30'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대구동부중 행복교실	김 혜 영 (대구동부중학교 교사)
	30'	플리마켓 프로젝트를 통한 공동체적 관계증진	강 상 훈 (목천고등학교 교사)
	30'	만절필동(萬折必東) 진로탐색과정	오 흥 빈 (대원고등학교 교사)
14:30~15:00	30'	설문지 작성 및 연수 수료식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목 차



•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 소개	1
▶ 이용욱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무관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필요와 담당자의 역할	17
▶ 정광필 전이우중고등학교 교장	
• 학교 내 대안교실: 학생 맞춤형 교육기획	37
▶ 이승주 웅상고등학교 교사	
•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의 소통과 공유 2015년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운영사례1 : 대전지역	61
▶ 김은형 한밭고등학교 교사	
•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의 소통과 공유 2015년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운영사례2 : 경북지역	71
▶ 양미경 김천여자중학교 교사	
•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를 위한 힐링 톡!톡! - 통합예술심리치료(실습) -	85
▶ 김상만 섬힐링센터 소장	

•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이해 : 학생 무기력의 원인과 해결책	97
-----------------------------------	----

▶ 박 경 현 | 샘교육복지연구소 소장

•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이해 : 다문화 학생의 특성과 학교적응	111
------------------------------------	-----

▶ 오 성 배 | 동아대학교 교수

•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사례 1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대구동부중 행복교실	133
---	-----

▶ 김 혜 영 | 대구동부중학교 교사

•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사례 2 플리마켓 프로젝트를 통한 공동체적 관계증진	149
--	-----

▶ 강 상 훈 | 목천고등학교 교사

•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사례 3 만절필동(萬折必東) 진로탐색과정	163
--	-----

▶ 오 흥 빈 | 대원고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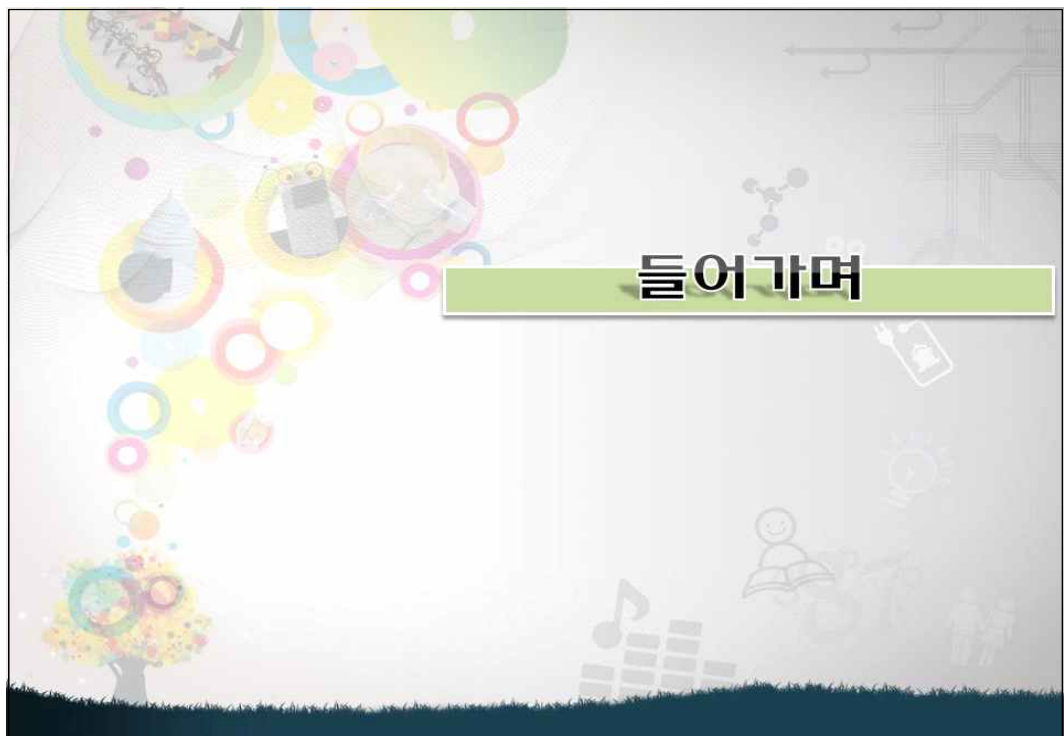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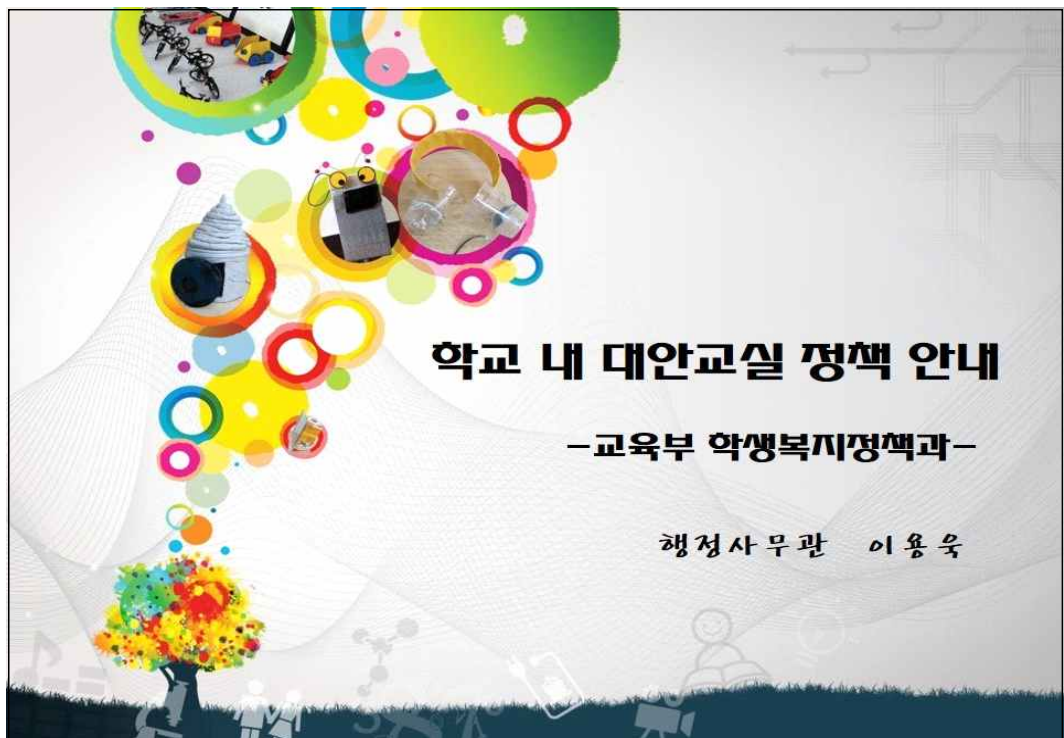
• 부록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자료	187
-----------------------------	-----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 소개



이 용 윣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무관



대안교육이란 ?



한국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단지 특정 학교의 사연임을 밝힙니다.)

지인 분의 딸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아이는 견과류가 들어간 것을 조금만 먹어도 입 주위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등 몸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친구가 주는 과자 혹은 사탕 등도 잘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분은 학교 입학 때 담임 교사에게 딸의 특이 체질을 알려 주면서, 급식 시간에 주의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몸에는 견과류 알레르기 증상이 발견되었어요. 알고보니 급식 시간에 견과류가 들어간 음식이 나온 것이지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평상시처럼 교사는 학생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주저하면서 먹지 않았지만, 교사는 끝까지 다 먹으라고 했다고 하네요. 결국 아이는 그 음식을 다 먹고 말이 난 것입니다.

죽전초, 이슬람권 다문화학생 맞춤형 급식

이슬람권 학생 위해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 제공

2015년 08월 24일 (목) 15:30:06

이슬람권 기자 2명 hnews@hnews.co.kr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방법

특징 1

학습자 중심

특징 2

다양성 인정

특징 3

선택권 존중



학교 내 대안교실이란?

❖ 추진배경

- ❖ 학생 한 명 한 명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
- ❖ 학교 부적응 학생, 위기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필요

☞ 대안교실의 정의

: 학생들의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별도의 학급



사업 주요 내용

– 학교 내 대안교실 기본 방향

❖ 학교 여건과 학생들의 필요를 고려,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

❖ 공공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문화예술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적용



유형 별 운영 형태

– 전일제 사례

전일제 대안교실

- (형태) 교육과정의 전부를 대체하는 별도의 대안학급을 편성, 운영
 - 학기제 (1학기, 2학기) 형태 운영 가능
 - 대안교실은 학기 내 상시 운영 중이어야 함
- (교육과정 운영) 보통교과 + 대안교과 (*편성 비율은 자율)
 - 보통교과 운영에 있어서 자유로운 교육방식 허용
 - ex) 역사신문 만들기, 문학 작품 역할극, 창업과 수학 등
- (평가) 대안교실 내에서 중간, 기말고사 실시



유형 별 운영 형태 - 전일제 사례

전일제 대안교실

자료 : 대전 법동중학교

시간	실행과목	내용
1, 2, 3교시	진로 체험활동 프로그램	· 자신의 전공을 찾기 위한 전반적인 체험활동 프로그램 참여 권장 · 외부강사가 프로그램 전용 교실 및 운동장을 활용하여 수업 진행 · 멘토링, 직업체험, 자신의 장래희망 그려보기 등 진로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실시
4, 5, 6교시	일반교과 수업진행	· 교과 교사가 수업진행 ·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 형태로 진행
7교시	방과 후	· 학생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담임교사 면담 및 상담

	월	화	수	목	금
오전	대안교과	대안교과	외부 체험학습	대안교과	자기 주도 프로젝트
오후	일반교과	일반교과		일반교과	



유형 별 운영 형태 - 부분운영제 대안교실

부분운영제 대안교실

- **(형태)** 교육과정의 일부를 대체하는 별도의 대안학급을 편성, 운영
- 반일제(오전/오후반), 요일선택제, 기수제 운영 등 다양한 형태 가능
- **(교육과정 운영)** 대안교과 중심 (*보통교과 편성 가능)
- 체험, 진로교육, 상담심리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소질, 적성 발현 유도
- **(평가)** 소속 교실에서 중간, 기말고사 실시



유형 별 운영 형태 - 부분운영제 사례

부분운영제 대안교실

자료 : 경남웅상고

구분	월	화	수	목	금
5교시	움직이는 교실	L.T.L	합창	목공예 (부산 두구동 우다다 공방)	L.T.L
6교시	천원의 행복, 다문화가정 및		합창		
7교시	독거노인 친구되어주기,		스포츠		
8교시	천연염색, 요리, 비누만들기,		스포츠		
	컬트, 전통화과자,		스포츠		

자료 : 충남 주산산업고

시간	실행과목	내용
5, 6, 7교시	체험활동수업	•월요일: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공예치료, 놀이치료 •수요일: 진로상담, 진로 체험 활동(파테세, 바텐더, 양식조리, 스콜팜 등) •금요일: 문화체험활동, 숲 공동체 활동, 스포츠 활동 등

대안교실 교육과정 운영모형 (예시)

치유 중점

- 예술치료 :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 연극치료 : 상황극, 역할극 등
- 신체활동을 통한 치료 : 댄스, 명상, 숲 치료 등
- 전문가 치료 및 상담치료

공동체 체험 중점

- 또래관련 : 캠프, 뒤돌아영 등
- 교사관련 : 사제동행(등산, 영화관람 등)
- 학부모관련 :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
부모-자녀 동반 캠프 등

융합형 프로젝트 중점

학습·자기개발 중점

- 기초교육 신장 및 수준별 수업
- 교사 및 또래학습 멘토링
-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프로그램

진로·직업 중점

- 진로상담 : 진로검사를 활용한 상담 및 자기발견
- 직업탐방 : 경찰서, 기업체, 방송국 등 탐방
- 직업체험 : 바리스타, 제과·제빵반, 목공예반 등
- 창업체험 : 기업가정신, 창업 교육 등

프로그램 예시	운영 내용 및 방법	요약
심리치출	심리검사지를 이용한 개인 심리치료	개인별 심리상태 확인
미술치출	그림그리기를 통해 심리파악 및 치료	"
역할연극	특정 역할 연극하기	역할극을 통해 직업에 대한 자신감 부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칙 안내 및 학교폭력과 관련된 Q&A	교칙 이해 및 학교폭력예방
금연교육	청소년 흡연의 폐해 및 금연방법 안내	담배 거부하기
가족공예	가족 공예로 자신의 작품 만들기	자신의 작품을 타인에게 선물
미용 배움기	미용 기술 배워보기 (지역 헤어샵, 또는 미용학원 방문 등)	기술 익히기
기타연주, k-pop 댄스	악기,댄스를 배우며 스트레스 없애기	악기연주를 통해 새로운 취미 획득 장기자랑을 통한 자신감 획득
안전문화시설체험	안전문화시설 체험을 통해 안전교육 필요성 느끼기	소화기 직접 사용 등 실습을 통한 체험
법원 재판참관	재판관정을 참관함으로써 법, 질서 이해하기	재판관정을 보며 법 이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전문 바리스타 강사의 지도, 지역사회 커피숍 방문 및 인턴 체험 등	진로설계 및 직업 적합성 향상 미래에 대한 열정
단기 프로젝트 (너희 상상이 둥고실어)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깊은 연구 진행 (예: 창업 아이디어 개발, 어플리케이션 제작, 건축물설계 등) 전문가 멘토 선정 → 매주 진행상황 검토 → 학기말 발표회	도전의식 고취, 스스로 배움을 찾을 기회 부여
시나리오 작성	연극극본제작, 자신이 살아온 삶을 극본으로 표현 및 연출 (협조) 연기에 관심 있는 학생이 직접 연기하도록 하며 하나 의 완성된 극을 발표함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 내면에 숨겨두 었던 슬픔이나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예술로 승화
...	...	...

사업 주요 내용

- 학교 내 대안교실 지원 내용

❖ 대안교실 프로그램 개발, 운영

대안교실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구축
강의자료 제작 및 프로그램 연구회의 등

최대한 기존 인력을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대안교실 중 예산의 50% 이내
에서 활용 가능

❖ 대안교실 운영에 직접 필요 교재(도서) 구입 지원

❖ 시간제 강사 비용 : 대안교실 전담 강사 교과 수업 대체 강사



사업 주요 내용 - 강사 수당 관련

구분	지급대상	단가
특별강사	- 전·현직 장·차관, 국회의원, 대학총장 및 교육감 -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등	기본 : 250,000원 초과 : 150,000원
일반강사1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판·검사, 변호, 변리사, 의사, 기술사 등 자격소지자 -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 전문 강사 -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 4.5급 공무원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 2-3급 보조강사 등	기본 : 160,000원 초과 : 120,000원
일반강사2	- 대학 시간강사, 외국인 원어민 강사 4.5급 공무원, 장학관, 교감, 장학사 등	기본 : 130,000원 초과 : 70,000원
일반강사3	외국어, 체육, 문화, 전산 등 교육프로그램 강사	기본 : 80,000원 초과 : 70,000원
보조강사	각종 실기, 실습, 제철 등 보조강사	기본 : 30,000원 초과 : 20,000원

※ [강사료 합증 기준]

• 70-119명 : 20% • 120-169명 : 40% • 170-219명 : 60% • 220명 이상 : 100%가산



사업 주요 내용 - 강사 자격 관련

최소 요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참고

- ☞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자
-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 ☞ 고졸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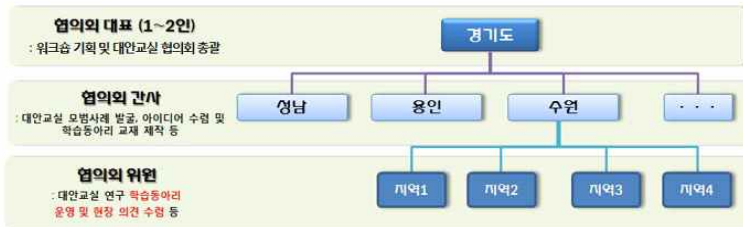


사업 주요 내용

- 대안교실 운영 교사 협의회 ^N

❖ 대안교실 운영 교사 협의회

- 시·도별 대안교실 담당교원 워크숍, 모범사례 공유
- 강사 인력 공유, 학습동아리 교재 제작 등을 담당



⇒ 협의의 대표는 지역별 선출이 원칙이나 간사, 위원회 경우 반드시 지역으로 구분할 필요 없음 (자유적 운영)

사업 주요 내용

- 대안교실 운영 교사 협의회

협의회 주요 역할

- 지역 대안교실 담당자를 대표하여 정책건의 및 요구사항 제시
- 협의회 주관 시도별 담당자 워크숍 실시
- 시도별 대안교실 성과보고서 작성 및 유공자 포상 추천
 - 성과보고서는 관내 대안교실 우수 사례집으로 갈음 가능
 - 성과보고서 제출 시한 : '16.12월 중
 - * 시도별 유공자 추천 인원 수는 추후 공지
- 협의회 주관 관내 대안교실 우수 사례집 제작
- 학습동아리 운영 : 모범사례, 강사인력 공유 및 교재 제작 등

사업 주요 내용

- 대안교실 운영 교사 협의회

지원 내용

- 지역 단위 워크숍 비용
- 학습 교재 제작비용
- 협의회 회의 및 운영 경비 등

유의사항

- 협의회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 공간 장기임대 및 임대료 지출 불가
 - 소속 학교, 교육청 내 회의실 등 사용 권장
 - 시,도 교육청은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장소 제공 등 협조



대안교실 운영 교사 협의회 활동 모습

전문성 제고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체험

월례 협의회 회의



사업 주요 내용

– 대안교실 학습동아리

❖ 대안교실 학습동아리란?

: 대안교실 교원 간의 대안교실 운영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요청 사항

– 대안교실 운영 시 주의점

❖ 단순놀이방 형태의 운영 지양

- 문제 학생들에 대한 격리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종종 발생
- 위험 학생에 대한 단순방치문제 지적됨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시 학생의 참여 등 민주적 분위기 유도

대안교실 운영 관련 FAQ

Q. 1 기자재 구입

대안교실 지원에 해당하는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대안교실 운영에 필요해 전자칠판 및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교육청에서 이는 해당사항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과연 프로그램과
'직접 연관된' 기자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1 기자재 구입

대안교실 지원내용에 대안교실 운영에 직접 필요한 기자재 구입의 의미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접하고, 해당 기자재가
없으면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 및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가급적 기존 학교 내 시설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이를 권장하고 있는 바, 학교에 시청각실 또는 정보화교육실 등 이를 보충적으로
활용할 기재가 없는 경우에 한해 컴퓨터 구입은 가능합니다.

대안교실 운영 관련 FAQ

Q. 2 기자재 관련

대안교실 프로그램으로 악기연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대안교실에서 강좌형식으로 배우는 악기를 집에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악기를 빌려줘도
되는지요. 또는 악기에 재미를 붙인 아이들에게 악기를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A. 2 기자재 관련

원칙적으로 대안교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기자재에 관한 관리 권한 및
책임은 학교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안교실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구입된 악기 등의 기자재는 학생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관리책임을 선생님이 그대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판단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실이나 파손의 책임은 전적으로 담당 교원에게 있습니다.

대안교실 운영 관련 FAQ

Q. 3 Wee class

위클래스와 대안교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대안교실과 위클래스를 같이 운영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A. 3 Wee class

대안교실과 위클래스는 정책의 목표와 취지가 상이한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목표 구현을 위해 분리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위클래스와 대안교실 대상자가 같은 경우가 발생하고, 인력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이를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이에 대해 초기 운영 목적 및 취지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교차운영은 허용되나, Wee 사업과 대안교실의 회계는 구분 되어야 합니다.

대안교실 운영 관련 FAQ

Q. 4 부모교육 관련

대안교실을 운영하다 보니 부모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안교실 예산을 부모교육에 활용해도 되는지요, 더불어 문제학생에 대한 부모교육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주실 수 없는지요.

A. 4 부모교육 관련

대안교실 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부모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안교실 구성원인 학생에 한하여 대안교실 예산으로 해당 학생의 부모교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강제화 시킬 방안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현재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필요와 담당자의 역할



정 광 필

전)이우중고등학교 교장

아이들은 어떻게 깨어날까?

정 광 필

전)이우중고등학교 교장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여러 이론과 경험이 공유되겠지만 성공 사례는 남의 이야기 같고, 그 조건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구체적인 실패와 시행착오, 결정적인 과오들을 돌아보며 함께 반성하게 될 때 그나마 모두의 귀가 열리고, 조금이라도 실천으로 바뀔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굳이 당부의 말씀을 보태면 이우학교의 사례를 평가자의 시선이 아니라 실천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우리학교에서 나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재료로 쓰였으면 좋겠다.

I. 우리는 아이들을 이해할까?

수업 혁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러 방법론이 제시되고, 혁신학교의 상징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좋다고 하는 수업 방법론과 여러 기술들이 도움은 되겠지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설령 엉성하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열정이 아닐까? 과연 우리는 아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1. 아이들 눈빛이 공허하다

2005년은 이우학교가 개교 3년차가 되어 중1에서 고3까지 모든 학년이 채워졌던 완성년도다. 개교 준비를 7년 정도 했고, 처음 3년간 모두들 열심히 뛰었다. 처음 수업 시

작할 때 교과서를 다 내던지고 모든 교재를 새로 만들기도 했다. 그해 가을, 대표적인 수업 중 하나인 중학교 2학년 철학 수업을 동영상으로 찍어 국제 워크숍에서 강평하는 자리가 있었다. 많은 선생님들이 저희 수업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다. 제일 끝에 사토 마나부 교수가 강평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이들이 참 열심히 하는데, 정작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공허하다.”

“발표를 참 열심히 하는데, 제각각 자기 발표 준비만 하고 있다.”

처음엔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돌아가서 생각해보니까 생각할수록 이게 복잡한 문제였다. 그래서 그 비디오를 꼼꼼히 봤다. 그랬더니 빨간 잠바의 민수라는 친구가 한 블록 수업 시간 동안 졸다가 깨다가, 온갖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근데 민수뿐만이 아니라 그런 아이가 굉장히 여럿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전엔 안보였다.

우리가 주로 ‘수업이 좀 되고 있다’, ‘내용도 있고 깊이도 있고 활발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선생님이 잘 조절하고 연결도 잘 시키고 있다’고 이야기 할 때의 주된 타깃은 누구인가? 대개 어느 학교나, 어느 반에나 있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었다. 그 아이들과 주고받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서 뭔가 잘 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아이와 잠들어 있고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과는 수업 내에서 전혀 교류가 없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 시선 피해서 졸다가 깨다가 먼 산 쳐다보다가 열심히 하는 아이 뒤에 숨는, 이런 아이들이 새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친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쳤다. 그리고 저희 관점의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는 이런 결과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고 포부가 매우 컸다. 특히 잘 못하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잘 챙기겠다는 욕심이 컸는데, 그 아이들을 저희가 다 제치고, 3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양극화가 진행된 것이다. 점점 멀어져간 것이다. 그래서 심각한 반성 끝에 ‘수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하는 고민이 시작됐다.

※ 단위 학교별로 강의 중심의 일체식 수업에 대한 반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 논리적 설득 이전에 감동이 필요하다.

※ 좋다는 것 모아 놓고, 구색을 갖춘 백화점식 연수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혁신이 필요할 때는 안배가 아니라 집중이 필요하다.

2. 이 수업을 보고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공개수업은 보통 학교에 처음 오셨거나, 젊은 선생님들을 시킨다. 초반에 그 학교에서 제일 발언권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래도 시작은 예의상 칭찬을 조금 한 다음에, '그런데'로 시작하는 본론이 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배웠던 것, 봤던 책 등 온갖 것을 동원하여 배경 지식을 깬 다음에 그 선생님과 관련된 걸 몇 가지 연결시켜서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주로는 그 선생님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 많은 말들이 어찌다가,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런데 대부분은 등쪽에 쏘인다. 그래서 그 날 끝나고 나면 꼭 술을 먹게 된다. 다시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그 심정을 아는 동료들은 마음이 잔해진다. 학교는 한동안 분위기가 싸해진다.

201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의무적으로 수업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업공개가 있는 날, 그 학교 분위기가 싸해지고 있다. '무엇을 위한 수업 연구회인가?'

2006년도부터 저희가 수업연구회 방식을 바꿨다.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아이들이 앉았던 자리에 선생님들이 둘러앉았다. 칠판에 아이들의 이름과 좌석 표를 그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맨 처음에는 '이 수업을 보고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선생님이 내가 이 수업을 보고 무엇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다른 분들도 다 공감이 된다. 또 수업을 본 분들은 '모두 다' 내가 이 수업을 보고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한다. 30명이 봤으면 30가지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뀐다. 우선 선생님들이, 전에 볼 때에는 수업을 보면서 '아 이번에는 뭐가 문제일까', '이번엔 내가 무슨 이론을 가지고 이 선생님의 어떤 문제를 지적해야 하나' 하는 눈으로 보다가, '이 수업을 보고 내가 무엇을 배웠나'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면 수업 연구회에서 관찰하는 눈이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가 동창회에 나가보면 누가 선생님인지 금방 알아챈다. 우선 무슨 이야기가 나오던 설명하려 하거나 가르치려 하고, 문제는 꼭 지적해야 한다. 교사가 본래 타고난 성격이 그럴까? 지난 몇 10년의 열악한 교육현실이 선생님들을 이렇게 내몰았다. 그런데 우리가 늘 가르치고, 지적질 하면 범생이들은 늘 따라서 지적질 한다. 선생님이 배우려 하면 아이들도 배우려 한다.

이렇게 다 같이 배우는 분위기로 바뀐다, 이 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업을 공개한 분의 변화다. 우리나라의 많은 선생님들은 콤플렉스에 시달

린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일반적인 수업 연구회 장면에서도 그랬지만, 위로는 부장, 교감, 교장 선생님, 또는 아이들, 혹은 학부모들로부터 선생님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리고 이런저런 자리를 통해서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각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30명이 내가 수업하는 모습을 보고 뭘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하나가 수업을 공개한 선생님한테는 보약이 된다. 별안간 내가 뭘 잘하는지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모아놓고 보니까,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딱 정리가 된다. 스스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까지 떠오른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전에 수많은 콤플렉스에 시달리면서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서, 그 문제를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내가 이 수업을 보고 뭘 배웠다고 하는 이야기가 모여져서 정리되는 순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긴다. 그래서 보약이 된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전에는 공개수업 하기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무슨 연구수업 하는 것처럼. 수업 시나리오도 짜고, 말 그대로 ‘쇼’를 준비한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 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 “준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일상적인 수업 그 자체로 하자. 자료? 만들지 말자. 필요한 것은 아이들 좌석 표다. 그리고 이번 차시에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한 장 이내로 준비하자.”고 했다. 2007년부터 공개수업하는 분이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더 늘어나긴 했다. ‘이 수업에서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데, 참관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봐주세요.’ 이런 내용을 한 문단 정도 추가했다.

※ ‘따뜻한 기운’을 만들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 관리자가 중요하다. 모든 수업연구회에 참여하여 따뜻한 기운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배우려’ 해야 한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3. 아이들은 어떻게 깨어날까?

수업연구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중학교 2학년 과학 수업. 특히 이 시기의 남학생들은 반인반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옆의 여학생

을 누님으로 모시고 산다. 이것은 발달단계의 차이 때문.

철수와 영희가 있다. 철수는 수업시간에 졸다 깨다 하는 아이다. 공개 수업이 시작되었다. 평소와 다르게 선생님들이 왔다고 해서 별안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난감하다.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하나, 즐기도록 뭐하고. 그런 심정을 짚은 영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뭘 같이 해보자고 선불리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때를 기다린다.

한 15분쯤 지났다. 생물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철수가 역사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영희가 “철수야, 이거 내가 설명해줘야 할 부분인데...” 라고 한다. 사실 철수도 15분 동안 헤매고 있다 보니까 건디기 힘들었다. **그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공부를 하고 말지** 하는 심정인데 영희의 말에 명분 있게 모둠 활동에 끼어든다.

그런데 끼어드는 그 순간을 본 선생님이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철수에게 다가가서 “어, 철수가 이제 시작했네.” 라고 한다. 이 한 마디만 하고 짹 빠진다. 철수는 남은 시간 내내 막 달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끝날 때는 그 모둠에서 분위기를 잡고 한창 신이 났다. 이 모둠을 담당하던 4명의 선생님이 이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다.

이 장면을 지켜본 4명의 선생님이 수업 연구회에서 이야기하니까, 다른 모둠만 보고 있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철수가 어디 한 둘 인가? ‘아,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 깨어나게 할 수 있구나’ 하게 된다. ‘맞아. 내가 저번에 철수 같은 아이한테 괜히 끼어들어서 “철수 시작했네. 딴 짓 하느라 힘들었는데 수업에 참여하니까 한결 좋지?”하고 늘어놓다가 개가 빠져버렸어. 저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리가 막 된다.

철수 이야기를 할 때, 사회 담당 선생님이 ‘아, 철수가 과학시간에 그렇게 졸다 깨다 하는지 미처 몰랐다. 수업시간에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아이가 말이 너무 많아서 브레이크 거느라 애로사항이 많았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철수의 담임선생님이 “1학년 2학기 때부터 부모님 사이가 나빠지면서 별안간 무슨 일만 있으면 반항하고 그렇게 되었다. 요새 부모님이 성당에서 하는 부부상담프로그램에 다녀오시더니 사이가 괜찮아진 것 같다. 그래서 한동안 이야기 하면 들은 척도 안하더니 요샌 다시 대화가 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수업 연구회 안에서 철수가 수업 시간에 깨어난 장면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철수와 관련된 매우 풍부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 아이들의 배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려면?

※ 교과통합, 삶의 통합을 위한 수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 ※ 평가의 질곡이 엄청나다. 어떻게 평가를 건어내고, 온전히 배움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 ※ 연구수업 전문가가 아닌 ‘따뜻한 컨설팅’ 지원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 교실 공간 배치(좌석), 교사의 동선은 어떻게?
- ※ 수업 공개와 수업연구회 시간을 주간시간표로 고정시킨다.
- ※ 교사가 교육과정이 되도록
- ※ 분기집중식, 블록타일제 등을 적용하면 수업에서 교사의 일방적 강의가 힘들어지고, 탐구와 토론, 협동을 중심으로 아이들 뭉치 커진다.

4. C란 무엇인가?

다시 철수 얘기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굳이 철수를 분류하자면 A, B, C 중에서 C에 해당한다. 그런데 철수가 왜 C인가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매우 특이하다. 철수는 기초가 부족해서 C라고 분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도 구체적으로 보면, **쉬운 것을 반복해서 오랫동안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철수 입장에서 쉬운 것을 반복해서 오랫동안 가르치면 심정이 어떨까? 아마 미치고 환장할 것이다. 그래서 철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기 싫다’로 바뀐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더 복잡해진다. 밤 10시까지 잡아놓는다. 미친다.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 없으면? 학교를 떠나야 된다. 그런 아이들을 감당하기 쉽지 않으니, 지금 많은 학교들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3~4월 사이에 10개가 넘는 반 중 아예 한 개의 반 정도가 없어지기도 한다. 아이들을 털어내거나 폭탄 돌리기를 한다.

그런데 아까 우린 철수가 영희와 선생님 사이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봤다. 이 장면을 꼼꼼하게 새겨볼 필요가 있다. 철수가 많은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아무 것도 안한 것은 아니고 배움의 경험을 그냥 낱알로 쌓아만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영희가 한마디 거 들고 선생님이 한마디 더 거든 순간, 철수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 바로 그 순간, 쌓여 있던 여러 경험들이 연결되기 시작한다. 한 번 연결되면 급격히 연결되고 정리가 짝 된다. 철수가 1시간 넘는 수업시간 동안 짝 나갔다는 것은, 그동안 철수가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많은 배움의 경험들을 모아내기 시작했고, 한 번 모아내기 시작하니까 정리가 되고 튀어 오르는 것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쉬운 것을 반복해서 오랫동안 가르치는 것’과 달리 이 과정의 핵심적인 고리는 철수가 ‘내가 배우겠다!’고 맘을 먹었다는 점이다. 결국 중요한 부분은 ‘이 아이를 어떻게 맘을 먹게 하느냐’다. 결국 우리가 수준별 수업이라든지, 안 되는 아이들을 붙잡고 뭘 막 하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철수가 깨어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2006년도에 수업 연구회 몇 번 하다가 바로 깨쳤다. 그리고 지금 위와 같은 관점으로 C를 이해하는 데는 한 2년 반 정도 걸린 것 같다.

※ 철수가 배우겠다는 맘을 먹게 하는 계기는 무엇이 있을까?

※ 아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깨어난다. 수업에서 영희가 도움을 주어...축구동아리에서 EPL을 꿈꾸며...영어 공부를 하다가...담임선생님의 격려 한 마디...

※ 방과후학교, 대학생멘토링은 어떻게?

5. 이 시대 A는 대부분 가짜다

철수가 어떻게 깨어나는지 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영희의 역할이 중요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학교 차원에서는 이 과정에서 영희 엄마가 문제를 제기한다. 대체 영희는 언제 자기 공부를 하느냐고. 그 답을 찾아보자.

창문을 열면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온다. 폭을 좁게 하면 바람이 빠르게 들어온다. 활짝 열면 바람이 느리게 들어온다. 이것을 물리에서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한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물리 시간에 선생님이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철수는 답답하다. 그래서 그것을 옆의 영희에게 ‘야 근데 그게 왜 좁아지면 빨라지고, 넓어지면 느려져?’ 하고 묻는다. 그럼 대개 우리 시대의 A인 영희는 ‘그게 베르누이의 정리야’ 라고 대답한다. ‘베르누이의 정리가 뭔데?’ ‘응 좁아지면 빨라지고 넓어지면 느려지고’ ‘그거 똑같은 말이잖아’.

이 시대의 A가 대부분 가짜라고 할 때, 지적인 측면에서도 가짜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것이다. 대부분의 것들을 그냥 외우고 있다. 왜 그런지 설명할 능력이 없다. 더군다나 철수와 같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아이들 탓이 아니다. 앞의 상황에서 전에는 선생님이 철수에게 다가가 ‘야! 뭘 따지고 그래. 그냥 외워!’ 그러면 철수는 주눅이 들어 말문이 막히고 다시는 그런 질문 하지 않는다. 영희는 우쭐해서 앞으로 웬만한 것은 다 외워 버린다. 요

즘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선생님이 영희에게 다가가 ‘지금 철수가 던진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가 철수가 알아듣도록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너는 베르누이 정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될 거야. 모두들 내에서 같이 공부해 봐!’

근래 ‘EBS 문제집에서 수능 문제가 70% 나온다는데 그건 사기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수능이 아이의 암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란 말인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응용하든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난 다 외우고 있는데 왜 똑같은 게 안 나왔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지적으로 가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C가 모르는 부분이 교과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수학으로 말하면 정리나 공식에 해당 되는 부분들이다. 그게 왜 그런지, 증명이 제일 어렵다. 그런데 그것을 해내야만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의 학교의 A들은 지적으로 사이비다.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이 우쭐해 하는 것을 얘기해보자. 지금 우리 시대에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납 된다**. 집에서 그렇고, 학교에서는 수행평가나 내신점수도 몰아주기까지 한다. 사회에 나가서도 처음엔 그렇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이우학교 얘기부터 해보자. 이우학교에서 근래 선생님을 모실 때 첫 번째로 SKY 출신을 제일 경계한다. 안 뽑는다는 얘긴 아닌데, 경계를 한다.

‘얼마나 이 사람이 범생이일까. 애들을 과연 이해할까. 이해? 당연히 못하겠지. 그런데 노력해서 아이들을 이해해 보려고 스스로 여러 변화들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까. 힘들 거야.’

이런 의심으로 선생님을 본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요새 SKY 출신을 굉장히 경계한다. 첫 번째, 기가 막힌 성적으로 여러 스펙을 갖추고 들어왔다. 문제는 더 좋은 자리가 나타나면 바로 떠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점. 어느 팀에 배치가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못하는 사람도 많고 부족한 사람도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뭔가를 같이 하고 팀 차원에서 무언가를 하는 걸 잘 못한다. 급하면 그냥 혼자 해치워버리거나, 늘 칭찬만 받아왔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공은 자기가 차지하려 하고, 팀플레이가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 모로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래 조직에 있을 가능성도 없고. 이러니까 경계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납되는 분위기에서 왔다고 보아야 한다.

※ C가 자신의 의문을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교실 분위기’가 왜 어려울까?

※ 수준별 수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II. 생활지도? 아니, 우리 탓이다

인권조례 제정 후 모두들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한다. 사고치는 아이들이 이해는 안 되고, 그렇다고 생활지도를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바뀔까? 혹시 겉으로만 잘 길 들여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 깊은 내면의 힘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쉬운가?

1. 설치미술



2009년 3월 15일 중학교 3학년 점심시간 남자 화장실 사진이다. 양변기에 새 휴지가 박혀있고, 왼쪽에 변기 청소하는 솔과 스테인리스 물 컵이 뒤집혀서 박혀있다.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 아이들 1년 선배가 좀 문제가 있었다. 문제란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우에서는 아이들을 선발할 때 다양한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학업으로는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가 골고루 모여 있는 정규 분포를 그리게 하고, 인성으로도 다양한 아이. 제각각 다양한 아이들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매년 그렇게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고려 사항이라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새로이 구성되는 학년 팀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그리고 학교의 지향점에 공감하느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나머지는 최대한 다양하게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아이들 한 학년 선배들과 중학교 1년을 지내고 보니, 골고루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범생이들이 그 학년의 문화를 너무 주도했다. 그래서 좀 사고 칠만한 아이들이 자꾸 찌질이처럼 아무 것도 못한다. 그래서 그냥 조금 토닥거리는 것 말고 큰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난다. 사고가 생겨야 그것을 교육적으로 풀어볼 수가 있는데 일이 안 터지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 답답해했다.

그래서 그 일 년 후배인 이 아이들을 뽑을 때 좀 사고 칠만한 아이들을 조금 더 선발했다. 이우에서는 이런 애들을 ‘쏘가리’라고 하는데 양식장에서 붕어들이 좀 비실비실할 때가 있다. 그럼 쏘가리를 한 마리 푼다. 그럼 한두 마리는 잡아먹히는데 나머지 붕어들은 다 깨어난다. 이런 쏘가리 같은 아이들을 좀 챙기고,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을 좀 더 뽑았다.

1학년 1학기가 되었는데, 이제 갓 초등학교 졸업한 6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가. 1학기는 조용히 지나갔다. 기대했던 아이들도 안 움직이고. 그런데 방학 끝나고부터 아이들이 덩치부터 달라져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몇 건씩 터지기 시작했다. 한 건이 터지면 2주에서 3주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맨 처음에 사고를 친 아이들을 불러서 경위를 파악하고 후속 조치로 부모도 불러서 상담하고, 상황에 따라 아이들을 데리고 농촌 봉사를 일주일 가거나 과제를 맡기고, 더 심한 경우는 전문 상담으로 외부에 의뢰하는 등 이런 식으로 2,3주가 걸린다.

터진 건을 한창 처리하고 있는데 또 한 건 터지고 이런 식으로 2학년 말까지 사건이 계속 이어졌다. 늘 사고치는 아이들이 계속 치는 거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아이들은 항상 용의자가 된다. 늘 사고가 터지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싸우는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1년 반을 하다보니까 대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무슨 강력계도 아니고 아이들과 싸우기만 하고 아이들의 변화는 없고 계속 사고는 터지고. 그래서 3학년을 앞두고 전열 정비를 했다. 학년팀 멤버도 새로 짰다. 아이들도 심상치 않은 변화를 느꼈다. 한 보름동안 분위기를 살폈다. 그리고 딱 사진처럼 이런 일이 벌어졌다. 흑여 선생님들 반응이 약할까봐 사진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화장실 문짝도 아예 뜯어냈다.

점심시간에 학년팀 선생님들이 쫓 모였다. “누굴까?” 7,8명이 떠오른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불러서 조사해보자 하는데, 팀장 선생님이 “우리 지난 1년 반 동안 일 터지면, 아이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후속 조치로 상담하고, 봉사시키고, 그러다 보면 또 일이 터지고.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그럴 겁니까? 오늘 하루 깊이 생각해보고 내일 대처합시다.”라고 마무리를 했다.

이 팀장님이 도덕 담당 선생님인데, 다음 날 시간표를 조정해서 반마다 다 들어갔다. 들어가서 위 사진을 화면에 띄워놓고 “어제 점심시간에 남자화장실에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설치미술**이 되어있더라. 이 작품을 만든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 우리 그것에 대해 한 블록동안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늘 용의자로 살아온 아이들의 고통, 학교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한 소리 들은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등이 다 나왔다. 팀장님은 그 이야기마다 공감을 해 가면서 아이들 마음을 다독였다. 그래서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다 나왔다. 그 날 저녁에 그 7,8명 아이들이 모였다.

“야, 좋겠다. 우리 마음 선생님들이 다 알아버렸다. 개겨 봤자 소용없다. 이제 그만하자.” 8명의 마음이 탁 풀렸다.

이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내내 별 다른 일이 없었다. 간간이 토닥거리는 건 있었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이우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이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도 많고, 자치 활동도 많고, ‘한여름 밤의 꿈’이라고 큰 무대에서 반별로 연극하는 것도 있고, 해외통합기행도 있다. 역대 고1 중 최고의 활동력을 보이는 아이들이 되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고 나서 다른 학교랑 이것저것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또래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공격적이고 거칠다고 한다. 이것을 가만히 여러 가지로 분석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서너 살 때 금융위기가 닥쳤다. 가정 분위기도 안 좋고, 그냥 “그만해” 한 마디로 해결할 거 괜히 더 쥐어박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억압된 것이 많고 쌓인 게 많고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런 것들이 공격성으로 나타났다. 선생님한테 잔소리 들으면 약한 아이 괴롭히게 되고. 그런데 이게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굉장한 활동력으로 변화한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이 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그동안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이들하고 싸웠던 걸 크게 반성했다. 이 걸 설치미술로 이해하는 데 6년이 걸렸다. 그런데 그 팀장님이 그 일을 설치미술로 이해하게 된 데는 중요한 배경이 있었다.

2. 이우학교의 역사를 써온 친구들

그 팀장님이 2008년에 고등학교 2학년 팀에 계셨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저희 중학교를 2번째로 입학한 아이들이고, 고등학교는 5번째로 졸업하게 되는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바로 이우학교의 중요한 역사를 써왔던 아이들이다. 학내 최초의 음주, 흡연, 폭행, 집단 갈취, 절도 ··· 등등.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흘린 눈물의 반이 그 친구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아이들이 고1로 입학했을 때 학년 팀 차원에서 힘들 것 같아서 교장, 교감이 학년팀에 결합했다. 고2까지 한 1년 반 동안 그 아이들을 붙들고 온갖 씨름을 했다. 학년 팀 선생님들이 감당이 안 되면 교장실로 온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훈계를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우학교에서.” “이우학교가 추구하는 게 뭔데.” “너희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는데!”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끈대가 계속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겠지만. 교장은 아이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저만 그랬을까? 모두가 마찬가지였다. 1년 반을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많이 이해했다. 그때 크게 깨쳤다. 그래서 저 아이들의 설치미술을 이해하는데 6년 정도 걸린 것 같다.

3. 수능 출정식

이우학교의 역사를 써온 친구들이 수능을 앞두고 출정식을 하니 저보고 격려를 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학부모 10여 분과 함께 모였다.

“지난 3년, 혹은 6년 동안 여러분들은 이우학교의 중요한 역사를 함께 써왔습니다. 이우학교 최초의 학내 폭력, 음주, 흡연, 집단갈취··· 등등 이우학교의 굵은일에 다 얹여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내느라 선생님들도 많은 눈물을 흘렸겠지만 특히 부모님들은 오죽했겠으며 본인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과정은 바로 교장인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고통과 방황을 함께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우학교는 아직도 끈대와 보모가 적정히 버무려진 채 아이의 성장, 교사의 성장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혹여 착실하게 잘 가르쳐서 어느 조직에서나 시키는 일 잘 하는 범생이로 키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여러분들은 온갖 좌절과 고통, 그리고 시행착오들을 이겨내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깊은 내면의 힘을 키웠고, 이우학교가 세상에 내보내고 싶은 청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20대에 청춘의 혈기와 열정으로 세상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40대가 되면 가족과 그 동안 엮인 여러 관계들로 인해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빠집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을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기대해 봅니다. 한 20년쯤 지나서 여러분이 40대가 되었을 때, 자신의 행복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저희들과 함께 어깨 걸고 나서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우학교 교육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20년 후 여러분의 어깨 위에 있지 않을까요?”

출정식 자리는 완전히 울음바다였다. 부모님들도 통곡을 했다. 그 아이들 아니었으면 정말 아무 것도 몰랐을 것이다. 정말 너무 고마웠다.

2010년 겨울이 좀 추웠다. 그 겨울 계속 영하 십 몇 도를 오가는데 열댓 명 정도 되는 그 주역들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20살이 넘는다고 연말에 모였다. 학교 주변에 낙생저수지라고 좀 큰 호수가 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12월 31일 밤 12시에 모였다. “우리가 통과의례를 해야겠다.” 그래서 얼음을 깨고 영하 십 몇 도인 밤에 다 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까지 수업이나 배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야성이나 사건·사고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맥락은 무엇일까? 역설적으로 최고의 교육 시설, 탁월한 강의, 훌륭한 부모님들 속에서 아이들은 오히려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속에서 자란 아이는 내면의 힘이 키워지지 않고 잘 길들여지기 십상이다. 아니면 무기력에 빠진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야기해보자.

교장실에 주먹을 휘둘러 친구 이빨을 부러뜨린 칠수가 학년팀에서 감당이 되지 않아 불려왔다. 전에는 ‘더불어 살아가려는 이우학교에서 어떻게 폭력을 쓸 수 있느냐, 타이르는 담임선생님에게 대들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호통을 쳤다. 아이는 위세에 눌려 주눅이 들고 머리를 조아린다. 반성문도 열심히 쓴다. 그러나 칠수의 마음속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칠수는 늘 잘난 체 하며 자기를 무시하는 영호를 못 마땅해 했는데, 결정적으로 자기를 멍청하다고 아이들 앞에서 놀려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게다가 선생님은 친구를 무시하고 놀리기까지 한 영호는 나무라지 않고, 자기만 잘못했다고 몰

아치는 담임 선생님에게 더 화가 났다. 게다가 교장선생님까지 나서서 찍어 누른다. 이제 꼼짝 못할 상황이라 포기하고 깨갱한다. 그런 칠수의 마음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지만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반성하는 척 고개도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도 어쩔 수 없이 한다. 반성문도 다시 쓰지 않을 정도에 맞추어 때운다. 이제 눈치껏 대충 살자고 마음먹는다.

교장인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한 것인가? 학년팀에서 대들던 아이를 고분고분하게 만들었다고 흐뭇해하는가? 칠수는 성장하기는커녕 더욱 작아지고, 길들여져서 눈치껏 살아가는 좀팽이를 만들었다. 아이들 찌그러뜨려 놓고 만족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찌그러진 아이들은 더 큰 일을 저지르고 다시 불려오고, 결국 몇 높은 학교를 떠나기까지 했다.

2007년에 이런저런 노력으로 아이들을 조금 이해하고부터는 많이 달라졌다.

교장실에 불려온 칠수에게 차분히 차 한 잔을 대접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한 다음,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먼저 영호에 대한 분노, 담임선생님에 대한 분노를 읽어 준다. ‘그 때 칠수가 화가 많이 났었구나.’ 그 한 마디에 칠수의 분노는 바로 가라앉는다. ‘영호 이빨은 어떻게?’ 하면 칠수는 바로 친구 걱정을 한다. 친구 걱정을 하는 칠수의 마음을 살짝 격려한다. 친구 걱정은 부모님 걱정으로 넘어간다. 지난 번 건으로 부모님이 힘드셨는데 이번 일로 얼마나 상심을 할까? 교장과 칠수는 함께 부모 걱정을 한다.

칠수는 이제 현재의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게 된다. 이렇게 막가는 상황까지 지난 몇 년을 돌아본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면서 칠수는 깨어난다.

어떻게 보면 사건, 사고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내면과, 타자(친구들, 선생님, 부모님)와 마주하게 된다.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된다. 전에는 아이를 조사를 하고 다그쳤다. 반성문을 쓰게 하고,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등 반성을 강요했다. 그러면 아이는 핑계를 대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내면의 성장이 지체되거나 왜곡되었다. 반면에 교사가 마음으로 전하는 공감과 위로, 격려, 자극의 메시지는 아이에게 자기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 분노, 슬픔과 마주하게 한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아이들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사유하게 되며 성장 동기가 형성되고, 내면의 힘을 키우게 된다.

우리는 그 아이들로부터 그것을 배웠다. 우리가 특별한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원래 어떠해야 할까’, ‘선생님이 아이들과 어떻게 만나야 할까’, ‘아이들의 성장이란 도대체 뭘까’ 라는 것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을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만이 내면의 힘이 성장한다. 그 힘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세상과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키우는 것이 학교라고 생각한다.

Ⅲ. 2009년의 반성

앞에서 수업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수업 이야기를 이어서 더 해보자. 2006년부터 바뀐 수업 연구회를 4년 정도 하다보니까 ‘이 수업을 보고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이야기 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그걸 3년 하다보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졌다. 점프도 한 두 번이지 계속 하는 건 쉽지가 않다.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철수 이야기 같은 것은 일 년 이내에 다 파악이 된다. 이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진 거다.

수업 연구회는 그렇고, 아이들 수업을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 2009년 가을 쯤 어느 날 묘한 느낌을 받았다. 제가 볼 때도 다른 학교와 저희 학교의 수업의 질이 다르다. 아이들의 집중도부터도 그렇고, 분위기가 다르다. 그래서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가을에 묘한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수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발언을 하고 참여를 하고 눈빛도 맞추고, 활동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선생님은 기대했던 수준만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만족을 하고, 지금 현재 자신이 갖고 닦아 만든 활동지 내지는 수업 준비 내용에 대해 굉장히 흡족해 하고 있었다. 가끔 다른 학교에 가서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으니까.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1년만 가면 한 방에 무너지겠단 생각이 들었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 이전과 비교하여 대단히 훌륭하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그런 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서 더 이상의 자극과 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 수준마저 무너지게 된다. 그것이 교육이다. 그 점을 느꼈다.

수업 장면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 통합기행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고 평가까지 하는, 소풍도 아니고 수련회도 아닌, 주제가 있는 통합기행을 한다. 한 3,4년 동안 꾸준히 그 과정이 아이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었다. 멋진 기획안이 나오고 아이들이 그것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했다. 근데 그게 4,5년쯤 되니까 그 전까지 선배들 사이에서 나왔던 좋은 안들 중 하나 골라서 아이들끼리 지원자 모으면 된다. 게다가 기획안뿐만 아니라 여행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들도 이미 홈페이지에 선배들이 다 올려놨다. 그래서 때 되면 한 열흘 준비했다가, 3박 4일 잘 다녀오고, 다녀와서 자기 활동 개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전체 평가까지 하고 평가서 올리고, 보고대회까지 잘 마무리한다. 멋있다. 잘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의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라고 묻는 순간 아무 대답이 없다. 싱거워진 것이다. 고2쯤 되면, 중1때부터 이것저것 웬만한 것 다 할 줄 안다. 더 이상 자신의 성장을 자극하는 새로운 도전이 없다.

당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위기다. 그래서 도발을 시작했다. 야성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수업 연구회 형식을 바꿨다. 이제 ‘내가 이 수업에서 뭘 배웠느냐’, ‘아이들이 어디에서 배움이 멈췄거리느냐’, ‘어디서 깨어나느냐’ 같은 이야기는 있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문제는, 수업 내에서 선생님들이 현재 이 지점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자극하는 도전적인 문제를 잘 제기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수업 연구회를 하자. 그래서 2010년부터 수업 연구회 형식을 바꿨다.

그런데 결과는 만만치 않다. 다섯 번을 하면 겨우 한두 번 정도 아이들이 그 장벽을 뚫고 넘어가서 반짝하는 걸 보는 수준이다. 그것을 헤쳐 나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선생님들 지금 아주 찼찼매고 있다. 그동안 자족했던 자신의 수업 준비 내용을 다시 다 보고 있다.

모둠 내에서 영희의 입장에선 뻔 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 심지어 철수조차도 이제 대충 풍월은 읊는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함께 20여분 정도 고민하지 않고는 풀리지 않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던져야 한다. 현실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수업 내에 끌어들이건지, 그런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여러 변화들을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다.

IV. 어려운 조건이 교육적이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이우학교가 5년 전에 재정결합 지원을 받게 돼서 중학교는 학비가 없고,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와 비슷하게 내게 됐다. 그 이전까지는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1.7배로 시작했다가 일 년에 적자가 4억, 5억씩 났다. 그걸 메우기 만만치 않으니 결과적으로는 3배까지 올라갔다. 귀족학교 소리도 들었다.

선생님들은 지역의 ‘있는 집 자식’ 가르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아이들의 변화도 굉장히 더디다. 그래서 6년 전에 성남 구시가지에 ‘함께 여는 교육 청소년 학교’라고 방과후 학교를 세웠다. 그 지역의 중학교 1학년 중에 가장 어려운 아이들을 5명씩 추천받았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던져보고 싶다. 그 전에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지금은 이우학교 학생들의 구성이 다양하게 달라졌지만 초창기 6년 동안 부딪혔던 문제는 정말 있는 집 자식들은 잘 안 바뀐다는 거다. 아이들이 아쉬운 게 없다. 그들의 욕망이 좌절되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이 졸업해서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어쨌건 먹고살 대책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발버둥 쳐봤자 취직이 힘들 것이란 것도 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어른들이 너무 많다. 10대가 요샌 중요한 소비자 아닌가. 10대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감각적으로 접근해야한다. 그러다보니까 게임은 엄청난 집중력으로 하지만 공부는 안한다. 그리고 힘든 일, 도전 절대 안한다. 흔히 말하면 무기력한 아이들이다.

앞에 아이들의 역동적인 변화를 말했던 경우는 사고치는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 가르치기가 제일 쉽다. 그런데 이 뻔질거리며 매사 무기력한, 그래서 자기 진로조차도 확정지으면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결정을 늘 유보하는, 그 아이들이 제일 힘들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상황에도 이우학교의 가장 큰 도전 상대는 있는 집의 뻔질이들이다.

반면에 청소년 학교의 아이들은 각 학교에서 추천받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현실을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문제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는데 진짜 문제는 학교에 적을 두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학교를 그만 둘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간 다음에 대책 세우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학교에 재학 중인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제자리를 잡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우학교의 여러 교육적 경험을 모아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있는 집의 무기력한 뺑질이들과 달리, 이 아이들은 엄청난 상처와 좌절을 견디면서 살아왔다. 한 몇 년 정도 열심히 하면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도 안 걸렸다. 이 아이들은 학교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다. 이우학교 아이들 상대로 1,2년 해야 겪는 변화를 이 아이들은 잠깐 사이에 빠르게 깨어났다.

우리는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한다. ‘없는 아이들 도와줘야하니까’, ‘시혜적으로’, 그런 입장이었다면 큰 변화가 없었으리라. 오히려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이 그 좌절과 상처를 딛고 일어난다면, 깨어난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질 것이고 그 힘으로 사실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기대했다. 바로 이 아이들이 ‘우리 미래의 인재다’,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

이우학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다양해 졌지만, 사회적으로 인프라가 많고 잘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가능했던 교육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 한다면, 아니 거꾸로 라고 말하고 싶다. 오히려 그래서 더 힘들었다.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했다면 더 쉬웠을 것이다.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지역이 어렵다’, ‘아이들이 개판이다’, ‘부모가 어떡다’, ‘학교의 제도가 뭘 못하게 한다’, ‘교육청 간섭이 많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조건이 훨씬 교육적이다.**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이렇다. 소위 말하는 ‘있는 집 자식 뺑질이들’이 제일 바꾸기 어렵고, 그래서 그놈들을 제대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온실을 부수고 험한 도전을 하게 만드는 노력들이 훨씬 교육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학교 내 대안교실 : 학생 맞춤형 교육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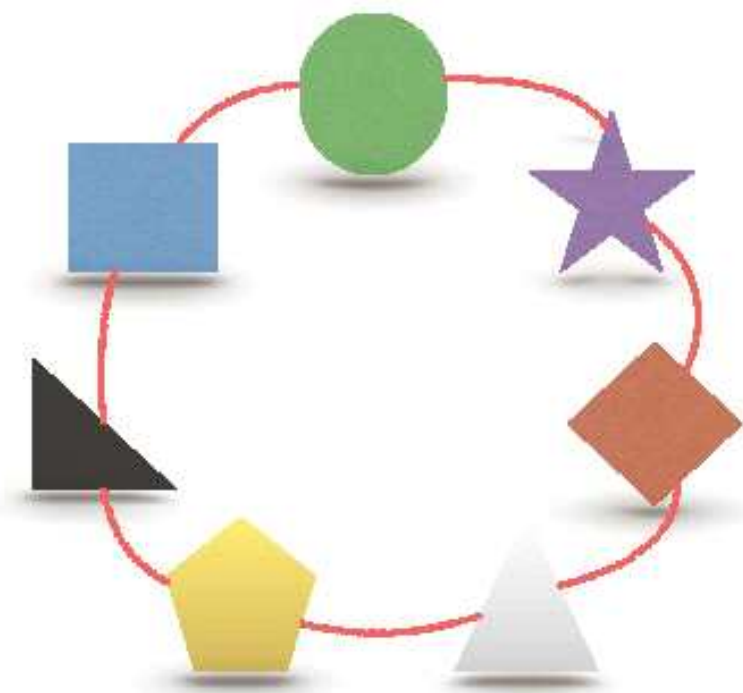


이 승 주

웅상고등학교 교사

대안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 교실을 포기한 담임 선생님...



일반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선생님들께...

2016년 봄, 간절한 마음으로...

교육부

차 례

서론

대안교육의 정당성

본론

학교 내 대안교실 기획 및 운영에서 피해야 하는 것

웅상고등학교 대안교실

'바람의 학교' 대안교육 프로그램

웅상고등학교 대안교실 프로그램의 전환

제안

대안교실 운영 프로세스

대안교실 운영의 원리 Fun fUn fuN

서론

대안교육의 정당성

대한민국 교육부는 2014.4.1.에 학업중단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2013년에 비해서 학업중단 학생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전년대비 7,620명이 줄었다. 2013년도에는 학업중단학생이 68,188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60,568명으로 약 11.2%가 감소하였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쁜소식이다.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획기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을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등학교의 학업중단률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4.1. 자로 초등학교 15,908명, 중학교 14,278명, 고등학교 30,382명이 학업을 중단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중단 학생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가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한해 3만명 이상의 고등학생이 무장해제된 채로 야생으로 내동댕이 쳐진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학업중단 학생들을 막아야 하는 이유에 가장 큰 힘을 실어주는 데이터는 범죄자 중 약 75%가 학업중단 학생이 차지하고 있으며, 고교졸업자가 고교 학업중단자보다 일생동안 약 3억원 가량을 더 번다라고 하는 High School Dropout statistics(2013) 통계자료이다.¹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많은 교육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학업중단 학생을 막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비록 학업중단 위험군에 놓인 학생들에게 일반학생들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하더라도 학업중단만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했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또한 학교에게는 학업중단학생을 반드시 줄이거나 zero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주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

흔히 근대 철학의 실수에 대해 논할 때, 무어(G.E.Moore)의 '자연주의적 오류'는 빠지지 않는다. 2 자연주의적 오류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실이 당위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머리라는 사실 때문에 대머리 협회에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한해 3만명이 생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학업중단을 당연히 막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¹ High School Dropout statistics(2013). <http://www.statisticbrain.com/high-school-dropout-statistics/>

² 선을 어떤 종류의 자연적인 성질이라고 주장한다든가 혹은 그런 성질들의 복합체라고 주장할때 발생하는 오류로 무어(G.E.Moore)가 제창하였다. 무어는 그의 책 「Principia Ethica」 (Cambridge: Cmbridge University Press, 1903.P.10.)에서 “너무나 많은 철학자들이 다른 성질을 지칭하면서 선을 실제로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실상 이러한 성질들은 '다른' 성질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선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무어의 주장과 더불어 사이키안(W.S.Sahakian)은 그의 책 「Ethics: An Intrduction to Theories and Problems」 (New York : Harper & Row, 1974, p.250.)에서 “선이란 단지 욕구의 대상에 불과하다고 말하거나 다른 어떤 형태의 윤리학적 자연주의를 제창하는 것도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근거해 보면, 앞서 언급한 교육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의 경제적 논리에 따른 학업중단예방 주장은 ‘자연주의적 오류’에 함몰되어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단순히 철학적 오류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교육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학업중단예방’을 경제적 논리로 바라 볼 때 생기는 교육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학생들이 미래에 벌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 보겠다는 뜻이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돈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학생은 돈으로 환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품어줘야 할 대상이다.

둘째, 경제적 논리에 따른 학업중단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학업중단에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 경제는 데이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데이터 수치 속에 숨겨진 서사(narrative) 곧 이야기를 알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데이터로 가리워진 학생들의 속 이야기들은 다시 끓아서 언제 터질지 모른다.

셋째, 경제적 논리로 학업중단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하다보면 학생들이 왜 학업을 중단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학업중단의 근본을 치료하기 보다는 드러나는 현상을 바꾸려는 교육적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 만약 학업중단이 많은 어떤 특정한 학교에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예산을 내려주게 되면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아이들에게 임시방편적인 갖가지 대안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부에서 특수한 현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내려줬기 때문이다. 하루 기관에서는 현상 이전의 본질을 생각하기가 어렵다.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단지 1학기나 1년정도 학교를 더 다니게 하기 위해서 일반 교육과정에서 빼서 여행을 가거나 직업 체험을 하는식의 땀땀식 교육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좀 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대안교육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최근 SBS 창사특집 바람의 학교 제작진은 전국 1천명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8%의 학생들이 평소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절반 가량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잠재적 대상자라는 것은 놀랄만한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진로가 없다면 희망진로가 없는 성적 하위권 학생들과 비슷한 학교 부적응도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성적은 하위권이라도 희망진로가 뚜렷한 학생들은 학교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교 적응 수준은 성적과는 무관하며 희망진로의 여부에 따라서 학교 적응 수준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학교에서 학생이 자신의 미래 비전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다.

그렇다면 48%의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진로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과 관계 없이 획일화된 성적대로 줄을 세우고 이에 따라 대우하는 줄세우기식 교육문화 줄세우기식 교육은 교육을 경제로 바라볼 때 만들어지는 대표적 산물이다. 아직도 수많은 교육현장에는 산업혁명 시기에 만들어진 교육철학과 교육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구성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실의 학습목표는 철저하게 행동주의로 점철되고 있다. ‘이번 수업시간이 끝나면 방적식을 풀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동물도 아니다. 미국 메트스쿨의 설립자 데니스 릿키는 ‘학생들마다 학습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주장한다. 들어서 학습하는 학생, 읽어서 학습하는 학생, 오히려 말하면서 학습하는 학생, 쓰면서 익히는 학생 등 학생들은 여러 다양한 방식에 따라 학습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교육방식은 가히 폭력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우리의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을 중단하게끔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은 차치하고서라도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희망진로를 심어주기에 적합할까? 어쩌면 대안교육의 정당성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찾아야 될지 모른다.

본론

학교 내 대안교실 기획 및 운영에서 피해야 하는 것

일반 학교 내 대안교실은 특수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첫째,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는 일상의 삶이 무너져서 낮과 밤이 바뀌었거나, 감정조절이 안되어서 폭언이나 폭력을 일삼는다가나, 가정에서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매사에 우울하고 무기력하며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게임이나 인터넷 등에 중독되어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일반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또 다른 교육과정을 제공해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두번째 대안교실의 특수한 임무는 입시교육이라는 하나의 트랙만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또 다른 트랙들을 제공해서 같은 트랙에서 일렬로 학생들을 뛰게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트랙에서 함께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학입학이나 획일적인 꿈과 비전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일반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 학생 스스로 학교에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트랙 즉 교육과정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안교실의 트랙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대안학교는 그래도 집에서 아이에게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아이들이 모여있거나 하는 등 소수의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질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물론 좋은 대안학교가 많이 생겨서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일반 학교내 대안교실은 어떻게 보면 대안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최적의 교육조직이다.

대안교실의 두가지 특수한 임무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막중한 임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 설 수 밖에 없다. 이 걱정은 한마디로 '이걸 혼자서 어떻게 해?'라고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을 위해 해서는 안되는 것 중에 제일은 '**혼자하기**' 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교실 운영 지도인력 구성은 3명이다. 먼저 대안교실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교사가 필요하다. 이 교사는 대안교실의 행-재정적 업무와 프로그램 기획, 학교 내 도움을 주실 선생님 섭외 등을 담당하며, 대안교실의 담임교사 역할을 맡는다. 무기력하거나 때론 거친 아이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으면 좋다. 이 말은 교육의 본질이 아닌 부분에서는 상당히 허용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되 대안교실의 학생이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과감하게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담교사가 필요하다. 상담교사는 WEE 클래스 업무를 맡고 있고 매일 매일 과중한 상담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안교실의 업무

를 전담할 수는 없지만 대안교실 상담업무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냐하면 WEE클래스에서 관심을 가지고 상담해야 하는 학생들이 대안교실 학생들과 교집합을 크게 이루기 때문이다. 상담교사는 대안교실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 학생들의 심리적, 관계적 상태를 파악하여 대안교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안교실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인성부장이나 학생생활부장이 필요하다. 업무부장은 학교 내 대안교실 업무와 흡사한 예산이나 프로그램 등을 조율하고 학년부장들에게 대안교실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나아가서 대안교실 학생들이 학교 밖 지역기관 혹은 유관기관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대안교육 전담팀을 3~5명까지 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전담팀만으로 대안교실을 운영할 수 있을까? 대안교실을 꾸준히 운영해 온 선생님들 중에 학교 내 동료 교사들이 오히려 대안교실의 방해꾼이라고 하소연 하시는 분을 종종 만나게 된다. 심지어 어떤 담임교사는 반일제 대안교실에 아이를 일부러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필자가 만난 어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상태가 안좋은 학생들에게 많은 예산을 쓰냐며 질문하기도 했다.

학교 내에서 운영되고 있고, 운영 되어야만 하는 대안교실은 학교 내 작은 학교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몇몇 선생님들만 대안교실을 운영에 참여한다면 이 작은 학교는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릴 수 밖에 없다. 또한 험난한 아이들이 속해있는 대안교실을 몇몇 선생님들만 감당하다보면 그 선생님들이 금방 지칠 수 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교실 연수를 일반 선생님들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학교장 연수를 3월 중에 열어서 학교 교직원들의 전반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필자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인식의 전환보다 더욱 적극적인 태도의 전환이다. 즉, 모든 선생님들을 대안교실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대안교육을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다.

전 교직원이 함께 대안교실을 운영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대안교실 운영에 관심과 지지, 격려를 보내주는 교사 그룹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안교실에서 해서는 안되는 것은 **‘대안프로그램의 병렬식 나열’**이다. 대안교실을 처음 시도했던 2014학년도에는 정말 각종 학교의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오기에 급급했던 것 같다. 도대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해야 아이들이 바뀔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전국 여러 대안학교들을 답사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 웅상고에 적용 가능할 만한 것들을 병렬식으로 교육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서 언급하겠다. 이러한 병렬식으로 프로그램을 나열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의 요구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있다. 대안교육 프로그램일수록 아이들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삼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교육적 동기를 끌어내고 흥미와 지속성을 불러 일으키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교육과정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다. 웅상고 대안교실 운영 시 겪었던 어려움과 바람의 학교에서 겪었던 고난?의 모든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웅상고등학교 대안교실

움직이는 교실

교실은 '잠자는 곳', '감옥과 같은 곳', '강압적인 학습 요구만 있고 나의 이야기가 전달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정의는 학생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교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교실은 답답한 곳이다. 특히 교실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잠만 잔다. 차라리 떠들거나 활발했으면 좋겠는데, 밤에 뭘 했는지, 낮과 밤이 바뀌어서 낮-학교의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계속 잠만 잔다.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교실을 움직여 버리자였다. 마치 TV프로그램 '러닝맨'처럼 학생들이 교실 곳곳, 학교 곳곳을 돌며 미션을 수행하게하는데 미션의 내용이 교과내용 혹은 다양한 공동체 체험 프로그램이 되는 형태이다.

이 대안 프로그램의 장점은 먼저, '아이들이 잠을 잘 수가 없다.'이다. 팀별로 미션을 빨리 수행해 내야 승리하기 때문에 잠잘 틈이 없다. 일단 잠을 자지 않아야 뭐든 할 것 아닌가? 두 번째로, 움직이는 교실은 팀별로 협동을 해야 미션을 수행해 낼 수 있기 때문에 unit화 되어 있는 아이들을 unity로 만들 수 있다. 철저히 개인화 되어있는 학생들은 함께 어떤 일, 프로젝트를 해 본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 아이들로 하여금 공동체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경험해 보게 하여 사회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움직이는 교실의 두 번째 장점이 있다. 세 번째로 학습에 대한 흥미도 제고이다. 움직이는 교실의 미션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어 선생님을 찾아서 그분이 주는 미션을 팀이 함께 수행해 내는 것이 미션이라면 국어 선생님이 제시하는 미션은 어떤 시를 팀원들이 함께 빠른시간내에 암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 교과목에 적용될 수 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꼭 교과내용이 아니더라도, 컴퓨터실에서의 미션은 게임을 아주 잘하는 선생님과 게임을 붙어서 이겨야만 통과되는 미션이다.

Learning Through Internship(Interest)

L.T.I. 프로그램은 미국 매트스쿨에서 시작된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직업체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업현장의 멘토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신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그 프로젝트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배움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창원에 위치한 태봉고등학교에서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태봉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웅상고등학교 대안교실에 이 프로그램을 접목시켜보는 것이 어떤 까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장벽이 존재했는데, 바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멘토선생님들을 구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였다. 웅상고 대안교실에 들어온 아이들은 미용사, 도서관사서, 바리스타, 목공장인,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머, 자동차 디자이너, 중국어 통역사 등이 되고 싶다고 조사되었다.

사실 아이들의 각종 희망사항을 만족시키려고 생각하니, 너무 막막했다. 그래서 무작정 학교 인근 미용실, 도서관, 커피숍, 목공소, 카센터,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서 아이들의 멘토 교사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렸다. 이런 일이 다들 처음이시라서 그런지 매우 어색해 하셨다. 하지만 학교가 정말 아이들을 생각한다는 마음이 잘 전달되었는지, 웅상고 아이들을 맡아서 멘토가 되어줄 것을 약속해 주셨다. 인턴십 초기에는 모든 아이들을 인턴십 현장에 데려다 주었다. 안전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과연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때문이었다. 학교에서도 잠만 자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멘토 선생님들께 혹여나 폐를 끼치진 않을까?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 학교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턴십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태도가 너무 놀라웠다. 청소 등 허드렛 일도 해야 하는데 마냥 즐거운 표정이었다. 무엇이 이 아이들을 바꾼 것일까?하는 생각 이전

에 학교에 대체 아이들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외 웅상고 대안교실에서 했던 일!

1) 강아지 키우기 프로젝트

꿈키움 교실 학생 부모님으로부터 강아지 3마리를 분양받았다. 진돗개이기는 하나 혈통이 아주 복잡해 보였다. 강아지를 분양 받아 오는 그날 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운전은 커녕 강아지들을 차에 싣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오후, 학교 인근의 모 아파트 축대가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강아지들을 교무실 복도에서 하루를 재우려고 했으나 심각한 냄새 때문에 결국 밤 9시경에 학교 운동장 근처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당장 다음 날부터 설학술 교장 선생님은 강아지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동분서주하셨고, 학교운영위원 중 한 분이 울타리 공사를 무료로 해주어서 학교 뒷편 꽤 넓은 공간이 강아지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목공소에서는 개집 하나를 선물로 만들어 주었다.

학교에서 키울 강아지들의 예방접종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방접종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동물병원에서는 강아지 한 마리당 30만원을 요구했다. 학교의 교육적 목적을 이해한 00백화점 인근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들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한 마리당 10만원에 모든 종류의 예방접종을 다 해주기로 했다. 10일에 한 번 씩 총 5번을 강아지를 차에 싣고 양산 덕계에서 부산 동래까지 다녀와야 했다. 다행히 도움반 선생님들과 나누어서 다녀왔지만, 강아지들은 여지없이 차에다가 토를 했다. (강아지를 차에 싣고 이동할 때에는 강아지 케이지와 물티슈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강아지들 밥은 학교 식당 영양교사와 조리사 분들의 도움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되었다. 주말에는 꿈키움 교실 학생들 중 한 명이 맡아서 밥을 주러 학교에 나왔다. 목욕과 산책은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실시하였다. 그러나 매일 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강아지들은 방치되었고 모든 것이 담당교사의 일이 되었다. 그렇게 강아지들과 꿈키움 교실 학생들간의 동거는 계속되었다. 초코, 웅이, 상이라고 이름도 지어주었다.

학교에서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은 학교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행정적 측면이나 교육기관의 차원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2) 합창, 기악, 목공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우리는 합창, 기악연주, 목공예와 같은 이성이 아닌 정서를 자극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다른 여러 가지 정서 함양 프로그램이 있지만 굳이 합창, 기악, 목공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운용하기가 쉬우면서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합창'은 하모니 연습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교육 방법이다. 하모니를 위해서는 학생들은 나와는 다른 소리를 들어야 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타인의 말에 귀기울이는 연습을 하게 된다. 이러한 '다른소리듣기'가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면, '배려'라는 덕목이 내면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으로 봐도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안교실 학생들 대부분이 노래 부르기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합창반은 잘 운영되지 않았고, 강사 선생님의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평소 수업시간에도 소극적이고, 누군가 앞에서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을 해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생각도 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소리를 들어서 자신의 소리를 그것과 맞추는 것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2학기 때에는 좀 더 젊고, 성악을 전공했을 뿐만 아니라 합창지도에 경력이 있는 강사를 어렵게 섭외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합창 외에도 기악(건반, 기타, 카혼)을 섞어서 가르치기로 하였다. 마침 성악 선생님의 남편이 기타와 카혼 연주가 가능해서 토폴이 꿈키움 교실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학생들은 가만히 앉아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였다.

전북 동화중학교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인 목공 수업이 학생들의 정서와 행동 변화에 효과적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우리는 전북 동화중학교를 방문하여 목공의 교육적 효과성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 목공수업이 대안교실 프로그램에 의미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막상 목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니 목공전문강사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일반 학교에서 목공 도구 및 재료를 놔두고 목공수업을 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래서 학교 인근 목공소를 물색하였고,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 교육에 관심을 보인 '우다다 목공소'에서 목공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목공 프로그램은 학생들 전원이 큰 흥미를 나타내었고 특히 2학년의 권00, 박00, 이00 학생은 L.T.I. 프로그램도 목공소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연필이 아닌 못과 망치를 들고 원가를 똑딱 똑딱 한다는 것이 재미있어 보였다. 목공강사의 이론적인 설명에도 한 명도 졸지 않고 듣고 있는 모습이 기특하고 신기했다. 매주 목요일 2~3시간 운영하였고 욕실 발판, 책상 발받침 등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생산되기도 하였다. 본교 근무 교사들이 주로 구매하였고 모아진 돈은 연말 독거노인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바람의 학교' 대안교육 프로그램

1. 바람의 학교의 기본 컨셉(수업 BASE)

위 클래스	대안교실(바람의 학교)
대부분 문제의 원인은 학생이고 개인의 문제로 귀결된다. 학생에 초점	학교 교육,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 즉, 구조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학교에 초점
상담 BASE	수업 BASE

2. 대안수업의 방향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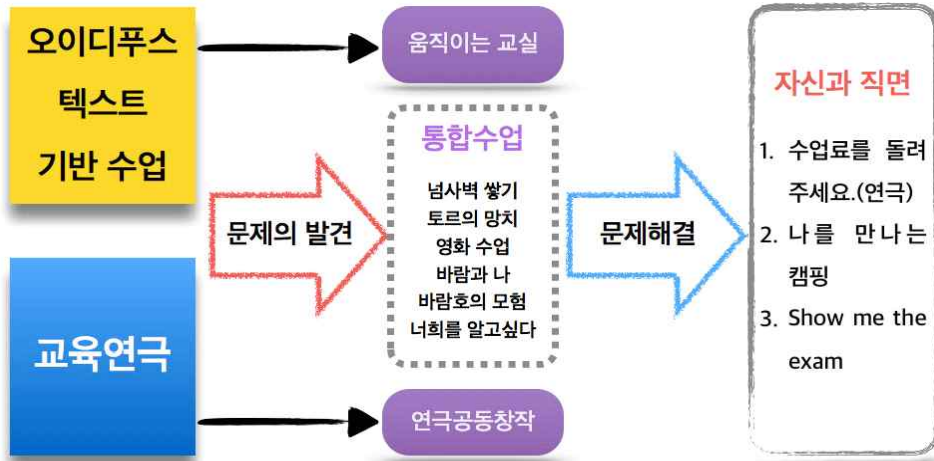
두가지 수업 방향을 설정하였다. 먼저 정체성 수업이다. 이를 위해 기본 텍스트를 ‘오이디푸스’로 정하였고, 움직이는 교실, 통합수업, 연극을 실시하였다.



Who am I?

탐구

정리



움직이는 교실이란?(목적)

첫째, 움직임은 교사는 학생들을 앞에서 떠나지오래 하기 위한 일종의 앞잡이 역할을 한다고 본다. 움직임이 교실에 들어갈 때 대부분의 학생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학생들 무척의, 제정신, 학습종사적인, 집중과 무관, 지나친 흥분 정도 교사나 보기에 학습과는 전혀 맞지 않는 습성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특성을 교실에 들어갈 교사는 참자 기 때문에 침착하고 있다. 이때 더 이상 정지된 교실에서 학생들의 무의미한 행동과 있을 수는 없다. 참는 자세와 행태도 할 것인가?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학생에 있어 있는 것을 움직이지 않는다. 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원리이다 (to be alert)



둘째, 움직이는 교실은 철저한 개별화(individual)와 학생들을 연합(unity)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대안교실 학생들이 학대에 대해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은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폭력이 일어난 자기도 불행의 자라 줄성적이고, 학습이나 동료로부터 소외된 아이들도 살상해 배운 폭력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다른 사람이 그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 이것은 파편적인 치료에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내재적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내부적 노력은 위해 공동체적, 협동적, 배려하는 마음, 친절함 등을 필요로 한다. (p.10)

생체, 동식물은 모든 학습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다. 태안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늘 언제나 그리고 계속해서 신리적 상상, 합리, 디폭스 프로그램 동안 제공할 수 없다. 이것 또한 상상할 수 없고 태안교를 프로그램 운영자들도 금방 지칠 수 있다. 그래서 지적인 기쁨을 느끼도록 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야 한다 (to be interested)

보내면, 움직이는 교실은 모든 교사가 참여하여 '내가 구상한 것'을 장과라 칭하고, 협조 등을 이끌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교실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소외된 수탁에 없고 인도에 대한 인도 교사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대한교실은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움직이는 교실 프로그램을 모든 교직원(행정실 포함)이 가진 재능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¹ 움직이는 교실 내면의 움직임은 학교의 구조와 문화의 관련이 있다. 대안교육은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닌, 교사와 학교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원칙적인 교실 - 오버피플스

오이디푸스를 몸으로 익히라!

오디디루스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오디디루스 new ver. 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이를 위해 오디디루스 이야기를 실존적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체험한다. 직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팀원들이 각 캐릭터를 경험하게 한다.

팀 조직

마케팅코스	A형	B형	C형	D형
오미다루스 코스	a	a	a	a
라이오스 코스	b	b	b	b
테이제서스 코스	c	c	c	c
이오거스톤 + 크레온 코스	d	d	d	d

코스별 스토리 라인

오이디푸스 : 출생의 비밀을 풀어라 →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라 → 오이디푸스 이동경로는?
→ 부어오른 밭 미션(왕 자리를 차지하라! 라이오스와 베퍼슈트 대결!)

라이오스 : 신학의 저주를 풀어라(마블론의 신학 해기-국궁-) → 오이디푸스의 빅대기를 피해라
→ 왕좌를 지켜라(오이디푸스와 버블슨트 대결)

→ 이오카스테인 크래켄은 대체 내게 왜 그러는거야? (버블슈머 대답)

이오키스택+크레온 : 신탁을 뒤 얹어라(카드 뒤집기) -> 오이디푸스를 알고 싶다.(Phone Bomb)

코스공용미션 : 캐릭터 표현하기, 태세를 정형화하, 깃털로 하나되기, 신탁을 숨겨라(신탁지도,암호를

A, B, C, D 팀 최종 미션 : 무린 어떤 관계일까?(a,b,c,d), 오이디푸스 new ver. 만들기



코스별 스토리 라인 미션번호

미션코스	미션	미션	미션	미션
오이디푸스 코스	승부제기를 물려라	노자니후스여 사냥장로	비중승의대원	제이타 포원
라미오스 코스	인악의 거꾸를 물려라	인제기를 물려라	비중승의대원	제이타 포원
테이메시아스 코스	아름다움을 물려라	연일은 물로로 물려라	비중승의대원	제이타 포원
이오카스데 코스	인악을 물려라	노자니후스물	비중승의대원	제이타 포원

코스별 이동 경로(장소)

미션코스	미션	미션	미션	미션
오이디푸스 코스	주 교실	학교 복도	복구장	연극실
라미오스 코스	작공장	운동장	복구장	연극실
테이메시아스 코스	학교 건물일구	독상	복구장	연극실
이오카스데 코스	도서관	주 교실	복구장	연극실

코스별 이동 경로(순서)

미션코스	1	2	3	4	5	6
오이디푸스 코스	주 교실	→	학교복도	연극실	교무실	복구장
라미오스 코스	연극실	교무실	작공장	운동장	→	복구장
테이메시아스 코스	학교 건물	교무실	독상	복구장	→	연극실
이오카스데 코스	도서관	→	연극실	복구장	교무실	주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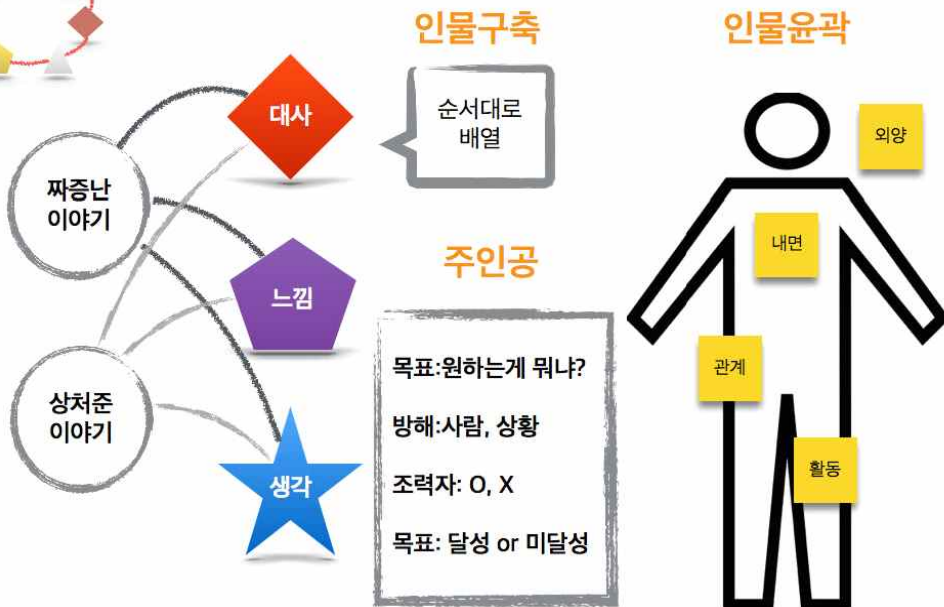
물려라 코스 -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 코스 세부 사항

시간	장소	담당교사	미션	미션 상세 내용 및 준비물
14:00-14:20	주 교실	이승주	각 팀에게 미션지 전달 및 움직이는 교실 설명	
14:20-14:50	주 교실	이승주	수수께끼를 물려라	스피드 퀴즈 형식의 오이디푸스 퀴즈
14:50-15:20	학교 복도	김정호	오이디푸스의 발견을	복도에 붙여져 있는 그리스 지도에 오이디푸스의 이동경로를 표시한다. 지도의 경로 표시가 맞게 완성되면 연 토는 다른 이동 코스를 안내한다.
15:20-16:00	연극실	구민정	연극	눈감고 여행하기 오이디푸스 계획서 연기 등
16:00-16:30	교무실	최유진	공동체 게임	킨볼로 하나되기, 태베를 점령하라
16:30-17:00	복구장	최유진	라이오스외 대결	왕좌를 지켜라! 앵커(버블슈트)
17:00-18:00	주 교실	이승주	오이디푸스왕 new ver. 만들기	A(a,b,c,d), B(a,b,c,d), C(a,b,c,d), D(a,b,c,d)
				킨볼, 신문지(16장), 비블슈트(8개), 천지(2장), 스피드 퀴즈용 스티커(1개),



연극 공동 창작 프로세스



다음으로 ‘바람이 부는 곳은 어디나 학교다.’라는 수업을 디자인 하였다. 이는 배움이라는 것이 학교 밖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래 내용은 학교 밖 프로젝트 수업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계획한 케이스이다.



바람의 학교 - 움직이는 교실 프로젝트

“바람따라 교실이 움직인다.”

가시리를 부탁해~
제주바다를 부탁해~

1/7페이지

바람의 학교 - 움직이는 교실 프로젝트

프로젝트 개요

목적

1. 자신의 재능과 비전을 직·간접적으로 발전하게 한다.
2.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한다.

방법

1. 아이들이 관심과 집중력이 있는 프로젝트
2.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3. 공학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흐름도

```

문제인식
  ↓
현장확인
  ↓
프로젝트
  ↓
구체화
  ↓
현장작업 1
  ↓
현장작업 2
  
```

프로젝트 팀 구성

1. 운영적 안목과 같은 팀 구성
2. 프로젝트 팀 명칭 “가시리를 부탁해”, “제주바다를 부탁해”
3.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프로젝트 팀 명도 역할(명)

1. 가시리, 개항대, 리서치 포럼이
2.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재능 나눔
3. 프로젝트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재능 나눔
4.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명도의 역할과 책임이 생길 것으로 판단

2/7페이지



바람의 학교 - 움직이는 교실 프로젝트

프로젝트 1 : 가시리를 부탁해-

가시리 마을 공동체를 세상에 널리 알리며 가시리가 영원히 시간을 더할 수 있도록 돕기

가시리의 수호신(안티테루스)의 마을 안내 표지판

마을의 그늘진 지역을 밝히기 위하여 가시리를 직접 방문한 계획이다. 혹은 재능을 지닌 마을에서 마을 살리기 마을 표지판을 제작한다. 제작과정을 영상으로 남긴다.

가시리 버스정류장 리모델링(마을공동체)을 위한 문화공간 만들기

제주 시에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시리에 대중교통의 핵심인 버스정류장을 리모델링

3/7페이지

바람의 학교 - 움직이는 교실 프로젝트

프로젝트 2 : 제주바다를 부탁해-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제주바다를 부탁해-

바지킴이 멘토(관람객 멘토)

1. 제주가 좋아 여행가 기인 멘토 찾기
2. 바지킴이 활동 - 재능을 가진 멘토 찾기
3. 제주바다 환경 문제(바지킴이)를 다룬다
4. 제주바다의 내가 지켜줄게, 제주바다를 부탁해 두 가지 멘토가 혹은 멘토로 멘토를 맡아 - 한 가지 추가
5. 버스정류장 - 리모델링(가시리) - 30분 정도 - 2-3국 언어 등 공연 구성(가시리)를 부탁해 등과 연계
6. 제주바다를 부탁해 - 당일 당일

3. 바람의 학교 운영 중 발생한 어려운 점들과 느낀 점(에피소드 형식으로)

‘바람의 학교’는 한달간만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교에서 3월 한달동안 진행하는 학생파악, 상담 등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상담선생님과 학생이 상담한 문서기록 및 상담 과정 비디오를 보는 것이었다. 바람의 학교 선생님들과 제작진은 개별 인터뷰, 상담을 토대로 학생들을 파악했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다. 교사들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학생들을 파악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것은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인터뷰, 상담할 때의 생각과 행동양식이 공동체 내에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바람의 학교가 시작되면서 개인 상담 및 인터뷰만 가지고 판단했던 학생의 실체가 공동체 내에서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수시로 드러났고 이것은 실제 바람의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학교는 항상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당연해서 간과하기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바람의 학교 입학식을 진행할 때는 망치로 한대 맞는 기분이었다. 당연히 바람의 학교 규칙에 모두 동의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던 입학절차는 흡연과 핸드폰 문제로 한 없이 길어지고 말았다. 이 때 비디오로만 보던 학생들이 집단에서는 어떻게 바뀔 수 있고, 평범한 인터뷰가 아닌 자신의 실익과 맞닥뜨리는 상황에서는 행동과 생각,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감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기본적 가치관, 생활습관, 경향성, 관성이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있고 이것들을 풀어내지 않고서는 교육적인 접근 특히 수업으로 학생들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부터 호준이와 헤림이 소영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 이 학생들과의 씨름은 교사들의 에너지를 방전시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학생들의 흡연문제와 핸드폰 중독 문제는 심각했다. 당연히 모든 수업들은 잘 진행될리가 없었다. 난 이 때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우선순위를 따져보니 바람의 학교는 학생들의 변화에 초점 맞추어져 있고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가장 최우선순위였다. 또한 학생들의 생활태도문제가 그대로 드러나서 학부모들이나 한국사회에 던져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래서 첫 주까지는 모든 것을 참기로 했다.

교육적 변화를 기대하며 계속 참았다. 모든 선생님들의 수업 시간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고, 하기 싫어하는 것을 달래가며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 수업을 하였다. 학생들은 또 토론이냐며, 왜 계속 ‘왜?’라고 물어보냐며 따졌다. 심각하게 고민하기 싫어했고, 자신들 앞에 닥쳐진 ‘연극 대본’ 외우는데 정신이 없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도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학생들의 결론은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 그것이 곧 자유이다. 그래서 바람의 학교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자유가 없는 학교다. 이런 학교는 정말 싫고 떠나고 싶었다. 이런 수업을

하는 내 자신이 한심했고, 또 생각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너희들이 하고싶은대로 하는 것이 자유야?’라는 나의 고함소리와 함께 수업은 끝이났다.

이 수업 이전에 ‘오이디푸스의 수수께끼’라는 수업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수업 역시 토론수업이었는데,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찌르고 테베를 떠날 하등의 이유가 없다가 토론의 결론이었고 나아가서 학생들은 이 사건을 모든 책임은 오이디푸스의 아버지 라이오스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래 교사들이 오이디푸스를 기본 텍스트로 정한 이유는, 오이디푸스가 모든 잘못을 스스로에게 묻고 현실에 직면하여 책임있는 판단과 행동을 한 것처럼 학생들도 자신의 환경, 삶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 직면하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라이오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오이디푸스처럼 자신의 운명의 굴레를 수궁하려하지 않았고, 스스로에게서 잘못이나 책임을 발견하려고 하기 보다는 쉽게 남탓을 해버리고, 현실을 회피하려고 했다. 이것은 곧 본인인 학교라는 현실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학교와 부모 나아가서 이 사회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교사로서 ‘이런 학생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라라고 말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교사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마다 한 방에 모여 앉아서 속을 끓여야 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놓고 깊이 고민했다. 교사들의 공유된 마음은 학생들을 향한 측은한 마음(측은지심=인=사랑)이었다. 우리는 이 측은한 마음 곧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육적 철학, 교육적 질서 등 학생들에게 벽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없는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가기로 했다.

2주차로 접어들면서 결국 호준이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였다. 너무나도 강경한 모습에 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모든 선생님들이 소집되었고 호준이와 교사들은 교무실에서 만났다. 호준이는 어떤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고 그냥 집에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리고 난 앞으로도 이렇게 살것이고 꿈도 없고 결혼도 안할 것이라고 선포하듯이 말했다.³ 이때 구민정 선생님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우리는 네가 결혼도 안하고 직업도 없이 살고 싶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우리는 네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견디면서 우리를 믿고 따라와 준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텐데 왜 자꾸 우리의 손을 뿌리치는 거야~” 구민정 선생님은 감정에 북받쳐서 하염없이 울었다. 이 때 난 ‘한 사람의 영혼을 전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냥 같이 울어야 한다. 이런 아이들을 붙잡고 함께 울어야 한

3 사실 호준이는 낮과 밤이 뒤바뀌어서 낮에는 늘 잠을 자고 밤에는 컴퓨터와 핸드폰에 빠져있었다. 이러한 생활적 문제가 바람의 학교에서 그대로 나타나면서 적응하기 힘들어했다. 선생님들도 호준이의 문제 때문에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호준이는 구민정 선생님의 울음에 주춤했고, 집으로 가는 것을 잠시 보류했다.

그날 밤 학생자치회의를 하면서 호준이는 반장으로 뽑혔다. 그리고 다시는 집에 간다고 하지 않았다. 물론 수업시간에 잠을 이겨내지 못했고 팀프로젝트와 연극에서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았지만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교사들의 진실된 마음과 학생들간의 관계성이 호준이를 떠나지 못하게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호준이가 반장에 뽑히게 된 이유는 친구들이 호준이가 반장이 되면 바람의 학교를 떠날 수 없을 것이라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호준이의 문제는 대부분의 바람의 학교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문제였다. 뭔가 멋있는 미래를 그리고 싶은데, 현재 자신의 삶은 처참히 무너져있고 무엇부터 고쳐야 할지 모르겠고, 안다고 하더라도 용기가 없거나 하기 싫은 상태에 빠져있는 모습들이 학생들의 일반적인 상태였다. 방송에는 모든 것이 담기지 않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학생들간의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생활태도의 문제는 매일 매일 반복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호준이가 그랬듯이 마냥 힘들기만 할 것 같았던 다른 학생들도 성장하고 있고 교사의 말을 듣고 있고 변화, 성장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우리들은 좋은 관계 형성에 비교적 성공했다.

제주 학생들 앞에서 연극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우리는 곧 바로 캠프를 떠났다. 캠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쓴소리’였다. 캠프를 떠나기 전 교사들과 제작진은 그동안 학생들이 보여준 모습들과 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각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쓴소리를 만들었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16명의 학생들을 한명씩 방으로 불렀다. 그리고곤 아픈 부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을 교사들이 집어내기 시작했다. 상처가 낫기 위해선 상처를 드러내야 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상처를 드러내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상처가 드러나면서 함께 울었다. 학생들은 교사를 신뢰했고, 교사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바람의 학교 한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졸업식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면 좀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보름만 더 하면 좋겠다.’는 말을 제작진에게 했더니 제작진 대부분이 그냥 웃으셨다. 나도 함께 웃고 말았지만 교사, 멘토, 제작진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이 다 빠진 상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바람의 학교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교사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학생들의 생활을 담당했던 멘토들 그리고 SBS ‘바람의 학교’ 제작진들 모두 바람의 학교 교육 과정 구석구석에 관여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 교육은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동네 형, 누나, 아버지, 아줌마, 공공기관, 마을이장 할 것 없이 모두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임상적으로, 한달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교육을 한다면 학습을 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또한 생활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마치 축구선

수들이 전술훈련을 하기전에 몸을 만드는 운동을 하듯이 말이다. 이런 단순한 교육적 과정을 토대로 대안교육과정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처음 바람의 학교에 참여하기로 마음 먹었을때는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에 교육의 진정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려고 했었다. 거대한 기대감과 자부심으로 바람의 학교 교육에 임했었다. 그런데 솔직히 바람의 학교 학생들이 얼마만큼 변했고, 성장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이다. 그리고 바람의 학교 방송을 통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얼마만큼 바뀔지에 대해서도 미지수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람의 학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다.

웅상고등학교 대안교실 프로그램의 전환

앞서 간단히 언급했던 것처럼 웅상고등학교 대안교실과 바람의 학교를 기획 및 운영하면서 범했던 가장 큰 실수는 아이들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웅상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직면했었다.

1. 대안교실 참여 학생 선정의 어려움 : 교육과정이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다보니 학부모, 담임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대안교실 참여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왜냐하면 대안교실에 참여하는 순간 일반교육과정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2. 움직이는 교실의 질적 저하 : 모든 선생님들을 한시간씩 대안교육에 동참토록 하려다 보니 모든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는 대안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했고, 따라서 발전적인 움직이는 교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3. L.T.I. 현장 멘토 선생님들의 어려움 : L.T.I. 프로그램은 멘토 선생님들의 삶의 현장으로 아이들이 찾아가서 배움을 얻는 교육이다 보니, 현장 멘토 선생님들의 부담감이 상당히 심했다. 그래서 일주일에 1~2회 교육으로 다운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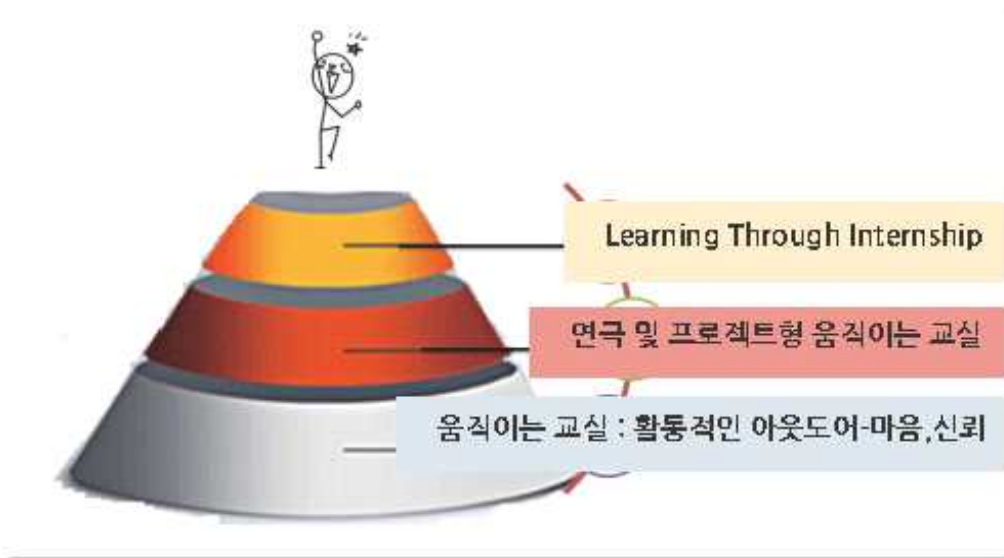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점들에 근거해서 2016학년도부터 대안 교육 프로그램의 전환을 시도했다.

1. 움직이는 교실 -> 프로젝트형 움직이는 교실(교외형) : 바람의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 수업을 응용해서 움직이는 교실 프로젝트를 3종류로 구성하고 각각의 프로젝트를 외부 강사 선생님들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고정형 반일제 프로그램 -> 선택형 프로그램 : 웅상고 대안교실은 반일제 유형이었는데, 학생들이 모든 오후 정규수업을 빠지게 되는 구조였다. 이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요일별로 선택해서 대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예비 대안교실 : 이는 1월 정도에 1~2학년 잠재적 대안교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예비 대안교실을 열어서 웅상고 대안교실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미리 아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대안교실 사전 기획이 가능해 진다.
4. 맞춤형 과외 프로그램 : 대안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중 일부는 정규교육과정에 미련을 못 버릴 수 있다. 일반교실로 돌아가면 가장 좋으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과외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제안

대안교실 운영 프로세스

1. 프로그램 기획 전제 : 학생들의 요구파악
2. 기본적인 대안교실 아이들의 특징 : 무뎀진 감정, 탓하기
3. 일반적인 프로세스 :
 - 1) 몸열기-마음열기
 - 2) 자기알기1 : 연극(최대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내면 알기)
 - 3) 자기알기2 : 프로젝트형 움직이는 교실
(최대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외적 특성 알기)
 - 4) L.T.I. : 배움의 영역 확장을 통한 삶과 마주하기(직면)



대안교실 운영의 원리 *Fun fUn fuN*

1. Fun : Facilitator

대안교실 담당자는 ‘교사’ 보다는 ‘선생’일 필요가 있다. 교사는 말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대안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일반교실에서 완벽한 부적응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아이들에게 대안교실 담당자가 또다시 ‘교사’가 될 필요가 없다. ‘선생’ 즉 먼저 난 자로서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 먼저 난자의 주된 특징은 경험이 많고 인내심이 많으며 배려심이 깊다. 왜 선생으로서 대안교실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할까?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서로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이다. 교사로서 위치를 정해버리면 아이들은 ‘함께’ 그리고 ‘소통’이라는 관계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2. fUn : Unity

대안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은 지극히 개인적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성으로부터 시작하는 좋지 않은 관성, 습관은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결국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 필자가 바람의 학교와 웅상고 대안교실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의 영혼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심으로 대하기’와 ‘좋은 친구 관계’였다. Unity를 통해서 대안교실 아이들은 ‘좋은 친구 관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안교실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은 ‘함께하기’로 디자인 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안교실이 왜 상담베이스가 아닌 수업베이스여야 하는 이유와도 닿아 있다.

3. fuN : Net-work

배움은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바람(바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배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내에서만 대안교실 프로그램은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대안교실 운영비를 외부활동 한 두개로 일소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net-work은 지속성과 의미-가치가 함께 만날때 그리고 여기에 학교 밖의 새로움이 만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대안교실 담당자가 학교 밖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연계해서 대안교실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웅상고등학교 역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었다. 하지만 연차가 쌓일수록 외부기관과의 교육적 연계는 쉬워지고 빨라졌다. L.T.I.를 시작한 메트스쿨의 담당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다. L.T.I. 외부 연계에 대해서 질문했던 ‘나’로서는 절망적인 답변(시간이 지나면 L.T.I. 연계는 쉬워지게 됩니다. 인프라가 쌓이게 되니까요.)이었지만 그 말이 정답인것 같다.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의 소통과 공유

- 2015년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운영사례1 : 대전지역 -



김 은 형

한밭고등학교 교사

대전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추억...



연구 주제 지역적 장점과 특색을 살린 교과 융합형 대안교실 프로그램 개발

1. **지역적 장점과 특색** : 대전은 교통의 요지라는 지역적 장점이 있고, 이는 곧 업무에 지친 대안교실 담당자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의 상시적 실행이나 대안교실 로드스쿨링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에 있어 매우 적합하다.
2. **교과 융합형** : 일상의 총합이 학교 교육 교과 내용이다. 이는 곧 우리가 누리고 영위하고자 하는 삶의 양태나 즐거움 등 모든 것이 교과 수업과 연계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춤추고 노래하는 마음으로 교과융합형 대안교실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가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모임으로 즐거워진 만큼, 대안교실 학생들 또한 행복해지고 즐거워졌다.

목적

- 대안교육의 전문성 기반 강화 및 교육 매뉴얼 개발
- 대안 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 체험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개발로 자기주도적 미래교육 방법론 개발
- 청소년 자신의 진로와도 직접 연계되는 로드스쿨링체험 수업 개발
- 삶과 문화적 생산자로서의 청소년의 정체성 재규정
- 학교 내 대안교실 패러다임의 전환 계기 제공

1. **교육 매뉴얼 개발** : 교사 혼자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안교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의 아이디어와 스킬을 나누는 정보교환의 장 마련
2. **교사의 전문성 신장** : 대안교실 담당교사들은 대안교실 운영자체만으로도 교사로서의 새로운 전문성 강화
3. **학교 내 대안교실 패러다임 전환** : 대안교실은 학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율을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으나,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동기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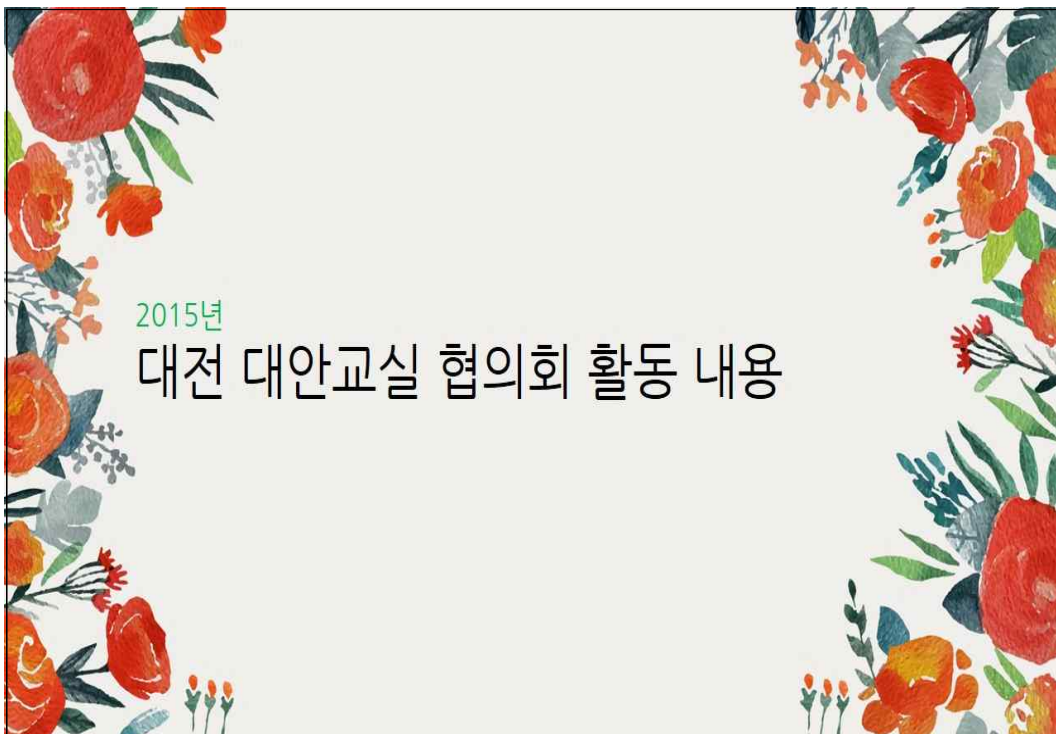
기대 효과

- 대안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 융합형 체험활동과 통합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 교통의 중심지인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로드스쿨링 기반 교과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성 신장 교사 워크숍과 맞춤형 연수 진행
- 대상자 맞춤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활성화 및 일반화 노력
- 중점과제를 정해 체계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추진되어 나가도록 운영시스템 연구
- 평가나 실적위주가 아닌 대안교실의 본래 교육 목표가 목적이 되는 프로그램 진행 촉진 및 일반화
- 대안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방법 개발로 전인적 교육 범주 확장
- 문화체험과 캠프운영을 바탕으로 학교 내 대안교실의 교육적 의미와 가치 부여
- 매개자로서의 담당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동기유발 촉진

1. **통합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 대안교실과 담당교과 수업 개발을 동시에 해야 하는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감을 덜어주고,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다 교과 내용 포함 융합교육프로그램 개발
2. **로드스쿨링** : 학습자들이 길에서 직접 새로운 지식을 생산한다는 로드스쿨링의 교육적 개념에 중점을 두어 자기주도적 체험교육 프로그램 설계



조별 / play			
1조 : 전양구 중학교	2조 : 김영숙 중학교	3조 : 김현옥 고등학교	4조 : 이건용 고등학교
토론을 통한 대안교실 교육프로그램 개발 - 토론을 통한 커뮤니케 이션 개발연구	문화체험을 활용한 대안교실 교육프로그램 개발 - 뮤지컬 감상법을 통한 문화체험학습 맥락 연구	체험수업 매뉴얼 개발 을 통한 대안교실 교육프로그램 개발 - 상설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연구	인문학 스터디를 통한 대안교실 교육프로그램 개발 - 대안교실에서의 독서교 육 활용 연구



일	일정	연구 활동 및 내용
5	22(금)	◆1차 담당자 협의회 - 대안교육 정책 방향 주제 강의 (교육부 이용욱 학생복지 사무관) - 대안교실 대상자별 프로그램 개발스터디 - 대안교실 프로그램 강사를 정보교환 - 6월 워크숍 주제 및 일정 협의
6	19(금)~20(토)	◆대전지역 대안교실 담당자 워크숍 19일 - 대안교육 선진지 탐방(산청 간디고) - 대안교육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주제 강의 20일 - 대안교육 선진지 탐방(창원 태봉고) - 창원 역사문화 탐방
7	17(금)	◆2차 담당자 협의회 - 뇌과학 특강 - 대안교실 운영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
9	10.11 (목.금)	◆프로그램 시범 수업 및 세미나
10	20(화)	◆3차 담당자 협의회
11	10(화)	◆대전지역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보고회 - 전체 성과 보고 - 조별 우수사례 발표 (2개)
12	20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30개 학교

5월

1차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철학 공유
- 대안교육에 대한 서로의 생각 나누기
- 학교 별 대안교실 학생 구성 의견 나누기



7월

2차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 대안교육의 현주소 특강 (여태전 남해 상주 중 교장선생님)
- 대안교육 우수사례 학교 탐방 (남해여자중 학교 대안교실)
- 문화체험(남해 보리암 일원)
- 대안교육 주제토론 (대안교실 운영방향 및 프로그램 맥락구성)



시간	내용	강사 및 진행
3:30	등록	
3:30~4:30	대안교실 프로그램 강사풀 정보교환	이건용
4:30~6:00	대안교실 대상자별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김은형
6:00~7:00	저녁식사	
7:00~8:30	대안교육 정책 방향 주제 강의	이용욱 사무관
8:30~9:00	6월 워크숍 주제 및 일정 협의	

9 월

대안 교육 국제 포럼



10월

3차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교사 동아리 연합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날짜	시간	프로그램	
10월 23일 (금)	09:00 ~ 10:00	교육청 ~ 워크숍 장소 이동 (황토마을 펜션)	
		a반	b반
	10:00 ~ 11:00	대안프로그램 기획의 기초 쿠키스토리(김은형) - 황토실	향기 양초 테라피 (신지영)-세미나실
	11:00 ~ 12:00	향기 양초 테라피 (신지영)- 황토실	대안프로그램 기획의 기초 쿠키스토리 (김은형) - 세미나실
	12:00 ~ 15:00	점심식사 및 설천봉 곤돌라 답사	
	15:00 ~ 16:30	푸드 테라피 장미꽃 떡케익 만들기 (김진희) - 세미나실	팀별 프로젝트 런치 테이블 기획 (김은형) - 황토실
	16:30 ~ 18:00	팀별 프로젝트 런치 테이블 기획 (김은형) - 황토실	푸드 테라피 장미꽃 떡케익 만들기 (김진희) - 세미나실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0:00	음악 테라피	대안교실 담당자들에게 바치는 가을 음악회
	20:00 ~ 22:00	그룹별 자유토론 : 학교내 대안교실 현안 및 발전 방향	

날짜	시간	프로그램	
10월 24일 (토)	09:00 ~ 10:30	플라워 테라피 (이달순)- 야외 교실	팀별 프로젝트 요리테라피 (김숙경) - 세미나실
	10:30 ~ 12:00	팀별 프로젝트 요리테라피 (김숙경) - 세미나실	플라워 테라피 (이달순)- 야외교실
	12:00 ~ 13:30	팀별 프로젝트 내가 만든 요리와 함께하는 테이블 테라피 (김은형) 야외 정자	
	13:30 ~ 15:00	문화 체험 수업 기획 (이건용) - 무주구천동 설천봉 답사	
	15:00 ~ 16:00	대전이동	



성과

- 교사 상호간 즐거움과 행복 만끽!
- 대안교실 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위안과 위로의 시간 마련
- 프로그램 교류 및 강사풀 교류
- 참가자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교류 및 환류
- 대안교육 기반 철학에 대한 성찰
- 학교 내 대안교실 패러다임의 전환 계기
- 대안교육의 전문성 기반 강화
- 학교 내 대안교육 메뉴얼 공유
- 대안 교육 교사 전문성 신장
- 체험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프로그램 체험 및 공유
- 삶과 문화적 생산자로서의 청소년의 정체성 규정
- 교육에 대한 새로운 사유 기반 마련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의 소통과 공유

- 2015년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운영사례2 : 경북지역 -



양 미 경

김천여자중학교 교사







대안교실 운영 교사 협의회란?

협의회 역할

-  시·도별 대안교실 담당교원 워크숍 진행
-  대안교실 모범사례 및 강사 인력 공유
-  학습동아리 교재 제작, 학습동아리 운영 등

지원 내용

-  지역 단위 워크숍 비용
-  학습 교재 제작 비용
-  협의회 회의 및 운영 경비 등

학습동아리란?

대안교실 교원 간의 대안교실 운영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활동 내용

-  대안교실 모범사례 공유
-  대안교실 운영 노하우 공유
-  강사 등 전문가 인력pool 공유
-  대안교실 학습 교재 공동개발, 연합체험학습 추진 등



대안교실 운영 교사 경북협의회 조직

경북협의회

회장 양미경 총무 이은정

꿈사랑연구회

회장: 박수호
총무: 곽세린

숨마쿰라우데

회장: 이은정
총무: 권기환

대안교실 운영 교사 경북협의회 조직표

지역	학교명	직	성명	지역	학교명	직	성명
김천	김천여중	교사	양미경	경산	경산여상고	교사	김상보
문경	점촌중	상담교사	이은정	영덕	강구정보고	교사	이장운
포항	포항영도중	상담교사	손소영	청도	모계고	상담교사	권속희
경주	신라고	교감	박수호	고령	고령고	상담사	홍선애
안동	영문고	교사	홍성광	성주	명안정보고	교사	서용수
구미	도계고	교사	이웅석	철곡	순심고	교사	최이환
영주	영광중	교사	황재일	예천	대창중	상담교사	조규식
상주	함창중	교사	권기환				



경북협의회 운영 사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경북협의회 운영의 문제점

문제점

 경상북도 각 시를 대표하는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교사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데, 거리상으로 가깝지 않은 지리적 여건과 과다한 업무로 인해 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음

 한정된 예산 지원으로 인해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교사들이 다양하고 유용한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알찬 연수를 준비하기 어려운 면이 많음

경북협의회 운영의 개선 방향

개선 방향

 지역 단위 워크숍 비용 지원이 다양한 연수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추진되었으면 함

 대안교실 운영 교사 수업 시수 인정 및 우수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 수립이 필요함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랑으로 두드림(Do dream)할 수 있도록 자기연찬을 위해 힘쓰는 봉사적 자세가 요구됨



경북협의회 행복바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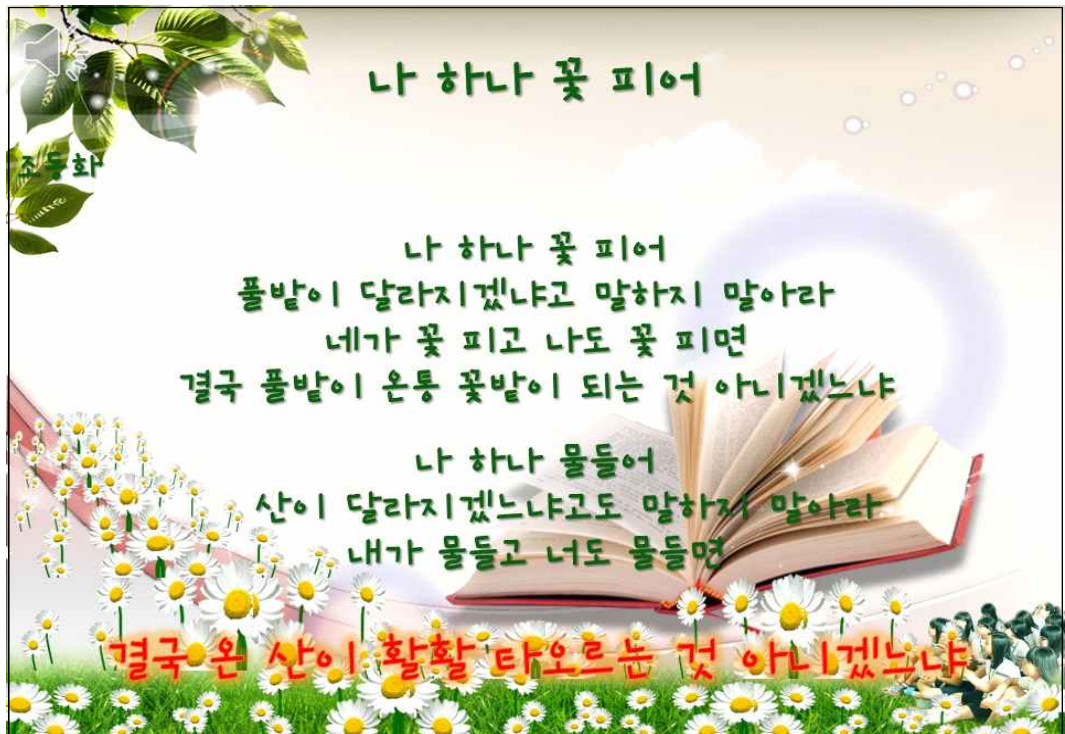


학교 내 대안교실의 교사상

‘멀티플라이어’

아이가 지닌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선생님

A decorative border at the bottom of the slide features a row of green grass with several white daisies and small orange flowers. The background of the slide is a light blue gradient with sparkling star effects and a large, soft blue oval shape behind the main text.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를 위한 힐링 톡!톡!

- 통합예술심리치료(실습) -



김 상 만

심힐링센터 소장

통합예술심리치료

김 상 만

심힐링센터 소장, 전)전주대 예술치료학과 외래교수

1. 통합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120분)

1) 프로그램 목표

- 가. 통합예술심리치료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본다.
- 나. 워크숍 경험 전과 경험 과정, 그리고 경험 이후의 변화를 느끼고 표현해 본다.
- 다. 통합예술심리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저변확대에 기여한다.

2) 준비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열린 마음, 편한 복장, 오일파스텔 24색, A4 개인당 1장, 8절지 개인당 1장, 명찰, 테이프, 물티슈 테이블당 1개

3) 프로그램 세부 내용

가. 워밍업단계(Warming-Up) 25분

- 가벼운 인사하기(머리-어깨-가슴-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몸과 마음 체크하기(Here & Now)/현재 감정을 표현하기
- 집단 규칙 확인하기(행복한 곳이라 상상하기, 자유롭게 표현하기&패스, 비밀보장)

- 의사소통 기술(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 모아관계의 원리(Smiling, Touching, Hugging, 신뢰감, 안전감, 친밀감)
- 4B : 4가지 B(Brakes, Breathing, Brains, Body)
 - ① 브레이크-에너지를 손으로 잡는다. 가슴 앞에서 수평으로 점점 세게 민다.
 - ② 숨쉬기-손을 천천히 올려서 머리 위로 올리고 깊은 복식호흡을 한다.(7/11)
 - ③ 뇌-머리에 손을 올리고 이완한다. 그리고 자기 암시를 통해 안정을 취한다.
 - ④ 몸-손으로 중앙에서 밖으로 털어낸 후 가슴을 감싸고 몸을 이완한다.
- 7M : 7가지 움직임(Movement)
 - ① 몸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비행기**라고 상상하고 자유롭게 움직인다.
 - ② 큰 탑에 매달린 **중**의 줄을 수직으로 힘껏 바닥까지 잡아당긴다.
 - ③ 힘차게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 ④ 하늘 높이 큰 **방패연**이 있다고 상상하고 선채로 줄은 천천히 잡아당긴다.
 - ⑤ **취객**이 주유소 앞 풍선처럼 몸과 발을 주춤주춤 움직인다.
 - ⑥ 몸이 **코브라**라고 상상하고 천천히 척추를 올리고 왼쪽 오른쪽을 바라본다.
 - ⑦ 이마에 **유니콘**의 뿔이 있다고 상상하고 딱딱구리처럼 가상의 벽에 짚는다.
- 별칭 짓기 : 다른 사람이 불러주면 아주 행복할 것 같은 이름(예, 행복이, 아롱이 등)

현재 차고 있는 명찰 뒷면에 세 글자 기준으로 편하게 짓는다.

나. 실행단계(Exercise) 80분

- 마음을 대변하는 세 가지 색을 고르고 왜 그 색깔을 골랐는지 돌아가면서 설명한다.
- 눈을 감고 잠시 편하게 있다가 떠오르는 이미지를 낙서하듯이 편하게 그린다.
- 돌아가면서 그림을 설명하고, “아 그렇구나”로 지지적 공감을 한다.
- 상대가 말을 할 때는 진지하게 경청하고, 피드백은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한다.
- 모든 색을 사용해서 선물그림1,2 오른쪽 방향의 사람이 그려주고 설명한다.

다. 마무리단계(Cooling Down) 15분

- 느낌점 다양하게 표현해 본다.
- 힘이 나는 기운은 몸에 담아가고 힘들거나 나쁜 기운은 공중에 버린다.

- 서로 인사하기(머리-어깨-가슴-배 “수고하셨습니다.”)

2. 통합예술심리치료의 이해

1) 통합예술심리치료란 무엇인가?

통합예술심리치료란 심리치료의 목표와 그 효과를 얻기 위해 미술을 비롯한 음악, 무용/동작, 사이코드라마 등 예술 매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현대 심리치료의 한 형태이다. 각종 예술매체를 통합적으로 활용한 심신치료활동이면서 심신의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하는 “치료 예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예술심리치료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가 않다. 예술이 갖고 있는 광의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심리치료와의 관계성을 논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술 그 자체를 하나의 범주에 담기도 어렵지만 미술, 음악, 춤, 드라마 등 각 개별적 요소들 또한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 명칭을 달리하는 심리치료법이 무려 4백 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론 체계적인 이론과 구체적인 기법을 잘 구비하고 있는 주요한 치료이론은 10여 개로 압축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술심리치료가 심리치료로서 이론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긍정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 만큼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해 갈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통합예술심리치료는 예술치료, 표현예술치료, 통합적 예술치료, 창의적 예술치료, 창의적 통합예술치료 등의 용어로 사용된다.

2) 통합예술심리치료의 목적

심리치료로서 통합예술심리치료 목적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 문제를 지닌 사람을 돕는 전문적인 활동을 말한다. 심리치료는 “공적인 국가보건제도의 규칙과 범위 내에서, 학문적인 기초가 있고 경험적으로 검증된 병리이론과 치료이

론에 근거해서 효과적인 절차와 방법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는 진단이 내려진 후 공식화된 치료목표 하에 공인된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심리치료자에 의해 실시되며, 윤리적인 규범과 규칙에 따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으로 생기는 질병과 장애를 지닌 환자를 치료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된다. 심리치료는 병원과 같은 임상장면에서 비교적 심각한 심리적 문제, 즉 심리장애나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을 치료하는 활동을 지칭하는 반면, 상담은 학교나 기업과 같은 비임상장면에서 비교적 심각성이 경미한 심리적 문제나 적응 과제를 돕는 활동을 지칭한다. 따라서 다른 상담활동과 구별하여 심리적 문제나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는 전문적인 상담활동은 “심리상담”이라고 지칭한다. 예술심리치료는 치료와 심리상담 두 가지 차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심리치료보다는 예술심리치유 또는 예술심리상담이란 표현을 권장하고 있다.

3) 통합예술심리치료의 의의

- (1) **창작과정으로서 예술심리치료는 의의를 갖는다.**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에서의 창작과정은 그 자체가 치유과정이 될 수 있다.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분위기 내에서 내담자가 자유롭게 새로운 재료나 도구를 탐색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전에 놀이하는 과정을 제공해줌으로써 몸과 마음을 이완하여 자신의 진정한 창조성을 경험토록 돕는다. 이러한 과정은 정신분석의 자유연상과 같은 효과로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에 접근하는 것을 도와 억압되어 있는 내면을 표현하고 간혀 있던 정신세계를 환기시키도록 돕는다. 이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세계가 외부세계와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줌으로 개인에게 신선한 바람을 쐬 듯한 경험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과정의 치유성만으로 예술치료가 정의된다면 모든 예술가들은 심리·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치료과정은 반드시 주관적인 창작과정을 심리학이라는 객관적 맥락으로 이해하고 창작과정이 치료과정으로 전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치료자가 필요하다.

(2) **예술매체로서 예술치료가 갖는 의의가 있다.** 예술은 반드시 매체와 재료 또는 도구를 통해서만 존재하게 된다. 가령 미술치료에서 사람들은 나타난 이미지를 통하여 사고하며 심상이 창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매체와 재료들이 필요하다. 무용/동작치료 역시 음악이나 그들의 몸 자체가 매체 또는 도구가 되어 심상을 표현한다. 이 때 매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서적, 지적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반응들은 각 사람의 내면세계의 투사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술치료 시 점토를 던지는 활동은 잠재된 공격성을 불러일으켜 어떤 사람에게는 막힌 것을 뚫는 듯 한 시원함을 줄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감히 할 수 없는 금지된 일로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예술매체는 언어 이전의 단계로 내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말로 내면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접근한다. 인간은 직접적인 신체감각차원에서 상징적인 차원을 거쳐 자유로운 언어구사가 가능한 언어적인 차원을 향하여 발달하게 되는데 무용·동작과 음악은 신체감각차원을, 미술과 놀이는 상징적 차원으로 돌아가 언어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예술치료의 치료성은 개인의 의견을 자유로이 말할 수 없는 체제 내의 대상에게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예술창작품(결과물)의 의식화로서의 예술치료는 의의를 갖는다.** 결과물의 의식화를 통하여 치료를 돕는 측면은 창작품이 시각적으로 남는 미술치료에 주로 해당될 것이다. 자유로운 창작과정을 통하여 무의식에 접근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무의식의 내용들을 매체를 이용하여 풀어낸 뒤 필요한 것은 나온 결과물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불확실하던 내면을 외면화하는 상징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담자는 또 다른 자기상이라 볼 수 있는, 창작품이라는 확고한 증거 앞에서 내면을 통찰하고 확인하며 알 수 없던 긴장을 해소하여 심리적인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 예술치료에서의 결과물은 한 개인의 고유한 정신세계에 근거하여 탄생한 자기표현으로서 예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평가되어지는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또한 결과물은 명료하게 알 수 없는 내담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재료로서 치료자나 다른 집단은 창작의 결과를 통해 내담자 또는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

4) 통합예술심리치료의 효과

다양한 예술매체를 통한 접근의 필요성은 다원적인 인간정신 세계의 탐구와, 고유한 개체인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주로 생의 초기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에 있다. 대부분의 현대 심리학자들이 개인의 인성과 정신, 심리적인 문제가 생의 초기단계인 첫 3-5년에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이 예술치료의 효율성을 확고하게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적인 문제가 생의 초기단계, 즉 유아기의 경험은 언어차원의 경험이 아니고 언어이전의 차원(감각운동, 리듬, 색상, 이미지 등)이고 이러한 비언어적, 언어이전 형태로 만들어진 심리적인 문제를 언어만을 통한 심리치료로 접근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예술치료에서 사용하는 감각운동, 리듬, 색상, 이미지 등의 매체는 생의 초기의 경험과의 상호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들에 접근하고 치료할 수 있다. 물론 언어, 미술, 음악, 놀이, 동작, 무용, 연극 중 하나의 매체만으로도 이러한 이슈에 도달할 수가 있지만 그 효율성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실용성 때문에 하나의 장르에 머물지 않고 매체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예술치료 분야의 전반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예술심리치료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해결 받고자 하는 문제와 그와 관련된 갈등이나 증상이 감소하고 바람직한 대안행동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체적인 건강의 증진, 긍정적 정서·사고·행동반응의 증가 등 친밀성과 생산성의 증가 효과가 있다.
- 2) 정서적 불균형이 감소되고 정서적 안정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 3)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수용 및 개방하며 경험과 일치 및 통합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동기와 행동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 4) 긍정적 관점에서 현상이나 의미를 바라보는 효과가 있다.
- 5) 행동의 긍정적 동기, 경험의 잠재적 가치나 의미에 대한 인식 및 표현행동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 6) 현상 및 문제, 원인, 대처방안에 대한 알아차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 7) 정신적 가치나 의미를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는 행동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 8) 개인적 욕구나 가치, 사회적 요구나 가치에 순응하는 행동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 9) 무의식적인 충동이나 강요에서 벗어나 상황적 요구에 따라 욕구성취를 지연 및 승화시키려는 동기와 행동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 10)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 자기주장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5) 통합예술심리치료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기본적으로 예술치료는 치료사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 심리치료로서 통합예술 심리치료는 예술 매체와 심리치료 이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전제로 한다. 치료사는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적 자질로 예술치료이론에 대한 이해, 치료방법에 대한 숙달, 치료경험 및 훈련, 그리고 인간적 자질로 치료적 도구로서의 치료사, 본보기로서의 치료사라고 한다. 인간적 자질의 내용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 원만한 성격과 인내심, 삶에 대한 열정과 부단한 노력이라고 한다. 개인적 자질과 관련하여 인간에 대한 선의와 관심, 자신에 대한 각성, 용기, 창조적 태도, 끈기, 유머 감각을 말하기도 한다. 또 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과 조건으로 1)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 2) 어떤 유형의 내담자가 와도 응대할 준비, 3) 치료사 자신의 성격, 장단점, 정신건강에 대한 정확한 이해, 4) 자신에 대해 과장, 자랑, 숨기지 않아야 하고, 5)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6)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 진심어린 애정, 인간존중 7) 원만한 성격과 인내심, 때론 단호한 자세, 8)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이라고 한다.

아래 제시된 참고문헌을 통해 다양한 예술심리치료 사례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진령. (2011). **집단상담의 실제**. 서울:학지사
- _____ (2012). **집단상담과 치료**. 서울:학지사
- _____ (2012). **집단과정과 기술**. 서울:학지사
- 권석만. (2012).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서울:학지사
- _____ (201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학지사
- 김상만. (2004). **예술심리치료를 적용한 이야기심리학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효과연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석사논문
- 김선현. (2010). **집단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이담
- 김수동, 이우경 . (2004). **사이코드라마의 이론과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정일. (2004). **사이코드라마**. 서울: 살림
- 김진숙. (2001). **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형태. (2005).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 류분순. (2000). **무용 동작치료학**. 서울: 학지사
- _____ (2004). **마음치료의 열쇠 춤•동작치료**. 서울: 학지사
- 이근매. (2008).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이근매, 최인혁. (2008). **매체경험을 통한 미술치료의 실제**. 서울: 스그마프레스
- 이은진. (2008). **미술치료**. 서울: 동문사
- 이은진, 장선철. (2008). **미술치료**. 서울: 동문사
- 이은진, 최애나, 임용자. (2008). **예술심리치료의 이해**. 서울: 창지사
- 이현길, 하만석. (2011). **미술치료 해석도구**. 서울: 행복플러스
- 이형득 외. (2003). **집단상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후경 외. (2013). **집단정신치료**. 서울: 하나의학사

임용자. (2004). **표현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문음사

전정민. (2010). **통합적 미술치료 프로그램 및 평가**. 서울: 이담

정광조, 이근매, 최애나, 원상화. (2009). **예술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정여주. (2001). **상호작용놀이를 통한 집단상담(이론과 실제)**. 학지사

_____ (2003). **미술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정현주, 김갑숙, 전종국. (2006).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_____ (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주리아. (2010) **미술치료학**. 서울: 학지사

최선남 외(2007). **집단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최헌진. (2010). **사이코드라마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 번역본

Ann Arge Natha, Suzanne Mirviss. (2011). 박희석, 류정미, 윤명희 역. **창조적 예술 치료기법**. 서울: 학지사

Adam Blatner. (2005). **사이코드라마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Fran J. Levy. (2012). 고경순, 김나영, 남희경, 이상명, 최희아 역. **무용동작치료 치유의 예술**. 서울: 시그마프레스

Joan Chodorow. (2003). **춤·동작 치료와 심층심리학**. 서울: 물병자리

Judith, Rubin. (2006). 김진숙 역. **미술치료학 개론**. 서울: 학지사

Judith. Rubin. (2008). 김진숙 역. **예술로서의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Gisela Schmeer.(2011). 정여주 외 역. **정신분석적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Kenneth Aigen. (2011). 이경숙, 류리 역. **음악중심 음악치료**. 서울: 학지사

Stephanie L. Brooke. (2010). 류분순 역. **창의적 예술치료 매뉴얼**. 서울: 하나의학사.

Suzanne Darley & Wende Heath. (2012). 이근매, 조용태, 차명호 역. **예술심리치료 전문가를 위한 표현예술치료활동**. 서울: 시그마프레스

Susan I. Buchalter. (2011). **미술치료 기법과 적용**. 서울: 시그마프레스

Susan Hadley. (2008). **정신역동 음악치료**. 서울: 학지사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이해

- 학생 무기력의 원인과 해결책 -



박 경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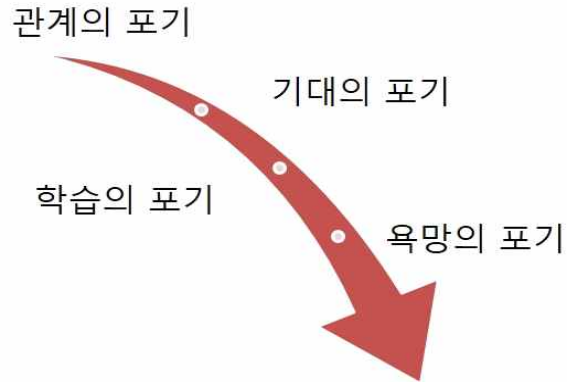
샘교육복지연구소 소장

대안교실을 통한 활력과 의미의 회복

박경현
(샘교육복지연구소장)

1. 대안교실의 필요성

1. 학업포기, 무기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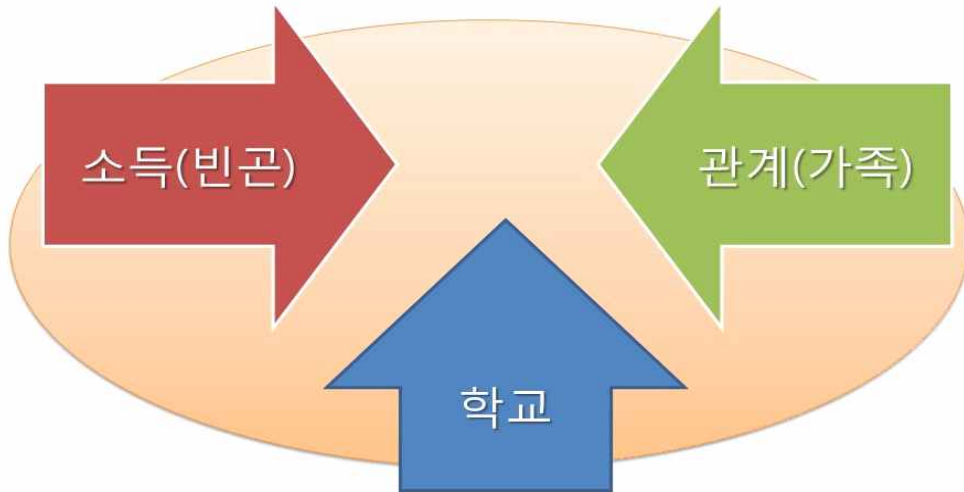


반드시 단선적이지 않으며, 얽히고 설키면서 무기력에 빠져들게 된다.

오래되고 전면적인 욕구의 결핍과 억압



2. 무기력의 원인



Sara S. McLanahan(1997), <Parent Absence or Poverty: Which matters more?>

- 소득은 '한 부모 가정의 아이와 일반 가정 아이의 교육성취에 약 50%차이를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 두 집단의 교육성취가 달라지는 나머지 원인은 '부모(특히 아버지)의 감독'을 덜 받고, 자주 이사해서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 아버지의 역할, 지역사회 속에서 얻고 누리는 '사회적 자본'
- 7개의 개별적 연구들 중 하나를 제외하면 모두 '부모가 자녀 곁에 없으면 아이의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 부모가 곁에 없었던 아이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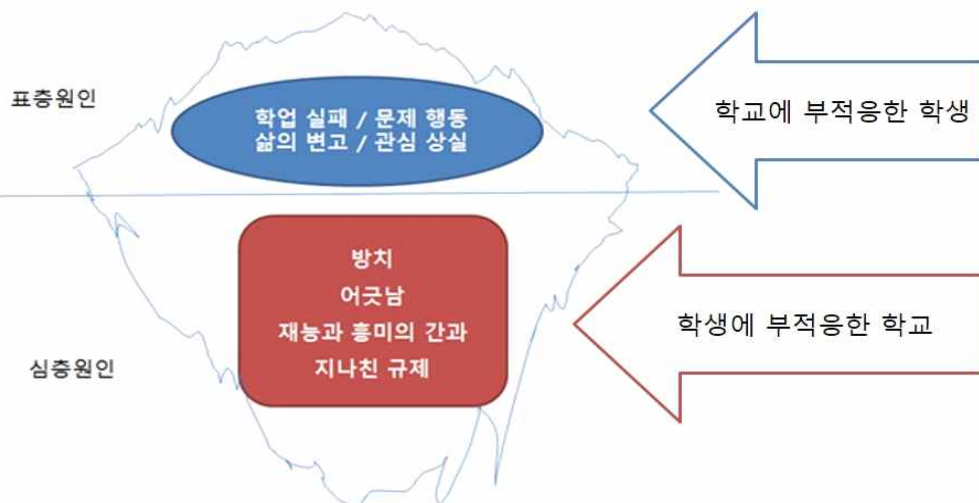
부모의 존재

Greg J. Duncan 외(1997), <Income Effects Across the Life Span>

- 가족의 경제적 조건은 청소년기보다 아이의 아동기 초기와 중기에 능력과 성과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듯하다. => 빈곤은 영유아기부터 아동기까지 중요한 성장의 시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족구조보다 가족 소득이 아이의 능력과 성과를 예측하는 데 더 뛰어난 요인이다.
- 가정환경(학습기회 제공,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온정, 집의 물리적인 환경)은 가족 소득이 어째서 인지적 성과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소득은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교육의 질, 자녀와의 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소득

“학교와 학생의 애정이 식었다” - 정락결혼



♣ 엘리엇 워셔 외, <넘나들며 배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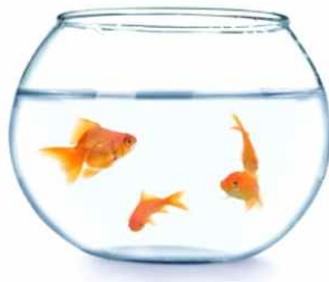
3. 그동안의 대안

- 교사가 설정하는 목표

- 1) 자기주도적 학습 :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되도록
뒤쳐진 학습에 보충지도
- 2) 진로지도 :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자기 시간과 삶을 관리하는 아이
- 3) 상담 : 학생에 대한 집중 상담, 정신과 치료
- 4) 정규 교육과정 외의 복합 프로그램 : 대안교실, 숙려
제, 위프로젝트(위스쿨), 위탁대안교육

더 고려해야 할 것

- 학생 자신의 흥미와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 (존중)
- 한 아이가 달라지려면 가정과 학교 전체(교사 포함)도 바뀌어야 한다.



2. 몇 가지 원칙과 접근방법

1.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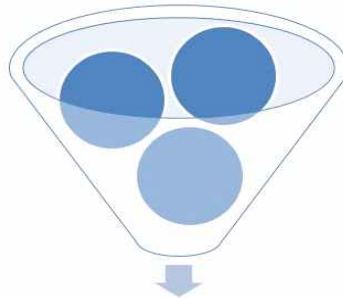
- 훈육과의 조화
 - 1) 합의되고 인지된 규칙: 알려야 한다.
 - 2) 단호하고 일관된 적용: 예외가 발생할 규칙은 무력하고 나쁘다.
 - 3) 갈등의 해결
 - fact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가, 사실을 알게 된 방법은?)
 - effect (결과; 그로 인해 어떤 상황이 발생했나, 어떤 감정을 느꼈나)
 - why (관련자들의 본 의도는 무엇인가?)
 - 다른 방법이 있을까?
 - 4) 공동체의 회복(일시적 분리 치료 후 어떻게 공동체에 통합할 것인가)

2. Dual focus



3. 실현가능한 기획

- 학생의 흥미와 관심 반영했나?
- 교사의 의지, 동원가능한 자원(강사 등) 조사
- 기간, 이동거리, 예산, 학교 교육과정 계획 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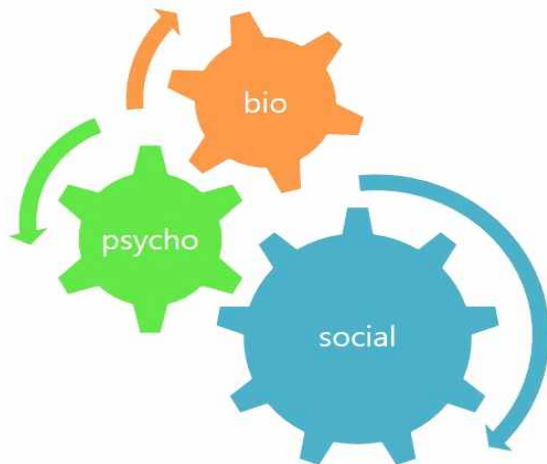
프로그램 사례들

상담	• 개별상담 • 집단상담
진로지도	• 자격증 교실 • 직업 체험(마을 어르신 옷 수선 봉사)
예술 활동	• 바느질, 도예, 그림교실 • 난타, 합창, 기타 동아리
기타	• 농사, 목공, 요리 • 봉사활동, 여행, 캠프

4. 달성축하 파티의 계획

• 목표

- 1) **과정목표**(실적, 결과)
 - 참여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행동적 표현으로
- 2) **성과목표**(변화)
 - 의도하는 교육적 변화



5. 존중의 공동체

- 학생(학급)공동체, 교사 공동체
- 감정, 사회성 존중(social emotional learning)
- 회복적 서클(restorative circle)
- 문예체와 놀이를 활용
- 담당교사의 신뢰와 헌신
- 담당자를 지원하는 교사공동체



3. 대안교실이란 '대안'

루비 페인, <계층이동의 사다리> p96

- 감정은행을 닫은 채로 삶을 유지시키는 힘
 - 1) 현재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 2) 매력적인 비전이나 목표가 추진력이 된다.
 - 3) 재능이나 기술 덕분에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된다.
 - 4) 배우자나 조언자의 도움으로 정서적 안정을 찾아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온 마을 생태계'가 필요한 이유



담당 교사의 중요성

1차적 면담자, 프로그램 전담자

학생들의 역할 모델

중재자, 연결자, 옹호자, 대변자

한계점과 과제

- 학교 내 또 다른 학교의 모순과 갈등 내재
 - 다른 규칙, 일정, 내용
- 대안학교의 여러 층위, 모양 개발해야
 - 교정시설, 치료시설, 병원학교, 상담학교, 다문화 학교, 재능개발학교, 직업학교, 다세대 학교 등
 -
- 학교 교육과정과 평가, 입시, 나아가 노동환경,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개선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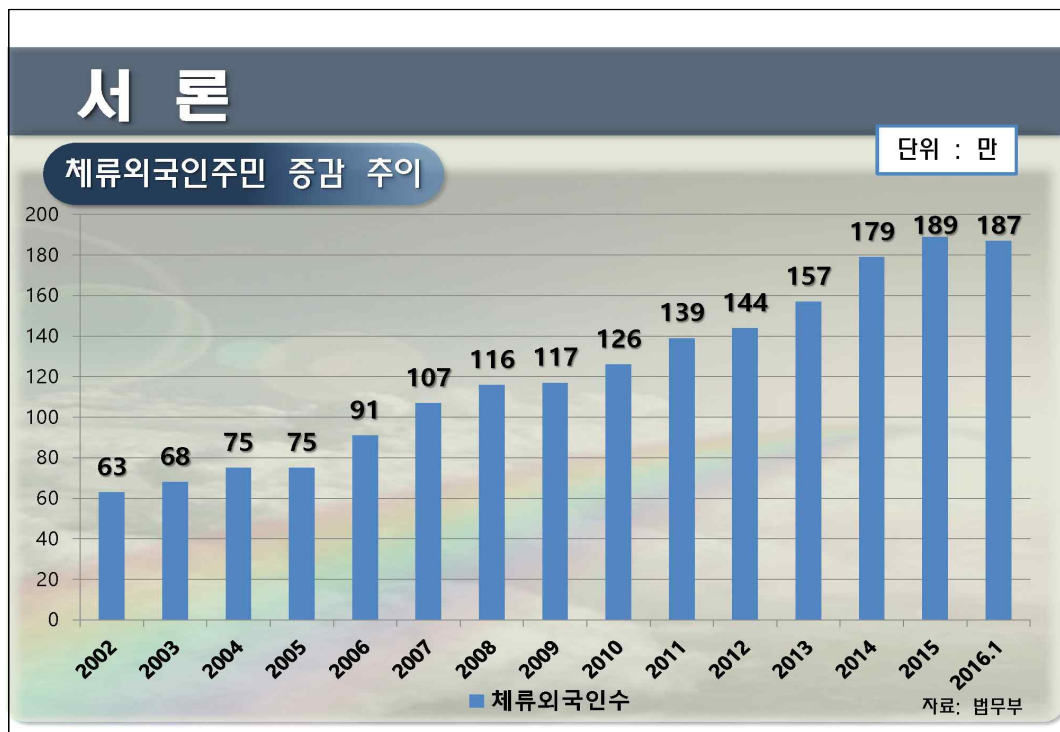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이해

- 다문화 학생의 특성과 학교적응 -



오 성 배

동아대학교 교수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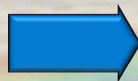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 전환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이 방향 전환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결혼이민자 초기 정착’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자녀 지원’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다문화 2세들이 취업과 군입대 문제에 맞닥뜨릴 만큼 성장했지만 우리 사회에 녹아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국민일보, 2016년 3월 9일자 기사).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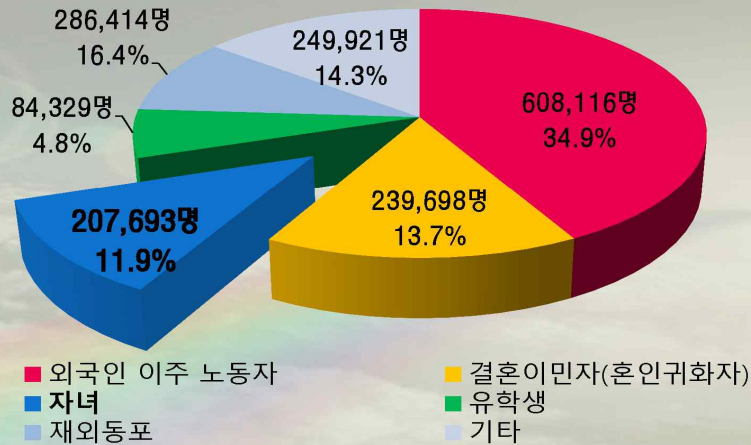
정부 다문화 관련 정책의 방향 전환

결혼이민자
초기 정착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서론



자료: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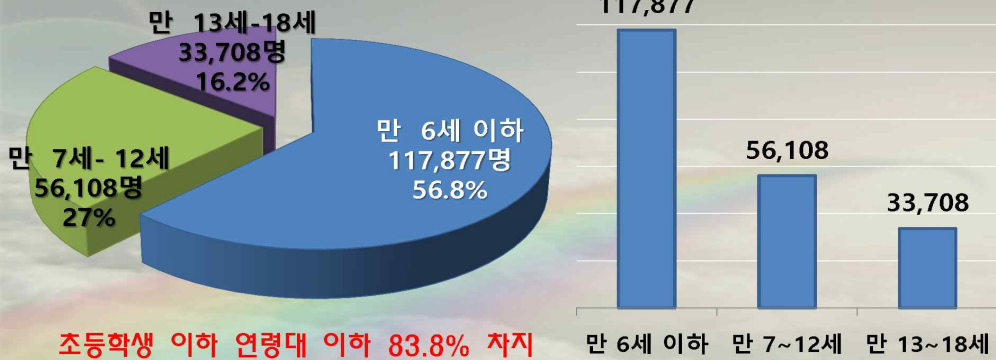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0세-18세)



자료: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서론

단위 : 명



자료: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서론

다문화가정 출생아 수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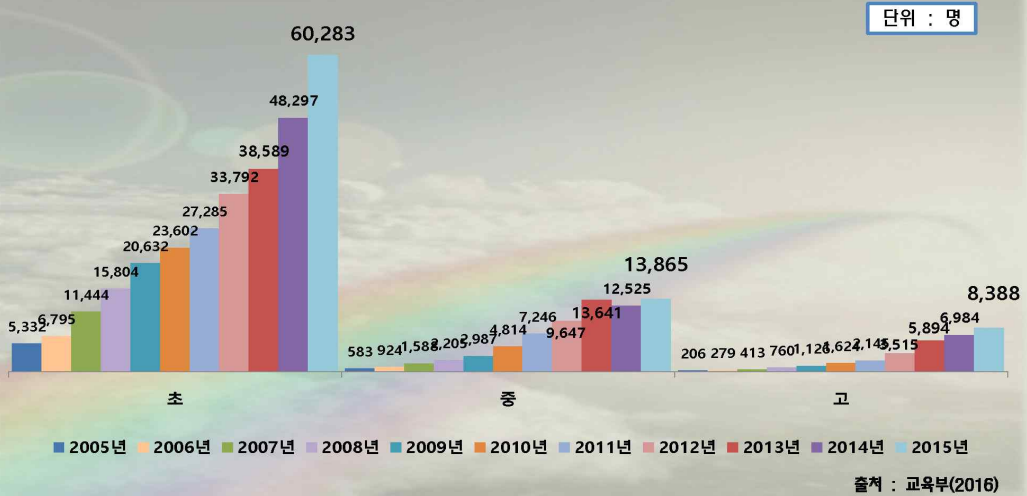
단위: 명



전체 가정 출생아 수 증가율(3.3%) <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 증가율(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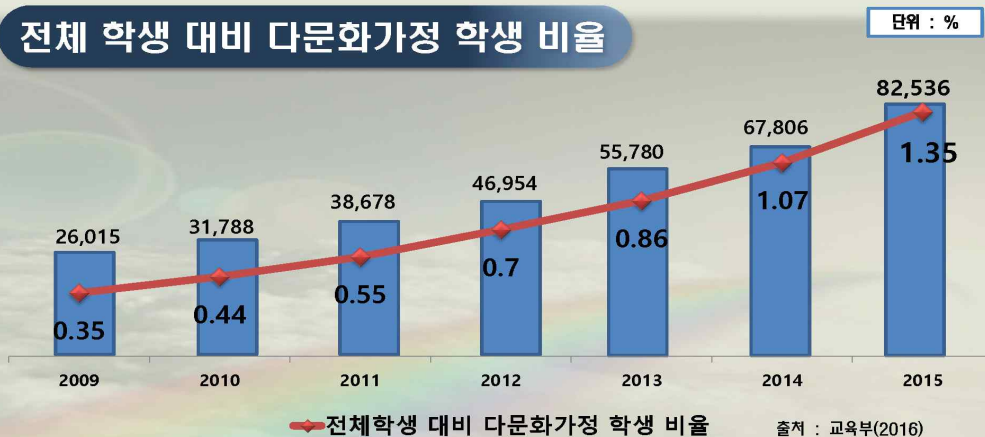
서론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가



서론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 전체 학생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자의 비율은 약 1% 정도임.
- 2015년 전체 초·중·고 학생 가운데 다문화학생 비율 2% 넘어섬.
- 전체학생은 매년 20만명씩 감소, 다문화가정 학생은 1만명 이상 증가

서론

울산 다문화가정 학생 수 전망

단위 : 명



➢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

2012년 0.42% > 2017년 1.33% > 2022년 3.4% > 2027년 5.6% > 2032년 7.4%.

서론

교육기회의 이론적 관점 : Rawls vs Nozick

구분	Rawls	Nozick
철학	정의(正義)론	자유주의
성장 환경	출생에 의한 우연한 결과	노력에 따른 차이
배분 방식	역진적 배분 (보상적 평등주의)	동일한 배분
교육 관	완전한 공교육	완전한 사교육

서론

교육기회의 의미

보상적 평등관의 정당성

능력과 수완이 우연하게 천부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소외된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나 혜택을 제공
출발점을 같게 만들어줌

일정 수준에 다 같이
도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교육의 기회균등

다문화가정 유형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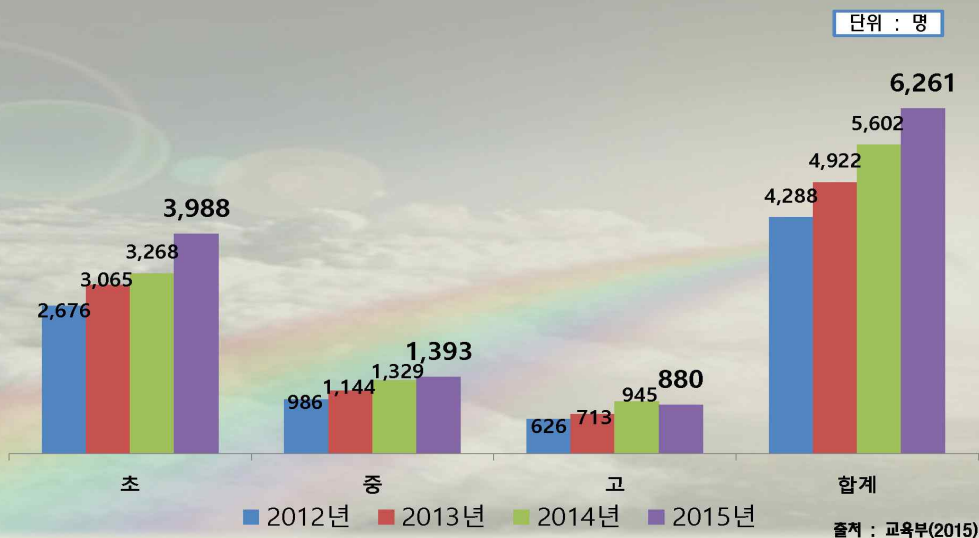
가정 유형		자녀 유형
국제결혼 가정	조혼가정	한국 출신 母 + 외국 출신 父의 자녀
		한국 출신 父 + 외국 출신 母의 자녀
	이혼가정	<u>외국 출신 母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u>
	재혼가정	전처 소생의 한국출신 자녀
<u>외국 출생 후 한국에 입국(귀화)한 자녀</u> <u>(‘중도입국 자녀’)</u>		
외국인 가정		<u>외국 출생 자녀</u>
		한국 출생 자녀(무국적 자녀)
북한이탈 주민 가정		새터민 자녀
		비보호 자녀
난민 가정		<u>난민 가정 자녀</u>

다문화교육 허브 기관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산하 기관
- 교육부가 지정한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중추기관
- 역할 :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지원
 -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 수행
 - 다문화교육사업 관리(컨설팅) 및 지원 : 우수 사례, 학부모 교육 등
 -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 다문화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구축

중도입국 학생 현황



중도입국 자녀의 특성

언어 및 문화 부적응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처한 상황이 다름

출생국의 언어와 문화 체득

다른 국가에서 출생, 성장 도중에 한국으로 입국

문화적 혼란(의식주, 한국문화)

중도입국 자녀의 특성

낯선 가족의 형성

출생국 부모와 떨어져 있는 기간: 3 - 7년

별거 기간 소통의 단절, 부모에 대한 원망과 자존감 상실

입국 후 새로운 가정 구성원과 관계 정립

새로운 가정 구성원과 갈등(특히, 양부)

중도입국 자녀의 특성

자아정체성 혼란

자신의 의지보다는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에 입국 후 국적 변경

가정의 해체, 별거, 재결합, 타국으로의 이주 경험

심리, 정서적 불안과 위기 경험

진로 관련 도움이 필요한 시기

중도입국 자녀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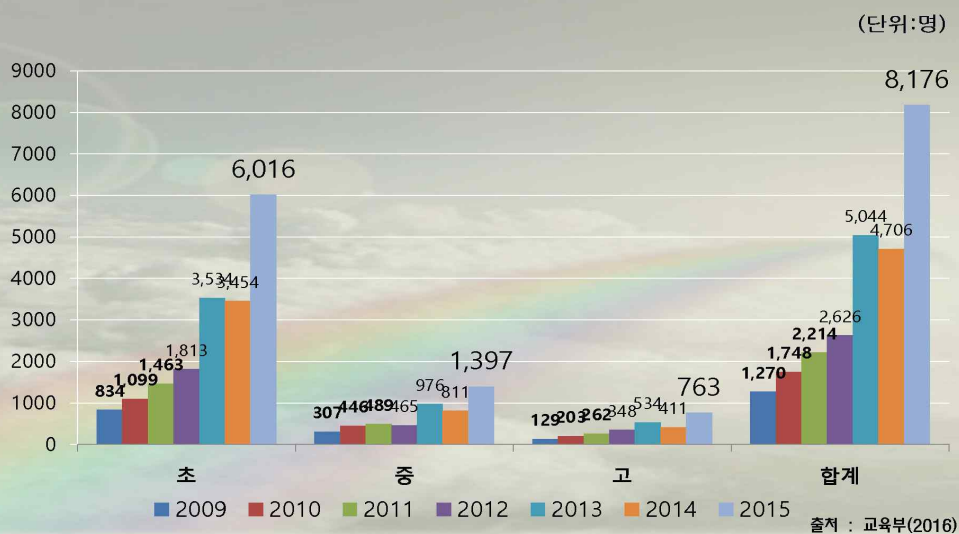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사례

제천 폴리텍 다솜학교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직업 대안학교'

- 교육 목표 : 자주, 자조, 자립능력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 대상 : 다문화가정 학생(주 대상은 중도입국 청소년)
- 교육 내용 : 보통교과, 전문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한국어 수준별 학습 운영
- 학교특색사업 : 한국어 배움터 '다래교실' 운영, 학생상담프로그램 운영
- 중점주진사업
 -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소양과 소질 함양
 - 기술을 연마하여 전문 직업능력 갖추
 - 한국어교육을 통한 의사표현능력 향상
 - 공동생활, 문화체험, 사회적응력 증진

외국인 가정 자녀 재학 현황



외국인 가정 자녀 교육 지원 사례

서울재한몽골학교

- ❑ 1999년 12월 설립(중학교 단계까지 설립)
- ❑ 몽골 교육부 인가
- ❑ 한국에 정주 가능성, 몽골로 귀국 가능성 모두 감안한 교육과정 운영
- ❑ 교육과정 : 한국어, 몽골어, 보통교과, IT, 태권도 등
- ❑ 수준별 한국어 수업 진행
- ❑ 자연관찰학습, 현장견학, 체험학습 병행
- ❑ 부모의 90% 출신국 몽골, 대부분 3D업종에 종사

예비학교의 목적

- ◆ 다문화가정 자녀 가운데 한국어 미숙, 학교문화 부적응 등으로 정규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 등을 대상
- ◆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초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 제공
- ◆ 이들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지원

예비학교의 대상과 역할

대상

- ◆ 외국출생 중도입국 자녀
- ◆ 외국인 가정 자녀
- ◆ 한국어 부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다문화 가정 자녀

역할

-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집중교육을 통한 원적학교 또는 원적 학급 복귀

예비학교의 운영

예비학급

- 한국어능력 진단> KSL 과정
- 한국문화의 이해
- 모국어 및 문화의 이해

일반학급

- 수강 가능한 교과목 수강
- 예체능 교과 우선 수강



- 예비학교에 예비학급을 설치하여 한국어, 한국문화 집중 교육
- 예체능 등 통합교육 가능 교과는 일반학급에서 교육

➢ **찾아가는 예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 교육부 기본 계획**

다문화가정 유형의 다양화

난민 신청 및 인정 현황



5년새 난민 신청자 수 급증 (2010년 423명 → 2015년 5711명)

출처 : 법무부(2016)

다문화가정 유형의 다양화

다문화 가정 유형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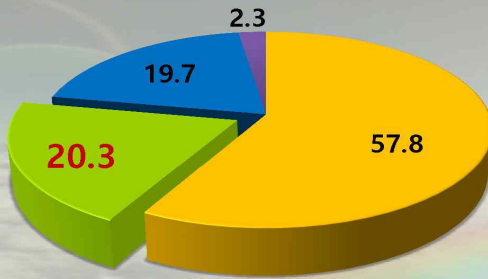


유형별 특성과 요구의 다양화
교육적 접근 방식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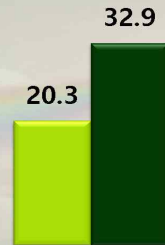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실태

15~25세 다문화가족 자녀 활동 현황

단위 : %



■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
■ 중도입국



니트족(NEET) 비율

■ 학업(학생) ■ 하는 일 없음
■ 일(취업자) ■ 직업훈련

자료: 2012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문제 극복의 가능성

유아기 언어 문화적응 교육 충실히 이루어진 경우 학업적응 원활

부모의 적극적인 자녀교육 참여 : '아버지 학교' 등의 부모교육

자녀대상 양질 특별 프로그램 지속 참여

담당(담임) 교사의 열정과 체계적 노력

인프라 구축 : 지역 다문화교육센터, 예비학교, 중점학교, 전문교원 양성, 연계협력체제 구축 등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 태도

사회 구성원의 시각

- '단일민족국가'라는 문화적 배타성 : 소외와 차별
- 비백인종 혼혈인과 동남아시아계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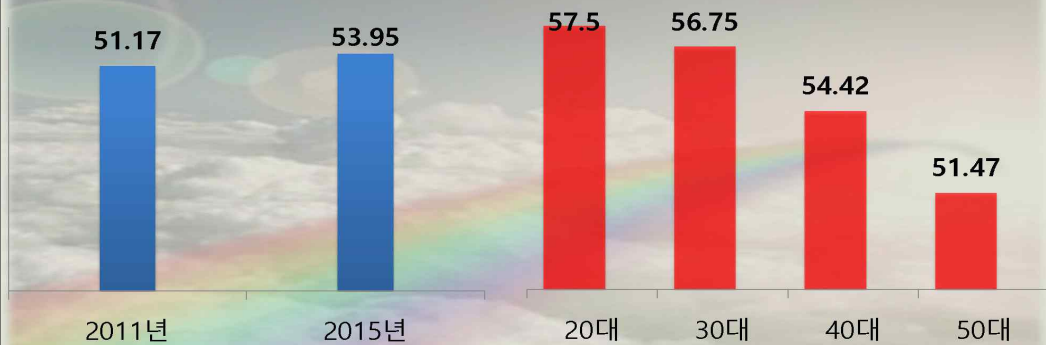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 의식

- 표면적(이성적) 의식 vs 잠재적(정서적) 의식
- 성인/고학력의 편견 : 사회주도층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 태도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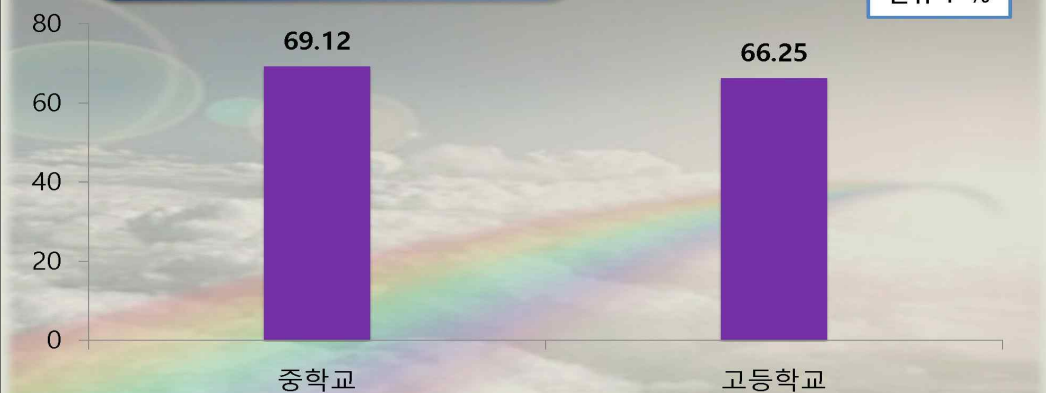


자료: 2015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여성가족부)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 태도

학교급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

단위 : %



자료: 2015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여성가족부)

다문화교육의 방향

다문화 통합의 핵심 열쇠 “다문화 교육”

새로운 이주자
언어·문화 부적응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격차

사회의 배타적 시각

다문화 교육

언어와 문화 적응

교육격차 해소

다문화 수용 태도 증진

다문화교육의 방향

다문화 통합의 핵심 요소는 “교육”

다문화 교육

-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사회구성원들이 이해
- 소수 집단과 그 자녀에 대한 배려
- 다문화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모든 교육

결론



제언

다문화 사회 교사의 역할

본인과 주변 교사의 다문화 문제의식 제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실태 면밀한 확인과 지원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부모(아버지) 적극 참여 유도

비다문화가정 자녀의 다문화 수용태도 증진 노력

다문화교육 연수 참여와 지역다문화교육센터 등 인프라 적극 활용

교사간 다문화교육 연구와 실천 네트워크 형성

다문화 전문 교원 도전



감 사 합 니 다.

오성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
책임교수
ohsb@dau.ac.kr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사례 1

-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대구동부중 행복교실 -



김 혜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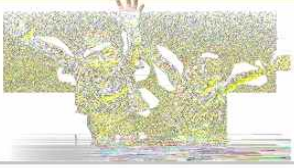
대구동부중학교 교사




치유 중점 모형 대안교실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대구동부중 행복교실

대구동부중학교 교사 김혜영





아름다운 시 한편!

내가 만약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를
막을 수 있다면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내가 만약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 주고
기진맥진해서 떨어지는 울새 한 마리를
다시 둥지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내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 에밀리 디킨슨 -





대구동부중학교 [1980년 개교]



대구동부중학교 주변 여건



1.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2. 학급수 : 35학급
3. 학생수 : 997명
4. 교원수 : 58명
5. 주요 특기 사항
 - 학생간 심한 빈부 격차
 - : 중산층과 저소득층 경계 지역
 - 인근 학교 대비 교육복지 대상 학생이 많은 편(저소득, 결손가정, 맞벌이)
 -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
 - 학생들의 심한 학업 스트레스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운영 배경 1

학교의 고민!

- 우울, 무기력, 가출, 등교거부 등 정서적, 가정적 위기학생 지도의 어려움에 봉착함
- 기존 생활지도 방식 적용의 한계에 직면!

학교의 당면과제

- 공부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흥미를 어떻게 학교 내부로 끌어들이길 것인가?
- 만성적 무기력 상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 중도탈락 및 일탈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운영 배경 2

‘치유 중점 모형’ 대안교실 운영 방안 모색

예산확보 전략

2015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교 공모에 응모 → 선정 → 운영비 **800**만원 지원 받음

프로그램 운영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기획 운영

- 대상자 선정 : **2015. 4월~5월**, 이후는 수시 접수
- 제1차 대안교실 : **2015. 5월~7월**
- 제2차 대안교실 : **2015. 9월~12월**

사전 운영 준비



‘치유 중점 모형’ 대안교실 운영 목적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 편성표

주간 프로그램 편성표

구분	월	화	수	목	금
아침 자습	또래멘토링 (학습코칭)	또래멘토링 (학습코칭)	또래멘토링 (학습코칭)	또래멘토링 (학습코칭)	또래멘토링 (학습코칭)
1교시	강점 강화와 셀프리더십 (1차)	바리스타 자격반 (1차)	심리극 연극치료 (1차)	동기강화 집담상담 (1,2차)	음악치료 (1,2차)
2교시	마음챙김 명상 (2차)	흙배이킹 (2차)	예술치료 (2차)		
3교시	1. 정규 교육과정 참여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2. 일부 해당 학생(대상별 필요 시 운영) - 전문기관 연계 활동 참여(심리치료, 병원치료 등) - 심리검사, 개인상담 등 - 위기학생 부모역량강화 학부모 코칭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운영 전략

대안교실 프로그램 운영 전략

1. 학생, 학부모가 모두 참가를 동의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
2. 학생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교실 운영
3. 매일 정규교육과정 중 1,2교시에 운영(매일 2시간씩)
→ 등교불안 해소 및 등교유도, 긴장이완, 스트레스 완화 등으로 무단조퇴와 무단결석을 예방함
4. 또래멘토링 학습 결연 활동으로 결손 수업 보강
5. 위기학생 부모역량강화 학부모 코칭 연계 운영
6. 가정-학교-전문기관 연계 사례관리로 치료성과 제고
7. 교내외 전문가 9명이 팀을 이루어 진행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대상자 선정 기준



참가 대상자 선정 기준

1. 선정원칙 : 학생 학부모 참가 동의 필수
2. 부적응 학생 가운데 희망자 선정
3. 학업중단 위기학생 가운데 희망자 선정
4. 사례 발굴 :
 - * 담임-학부모-Wee클래스-학생부 연계 사례회의
 - * 대안교실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5. 2015 참가 학생수 : 22명
 - * 남학생 9명, 여학생 13명
 - * 1학년 3명, 2학년 8명, 3학년 11명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참가자 현황



학년	성별	성명	참가자 사례 유형(일부 수록)
3	여	000	위기학생 : 학업중단 위기, 가출, 우울증, 자살충동, 무단결석, 비행, 부모-자녀 갈등, 전문기관 연계 사례관리 및 병원치료 중
3	여	000	학교 부적응 : 가출, 우울증, 분노폭발, 무기력, 부모-자녀 갈등
3	여	000	위기학생 : 우울증, 자살충동, 무기력, 교우관계 부적응, 사회성 부족
2	남	000	학교 부적응 : 학업중단 위기(결석일수 61일), 무단이탈, 교칙위반, 가출, 보호관찰 처분, 비행, 흡연, 분노폭발, 교사-학생 갈등
2	남	000	학교 부적응 : 주의산만, 무기력, 교실수업 부적응, 분노조절 어려움
2	여	000	학교 부적응 : 교우관계 부적응(왕따 교위형군), 사회성 부족
2	남	000	학교 부적응 : 무기력, 주의산만, 수업부적응, 가족사별 트라우마
1	여	000	위기학생 : 무기력, 사회성 부족, 분노조절 어려움, 가족사별 트라우마
3	남	000	학교 부적응 : 무기력, 분노조절 어려움, 교사-학생 갈등, 수업 부적응
3	남	000	학교 부적응 : 교사-학생 갈등, 수업 부적응, 학업 스트레스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운영의 실제



음악치료 (2015.5월~12월, 38회기 운영)

1. 내용 : 오카리나 연주, 뮤지컬 감상, 보컬활동
2. 효과 : 정서치유, 심리적 무력감 해소, 스트레스 감소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운영의 실제



예술치료 (2015.9월~12월, 28회기 운영)

1. 내용 : 토탈공예 체험활동 및 작품 전시회
2. 효과 : 성공경험 확대, 자존감 향상, 정서치유, 무력감 해소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운영의 실제



바리스타&홈베이킹 (2015.5월~12월, 38회기 운영)

1. 내용 : 커피 바리스타 & 홈베이킹 체험 활동
2. 효과 : 성공경험, 무력감 해소,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증진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운영의 실제



마음챙김 명상, 강점강화와 셀프리더십 (2015.5월~12월, 38회기 운영)

1. 내용 : 자기통제력 강화 및 분노조절, 인생비전 설정
2. 효과 : 자존감 향상, 긍정적 대안행동 강화, 대인관계 증진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운영의 실제

부모역할훈련 학부모 코칭

(2015년 5, 10, 11월, 15회기 운영)

1. 내용 : 소통의 대화법, 갈등 관리기법, 감성코칭, 화 다스림,
 2. 효과 : 가정의 치유 기능 강화 및 부모-자녀 관계 회복 촉진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운영의 실제

전문기관 연계 사례 컨퍼런스 (2015.5월~12월)

1. 내용 : 가정-학교-전문기관 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2. 효과 : 상담, 복지, 치료, 위기개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위기학생들의 치료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함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운영 성과 1

프로그램 운영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낀 학생들이 **1,2교시**에 운영하는
'행복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제시간에 학교에
등교하는 현상이 나타남

참가자 **22명**중 **20명**이 학교생활 복귀에
성공함. **2명**은 적응 중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운영 성과 2

참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이 크게 향상됨

- ◆ 무단결석(무단이탈) 감소, 교사-학생간 갈등 감소,
수업태도가 좋아졌다는 교사들의 피드백이 많아짐
- ◆ 2학년 박00군 :
결석일수 61일의 학업중단 위기학생, 제2차 행복교실
참여 후 학업중단 위기 극복. 2016년 현재 3학년에 진
급하여 무난하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
(대표적 성공사례!)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운영 성과 3

위기학생들의 심리적 원기 회복,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함

- ◆ 위기학생들의 우울, 무기력, 자살충동 호소 빈도가 현저히 감소함. 굳었던 학생들의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이 많아짐
- ◆ 위기학생들의 긴장 이완과 스트레스 감소, 학교생활 적응력이 전반적으로 높이 향상됨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운영 성과 4

3학년 박00양, 김00양, 김□□양 :

우울증, 자살충동, 무기력, 분노폭발 등 만성적 위기학생 ▶ 우울증 약물치료 ▶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정서치유 및 동기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 ▶ 자존감 향상, 긴장 이완, 스트레스 감소, 우울 자살충동의 현저한 완화로 학교생활 적응력이 높아져 2학기부터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에 성공함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운영 성과 5

3학년 이00군 :

가출, 무단결석, 비행, 우울, 무기력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 ▶ ADHD, 충동조절장애 약물치료 ▶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정서치유 및 동기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 ▶ 다양한 성공경험 누적으로 무기력 극복, 2학기부터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 ▶ 수업태도가 좋아졌다는 교사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 성적도 향상되어 2015.12월 고교진학에 성공함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운영 성과 6

학생들의 대인관계 적응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됨

- ◆ 왕따위험군 학생들의 대인불안 및 대인기피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고,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됨
- ◆ 행복교실 참가 학생들간 새로운 또래사회가 형성되어, 왕따위험군 학생들이 심리적 위축으로 일반 학급에서 키우지 못한 대인관계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의 장’이 마련됨

'201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행복교실

내성적인 학생은 건지워서 좋고
 사교성이 적은 학생은 건지워서 좋고
 소심한 학생은 손속가 주고 건지워서 좋고
 지능이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서 좋고
 마음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만들어서 좋고
 지능이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고
 지능적인 학생은 속저기 위해서 좋고...

우리 인생은
빨리 지나가지만
사랑이 깃든 일은
영원하다...

감사합니다 !

대구동부중 김혜영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사례 2

- 폴리마켓 프로젝트를 통한 공동체적 관계증진 -



강 상 훈

목천고등학교 교사

Welcome to “Mokchon”

좋은학교로 새롭게 변화하는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2016

플리마켓 프로젝트를 통한 공동체적 관계 증진



I. 목천고 소개

1

학교 현황



교직원		학년	1	2	3	계	비고
교원	46명	학급수	6	6	7	19	
행정실	9명	학생수	164	168	200	532	
교장	임동수	교감	손성윤	학생 부장	김광현	담당 교사	임동훈 강상훈 김선화

2

목천고등학교

— 교훈: 성실 · 명량 · 협동

— 신입생 모집

목천중 병천중 천남중 광풍중

천안시 시내 중학교

— 2015신입생 정원 축소

— 2018 천안시 고교평준화 진입





3 목천고등학교 학교교육 기본방향

- 교육지표 ☞ 성장과 나눔의 행복학교
- 교육목표 ☞ 학생중심의 행복한 목천교육



4 교육목표 구현을 위한 세부 교육활동 계획

- 배움과 성장 중심의 교과교육과정 운영
- 존중과 배려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
- 자기 주도적인 진로·진학교육 운영
- 행복을 가꾸는 체육·예술·건강 교육



5

학교교육과정운영의 중요한 지향점

- 교사 : 마중물이 되는 교사
- 학생 : 스스로 성찰하고 실천하는 학생
- 학부모 : 사랑과 헌신으로 교육에 참여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학교



II. 학업중단예방과 대안교실



1



2

단계별 학업중단 예방지도

1 단계
예방

- 생활지도 및 가정방문
- Wee클래스 상담 및 대안교실 의뢰

2 단계
숙려

- 학업중단숙려제(1차, 2차)의뢰
(가정방문 시 동의서 받음)

3 단계
환경전환

- 대안교육위탁기관 의뢰
- 대안교육 or 직업위탁 or 전학안내

4 단계
사후조치

- 학교 복귀(학급관리 및 상담)
- 자퇴(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통보)



3

학교 내 대안교실 <누리봄 교실>

- 자존감 향상
- 관계 증진
- 학교 적응력 향상
- 학업중단예방



4

운영프로그램

- 디톡스 ➡ 미술심리치료, 동작활동치료
- 힐링 ➡ 연극치료, 만화창작
- 진로·봉사·체험활동 ➡ 도예, 목공예



Ⅲ. 폴리마켓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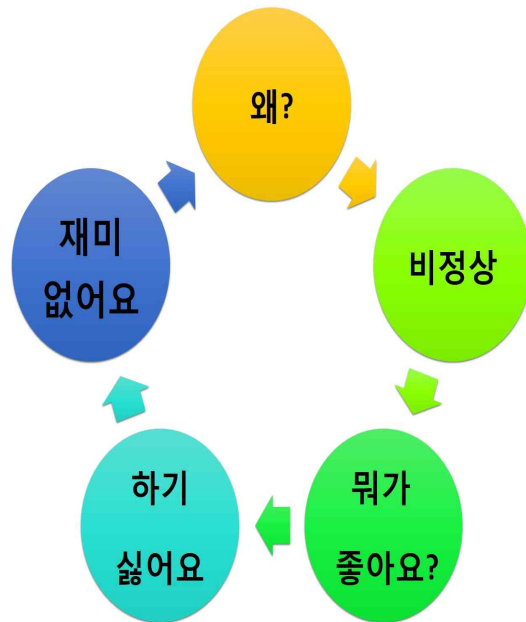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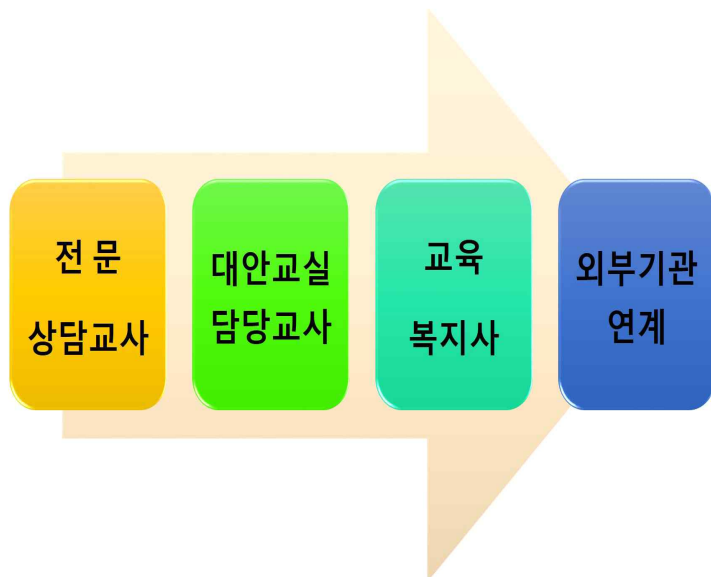
공동체적 관계 증진



2



3





4

프로젝트 구성 및 협의

- 프로그램 인력체제 구성 및 협의
- 폴리마켓 운영 시기 및 장소 협의
- 학생 자치회 및 대안교실 대상학생과의 협의
- 대안교실 모든 프로그램의 결과물 활용
- 판매 수익금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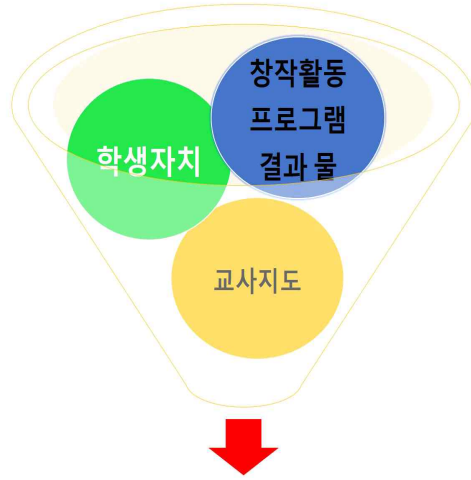
5

프로젝트 운영

- 과제는 쉬운 것부터
- 판매 목적이라는 명확한 목표 제시
- 학생과의 협의를 통한 동기 부여
- 학교 구성원이라는 소속감
- 동료 교사 참여



6



플리마켓 프로젝트



7

활동사진



8

활동사진



9

활동사진



10

운영성과

- 학교 구성원
- 관계 개선
- 배려 봉사 기부
- 다양한 성공 경험
- 중도 탈락 예방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사례

- 만절필동(萬折必東) 진로탐색과정 -



오 흥 빈

대원고등학교 교사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진로직업 탐색과 설계 중점

발표자/ 대원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오 흥 빈
 (2014·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담당자)



《순자(荀子)》의 〈유좌(宥坐)〉 편에 실린 공자(孔子)의 말에서 비롯된 고사성어이다. 동쪽으로 흐르는 황허[黃河]를 바라보고 있는 공자에게 제자인 자공(子貢)이 그 까닭을 물었다. 이에 공자는 물의 특성을 덕(德)·의(義)·도(道)·용(勇)·법(法)·정(正)·찰(察)·선(善)에 비유하고 "일만 번이나 꺾여 흐르지만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가니 의지가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군자가 큰물을 볼 때 반드시 살펴야 할 점이라고 일렀다.



原泉混混 不舍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
 <孟子> 盡心章句 上

발표 순서

- 운영 개요
 - 2014학년도
 - 2015학년도
- 운영 배경과 동기
- 운영 담당자 역할과 지원
 - 운영 설계와 관리
 -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과 활용
 - 인식 공유와 공감대 형성
- 성공적 운영을 위한 조언

징그러운 청춘들과의 두 해 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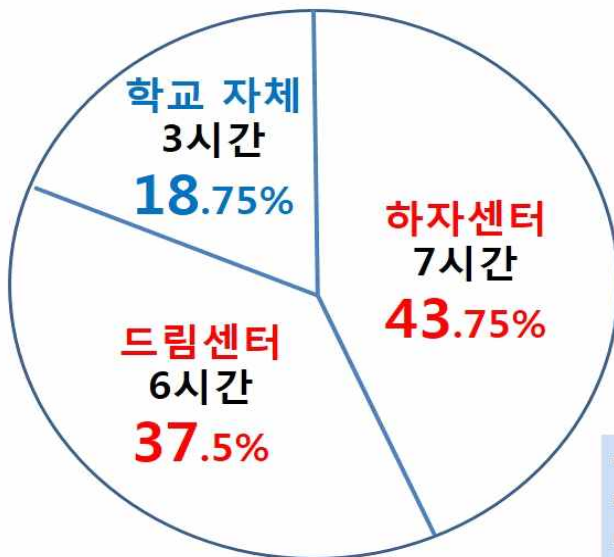
운영 개요 (1) 2014학년도

- ‘꿈바라기교실’
- 주 4일제 **부분 운영제**
- (1학기) 3일 오후, 1일 전일
- (2학기) 2일 오후, 2일 전일
- **협력기관 2곳**(드림센터, 하자센터)
- 남학생 25명(2학년 19, 3학년 6)
- 예산 1,940만원(대안교실+구청지원)
- 학생 1인 77만6천원

2014학년도 1학기 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구 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1-4교시)	정규교과수업		정규교과수업		공방형 프로젝트활동 (7시간)
오후	진로집단상담 (90분)	목공 동아리 (5명)	미래 탐색 동아리 (12명)	창업 동아리 (8명)	
	성문화교육 (90분)			동아리 및 봉사활동	
				악기 배우기 (90분)	
				텃밭 가꾸기 (90분)	
장소	드림센터	드림센터		우리학교	하자센터
시간	13:30~16:30	13:30~16:30		13:10~16:00	10:00~18:00

1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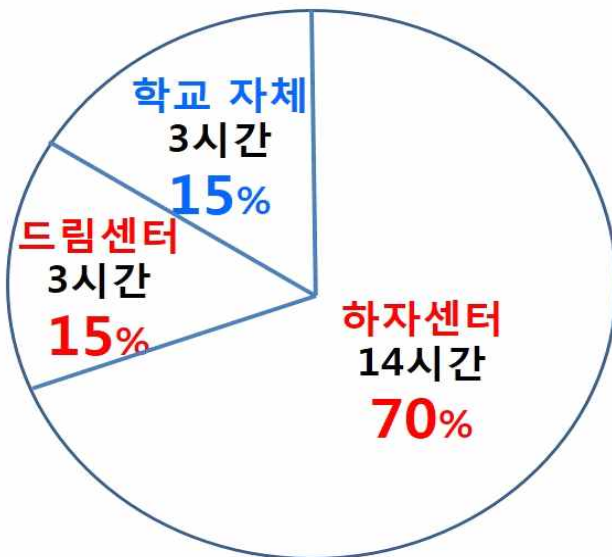
위탁 운영
13시간
(81.25%)
611만원
(54.9%)

- 전문성 미약
- 인적·물적 자원 부족
- 자원 발굴 노력
- 도전과 적응 유연성

2014학년도 2학기 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구 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1-4교시)	정규교과수업 참여		정규교과 수업참여	3가지 활동 중 선택 참여	
	점심식사-이동	주간 미팅		정규교과 수업참여	
오후	진로동아리 (3시간)		동아리 및 봉사활동	Plan-B 프로젝트 활동 '다양한 삶의 상상' (7시간×2)	컴퓨터 활용자격 취득 준비활동 (3시간×2)
	목공 창업	미래 탐색 업			
		리더십 스피치 (공통, 90분)			정규교과 수업참여
		텃밭 가꾸기 (90분)			
		연극 활동 (90분)			
장소	드림센터	우리학교		하자센터	우리학교
시간	13:30~16:30	13:10~16:00		09:50~16:30	13:10~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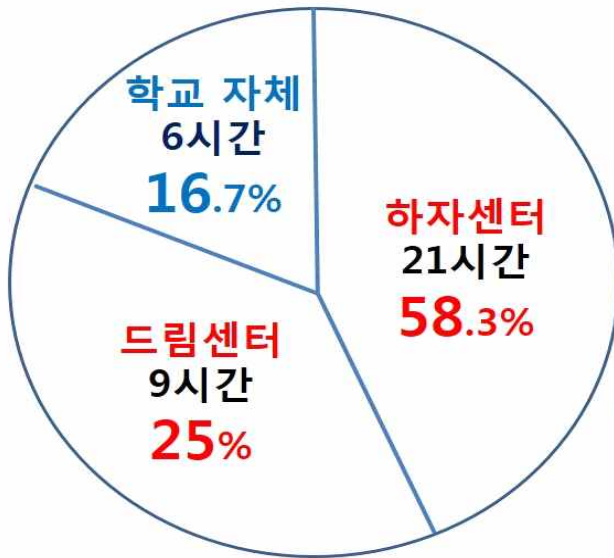
2학기



위탁 운영
17시간
(85%)
338만원
(40.8%)

- 설계 안목 발아
- 자원 연계능력 향상
- 경험·자신감 축적
- 존재 인식 확대

2014학년도



위탁 운영
30시간
(83.3%)
949만원
(48.9%)

- 무학년제 개방형
- 일방형 프로그램
- 자원 개발과 경험
- 학교 내 신기한 존재
- 반신반의 인식도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요일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내용	비고
					지도강사	
진로 동아리	목공	월	13:30~16:30	드림센터	진로탐색 동아리활동 선택	공통 (선택)
	미래탐색				심화프로그램	
	창업				드림센터 3인(각 동아리별 1인)	
리더십 스피치		화	13:00~14:30	우리학교 1층 영어교과실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 향상 SLS스피치연구소 강사 2인	공통 (전체)
텃밭가꾸기		화	14:40~16:10	우리학교 텃밭	자연친화 및 협동성 증진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강사 1인	선택
연극활동		화	14:40~16:10	우리학교 4층 수학교과실	자신감 증진 및 협동성 향상 연극배우 강사 1인	선택
Plan-B 프로젝트 활동	목	10:00~16:30	하자센터		자기관리능력 향상과 진로탐색	선택
	금	10:00~16:30			하자센터 6인	
컴퓨터활용자격 취득준비활동	목	13:10~16:00	우리학교 3층	진로진학정보실	직업기초역량 함양	선택
	금	13:10~16:00			한일컴퓨터학원 강사 1인	

운영자 측면

- 경험해보았다. 생각을 하게 되었다.
- 도움 받을 곳이 적지 않다.
- 협업이 시너지를 부른다.
- 학생의 생각, 마음을 읽을 수 있다.
- 학교 자체 운영에 자신이 생겼다.
- **체험과 진로탐색 중심의 프로그램 조직과 운영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 자금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 운영자 중심으로 생각한다.
- 학생의 마음을 열기가 어렵다.
-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과 아이디어가 빈약하다.**
- 학급 담임교사의 이해, 협조가 약하다.
- 운영예산이 부족하다.
- **운영의 지속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 **열정가의 희생이 요구된다.**

Positive

- 활기와 의욕이 생긴다.
- 다양한 체험의 도움을 느낀다.
- **자신의 진로에 적극적이 된다.**
- 뭔가 해보고자 시도한다.
- 대인관계에 적극성을 보인다.
- **자신이 경험할 일에 관심을 보인다.**

Negative

- **학급에 돌아가서 힘들어한다.**
- 활동, 프로그램의 의미에 무관심하다.
- 자극적, 오락적 재미에 매몰된다.
- **소속감의 혼란, 불안감이 크다.**
- 자기 노출과 표현에 소극적이다.
- 상담, 치유의 기회가 부족했다.

참여학생 측면

Detox-Program 반드시 필요!



선생님께
행복을,
아이들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必讀 强추!

‘진로’ 탐색과 **체험** 중심의
Needs 발견과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와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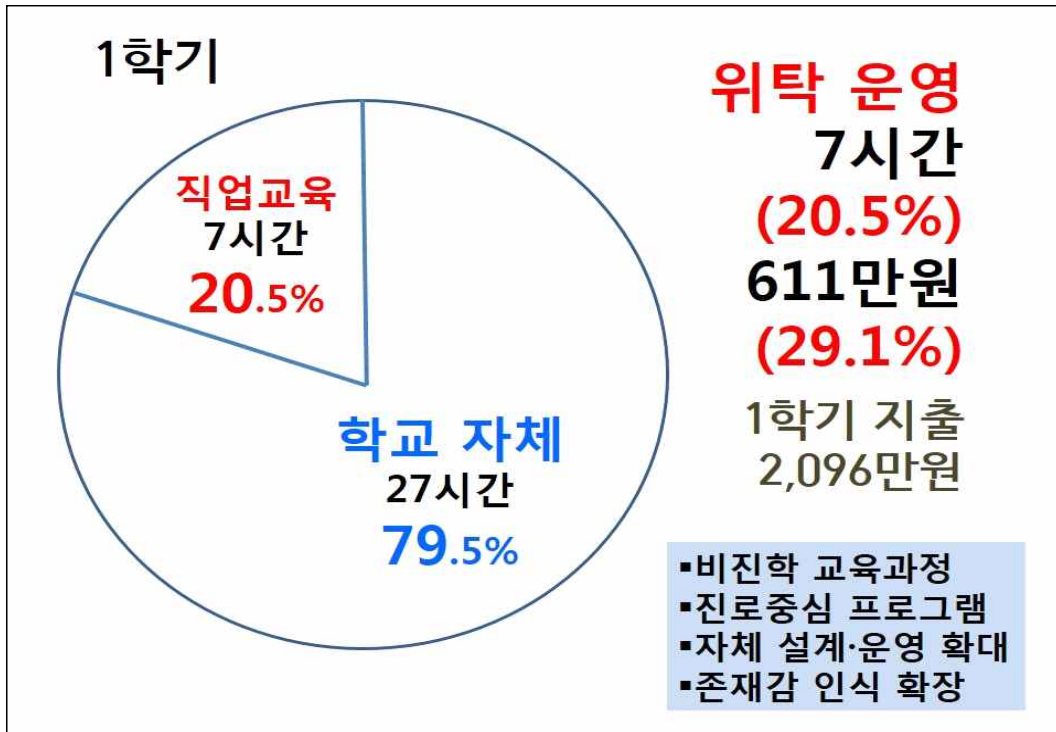
先 손과 몸
後 머리

운영 개요 (2) 2015학년도

- '진로탐색과정'(2학년)
- 전일제 교육과정·1개 학급 개설
- 1학기-정규교과 15, 대안교과 19
- 2학기-정규교과 18, 대안교과 16
- 협력기관 5곳(직업위탁교육+청소년전문)
- 남학생 2학년 1학급 35명
- 예산 3,661만원(대안교실+기타지원4)
- 학생 1인 104만6천원

2015학년도 1학기 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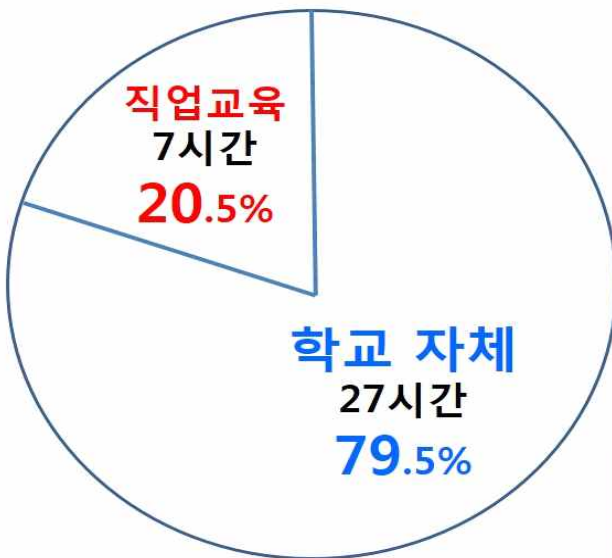
	월	화	수	목		금
I	직업 I A반:한식조리 B반:컴퓨터활용	고전	영어1B	영어1B		창체진로활동 (연극예술강사)
II		스포츠와 문화	한문 I	고전		스포츠와 문화
III		영어1B	정보	집단 상담 A	집단 상담 B	영어1B
IV		생활수학	창체 (자율활동)			자기관리
점심식사						
V	직업II A반:바리스타 B반:항공정비	악기 연주 (기타) 리더십 개발A	창체 (동아리활동)	적정 기술	텃밭 가꾸기	악기 연주 리더십 개발B (우쿨 렐레)
VI			창체 (봉사활동)			
VII		프레젠테이션 실무		한문 I		생활수학



2015학년도 2학기 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월	화	수	목	금
I	(출석점검 및 안전교육)	스포츠와 문화	스포츠와 문화	한문 I	창체(진로) (연극예술강사)
II	직업 I - A반 : 한식조리 - B반 : 커피일조주	한문 I	고전	교양 (실용경제)	정보
III		실용영어2B	고전 (모듬지도&멘토링)	실용영어2B	생활수학
IV		실용영어2B (모듬지도&멘토링)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실용영어2B (모듬지도&멘토링)	생활수학 (모듬지도&멘토링)
점심식사					
V	직업II - A반 : 바리스타 - B반 : 바리스타	힐링·감성훈련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체험·생활기술	인성·자기개발 집단상담
VI		기타 & 우쿨렐레 미디어 난타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적정 텃밭 벽화 기술 가꾸기 미술	리더 어울 심 행복 림 개발 훈련 프로 그림
VII		진로탐색과 설계		독서와 토론/ 쇼하자(월 1회)	자기관리

2학기



위탁 운영

7시간

(20.5%)

1,07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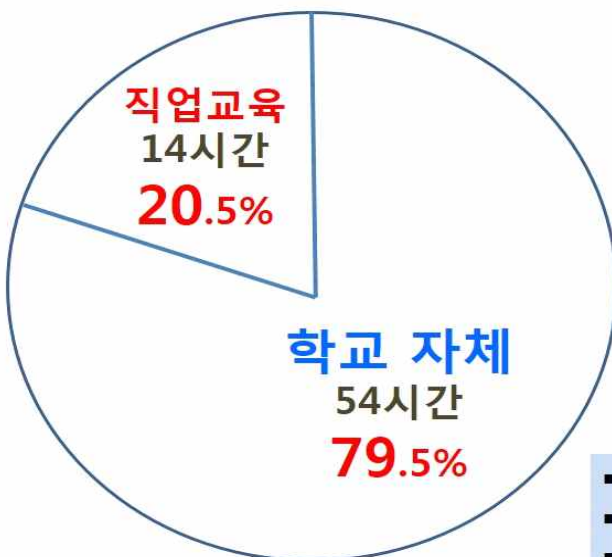
(29.3%)

1년 예산

3,661만원

- 콘텐츠 질적 변화
- 학생 요구 실질 반영
- 예산 규모 확대
- 운영 관리 자신감

2015학년도



위탁 운영

14시간

(20.5%)

949만원

(48.9%)

- 쌍방향 프로그램
- 학생 희망 맞춤 노력
- 3개년 교육과정 연계
- 정규 교육서비스 인식

운영 프로그램

구분		과목별 수업/ 활동 내용	시간
학교 자율 과정 (대안 교과)	직업 기술체험 (월)	직업 I·II (위탁교육) - 자격증 취득 및 직업 직무체험/ 위탁교육 - A반 : 한식조리(오전 3시간), 바리스타(오후 3시간) - B반 : 칵테일조주사 (오전 3시간), 바리스타 (오후 3시간)	월요일 전일 7시간 -금란요리제과제빵학원 - 국제호텔전문학교
	힐링· 감성훈련 (화)	기타와 미디어 기타 연주 심화활동, 다양한 미디어로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는 성과 물 제작 활동 우쿨렐레 연주 및 감성 훈련, 학년말 합동 작은 음악회 준비	화 5~6교시 희망에 따른 선택활동
	체험· 생활기술 (목)	직정기술 자연친화, 환경에너지 등 생활기술 원리 습득 및 실습 심화 넛밭가꾸기 학교 텃밭 조성, 쌈채소 중심 텃밭 영농, 도시농법 이해 활동 심화 벽화미술 일상공간과 환경에 대한 미학적 이해, 벽화 활동을 통한 애교심 함양	목 5~6교시 희망에 따른 선택활동
	인성· 자기개발 (금)	리더십개발 스피치 및 경청 기술, 자기소개, 면접기법, 생활글쓰기 훈련 심화 행복훈련 행복감을 높이는 자기 성찰과 공동체 훈련 어울림 자아정체성, 자기 존중감을 증진시키는 집단 및 개인 상담 프로그램	금 5~6교시 희망에 따른 선택활동(리 더십개발과 집단상담)
	진로탐색과 설계(1)		직업위탁과정 준비, 중단기 진로계획 수립, 다양한 인사 초청 강연
	독서와 토론/쇼하자(1)		도서/영화의 자유 독서와 포럼, 공동현안회의, 월 1회 작은 발표회
	자기관리(1)		담임교사와 함께 자기 생활·시간관리법 이해 및 활용 활동
			화 7교시
			목 7교시
			금 7교시



운영 배경과 동기

- 자발적 비진학 선택 학생 존재 인식
 - 수능 비지원 학생 수 증가
 - 학교부적응 현상·해법 시각의 변화
- 다양한 교육과정 필요성
 - 학생의 Needs 맞춤
 - Win-Win의 교육과정
- 활기찬 학교 만들기 첫 걸음
 - 학교 교육서비스의 질적 변화

‘자유로운 영혼들’

- 2학년 진급 예정자 중
- 학습 부진 학생,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 비진학 직업위탁과정 희망 학생,
- 진로미결정 학생으로서
- ‘진로탐색과정’ 희망신청서 제출하고,
- 부모의 동의와
- 1학년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자발적 비진학 선택자

- 대수능 미응시 50여 명
- 진로의식의 적극적 표출
- 능동적인 교육 서비스 선택

적절한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제공 고민 필요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大學』‘正心章’편

[참고] 우리학교 교육과정의 진화

■ 2014학년도

1	공통 과정			
2	인문사회	자연이공	체육	
3	인문사회	자연이공	체육	직업 위탁

[참고] 우리학교 교육과정의 진화

■ 2015학년도

1	공통 과정			
2	인문사회	자연이공	체육	진로 탐색
3	인문사회	자연이공	체육	직업 위탁

[참고] 우리학교 교육과정의 진화

■ 2016학년도

1	공통 과정			자유 교양
2	인문사회	자연이공	체육	자유 교양
3	인문사회	자연이공	체육	직업 위탁
진학 트랙				비진학 트랙

2016학년도 1학기 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월	화	수	목	금
I	(출석점검 및 안전교육)	스포츠와 문화	스포츠와 문화	한문 I	창체(진로) (연극예술강사)
II	직업 I - A반 : 한식조리 - B반 : 캐릭터일조주	한문 I	고전	교양 (실용경제)	정보
III		실용영어2B	고전 (모듬지도&멘토링)	실용영어2B	생활수학
IV		실용영어2B (모듬지도&멘토링)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실용영어2B (모듬지도&멘토링)	생활수학 (모듬지도&멘토링)
점심식사					
V	직업II - A반 : 바리스타 - B반 : 바리스타	힐링·감성훈련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체험·생활기술	인성·자기계발 집단상담
VI		기타 & 우쿨렐레 미디어 난타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적정 텃밭 벽화 기술 가꾸기 미술	리더 행복 램 심 개발 훈련 프로 개발 훈련 프로 그림
VII		진로탐색과 설계		독서와 토론/ 쇼하자(월 1회)	자기관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Tip1

1. 교육과정상 필수이수단위 편성

- 2009 개정 교육과정(2014 이후 입학) 필수이수단위
86(교과)+94(학교자유과정)+창체(24)
국어(10), 수학(10), 영어(10), 사회(10), 과학(10)
-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 통합과정) 필수이수단위
94(교과)+88(학교자유과정)+창체(24)
국어(10), 수학(10), 영어(10), 한국사(6), 사회(10), 과학(12)
- 3년간 이수 과목과 단위의 합리적 배정 설계
- 교무 파트와의 긴밀한 협의와 검토 필요

2. 평가 방법(수강자수 등)에 대한 고민과 협의

- 수업 내용과 효과성에 밀접한 관련성
- '방석론'의 극복 필요

3. 수업교사와의 인식 공유 및 협업, 지원 노력

- 진로 중심 대안 교육 실현을 위한 수업 설계와 운영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지침 안내(서울시교육청, 2016.4.18.)



10. 석차 산출

- ♣ 동일한 교과·과목, 동일 단위 수, 수강 시기가 같은 경우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함
 - 교육과정 편제 상 학습 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달리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달리할 수 있음
- ♣ 과정별로 총 이수단위가 다르면, 특정학기의 과목명과 이수단위가 동일하더라도 과정별로 학습내용 및 진도가 다르므로 평가가 다름. 이 경우에 성적을 분리 산출 가능한가?
 - 특정학기의 교과명과 이수단위가 같더라도 총 이수단위에 맞추어 학기단위로 진도 및 내용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어 교육과정이 다른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과정별로 분리 산출이 가능함



6) 직업과정 위탁생

- ♣ 소속학교에서 이수하는 보통교과의 수강자 수 : 소속 학교 학생과 합해서 산출, 이수단위가 다른 경우 수강자수는 분리 산출

7) 대안교육 위탁학생

- ♣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지침(2015)’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라 처리
-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의 대안교과 : 이수 여부만 기록
- ♣ 대안교과 이외의 평가 : 제4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규정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Tip2

1. 학교자율과정(대안교과) 설계

- 2009 개정 교육과정(2014 이후 입학) 94단위
-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 통합과정) 88단위
주제별 혹은 진로선택별 과목 개발 필요
학생의 희망과 욕구 반영
- 1학년 공통 + 2학년 진로탐색 + 3학년 직업위탁
- 학생 중심 3개년 연계 고려

2. 이수-미이수 평가에 따른 후속 작업

- 학생부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적극적 활용
- 적절한 형성 및 종합 평가 유지 필요

3. 수업교사의 인식과 운영 역량 조율

- 학교 교과 운영(수업관리, 평가 및 결과 처리) 지원
- 수업 집단 규모의 다양한 편성의 필요성과 난점들

발전적 운영 전망과 계획

-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 구축**
 - 전담부서 배치 : 각 학년부+지원부서
 - 담임교사 중심 운영
 - 운영 매뉴얼 구축 : 누구나 담당 가능
- **3개년 연계 교육과정 운영**
 - 진로탐색(1)-직업기초(2)-직업위탁(3)
 - 진로희망에 따른 유연한 과정 변경
- **학교 자체 운영 능력 제고**
 - 직업기술교육 인프라 구축(실습시설 등)
 -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경험 축적

운영 담당자 역할과 지원

- **운영 설계와 관리**
 - 학생·학부모 요구 분석, 학교 역량 이해
 - 학교교육과정 이해, 학년 연계 과정 설계
 - 관찰과 피드백 기반 콘텐츠 진화 발전 추동
-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과 활용**
 - 중심 및 지원 운영인력 확보, 관리
 - 중심 인력의 수업 및 업무 부담 경감 노력
 - 학교밖 자원과 지속가능한 협업 추진(MOU)
 - 활용 가능 예산 확보
- **인식 공유와 공감대 형성**

성공적 운영을 위한 조언

■ 성공적 운영 가능 요인

학교 관리자의 현실 인식과 확고한 운영 의지

학교 구성원의 인식 공유와 공감대 형성

교육당국의 정책 및 예산 적정·적기 지원

인적·물적 자원 확보 및 학교 밖 교육 협업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능력

성공적 운영을 위한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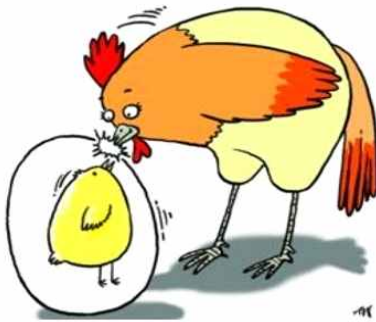
- **전향적인 현실 인식과 공유를 하라.**
 - 학생의 다양성에 주목, 이해하고 방법 찾기
- **열정보다는 시스템에 의존하라.**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법을 구사하기
- **학교의 교육 책무성을 강조하라.**
 - 우리 아이는 우리가 책임지는 공감 넓히기
- **학교 밖 자원을 적극 활용하라.**
 -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과 협력하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1997.12.13. 법률 제5437호) 제1조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대한민국 교육법 1조 (1949. 12. 31, 법률 제86호)를 대체.

줄탁동시 啐啄同時



啐啄同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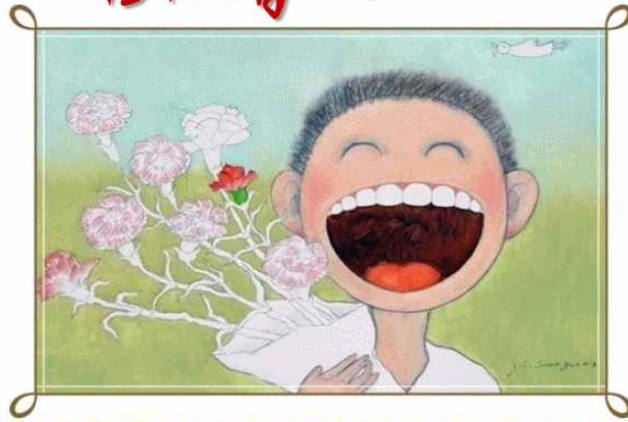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알 속에서 부리로 쪼는 것을 '줄(啐)'이라 하고,
어미 닭이 이를 돕기 위해
밖에서 쪼아 주는 것을 '탁(啄)'이라 하는데,
이것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부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송나라 때 [벽암록]에 나오는 공안으로서
'줄탁동기(啐啄同機)'라고 하며,
'줄탁동시(啐啄同時)',
'줄탁지기(啐啄之機)'라고도 합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알 속에서 부리로 쪼는 것을 '줄(啐)'이라 하고,
어미 닭이 이를 돕기 위해
밖에서 쪼아 주는 것을 '탁(啄)'이라 하는데,
이것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부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啐 : 우는 소리 줄, 쪽쪽 빨 줄
啄 : 쪼 탁
同 : 같을 동
機 : 때 기, 시기(時期) 기

감사합니다 ^*^



대원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오희빈
010-8994-4206
opioria@sen.go.kr

부 록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자료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자료

Homepage: www.gotoschool.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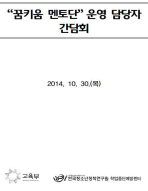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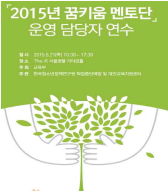
◎ 발행 자료

○ 자료실 > 통합자료실

-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4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 집중 연수	- 학업중단학생 실태, 지원 및 연계 방안 -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운영 사례 - 학업중단 위기학생 상담기법	2014.02.03
 2014년 제2회 학업중단예방 교원연수 (7개 권역 실시)	-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대응 방향 -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배경 - 학업중단 위기 과정에 따른 상담기법 - 학업중단 예방 운영 사례	2014.08.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예방 교원연수 (4개 권역 실시)	- 학교별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계획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사업의 이해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교복우 사업) - 학업중단 위기관리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계 사례	2015.02.16
 2015년 제2회 학업중단예방 교원연수	- 학교별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계획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사업의 이해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교복우 사업) - 학업중단 위기관리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계 사례	2015.07.28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원연수 (4개 권역 실시)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사업의 이해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꿈키움멘토링) -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사례 -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개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2016.0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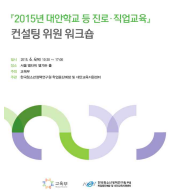
- 꿈키움 멘토단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 꿈키움 멘토단 운영 지원 방안 - 청소년 멘토링의 이해와 운영자의 역할 - 멘토링 사업 기획과 운영방안	2014.05.27
 꿈키움 멘토 수첩	꿈키움 멘토 수첩 - 멘토링 성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개 - 멘토링 상담 · 활동 · 튜터 · 면담일지, 멘토링 운영 활동계획서	2014.05.27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간담회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간담회 - [전문가특강] 학업중단 청소년과 멘토링 - [사례 발표] ‘제주도 꿈키움 멘토링’	2014.10.30
 2015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2015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 2015년 학업중단 예방 대책 추진 계획 - 꿈키움 멘토링과 관리자의 역할 - 꿈키움 멘토단 운영 사례	2015.05.20
 꿈키움 멘토링 매뉴얼	꿈키움 멘토링 매뉴얼 - 꿈키움 멘토링의 개요 -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에 대한 이해 - 멘토링의 실제: 운영절차 및 학교 · 지역 사회와 관계 맺기 - 멘토를 위한 지침 - 꿈키움 멘토링 사례	2016.03

-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매뉴얼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매뉴얼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매뉴얼 - 대안교실의 이해 - 대안교실 운영 가이드 -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형 - 학교 별 특성 (10개 학교 사례)	2016.03.08

- 워크숍 자료집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교복우사업 제도 소개 -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중점사항 및 실무안내	2015.04.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 학교 내 대안교실 추진계획 및 컨설팅 사업 소개 -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	2015.04.28
 '2015년 대안학교 등 진로·직업교육, 컨설팅 위원 워크숍'	2015년 대안학교 등 진로·직업교육 컨설팅 위원 워크숍 -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의 필요성 및 영역(프로그램 설계, 동기유발, 직로직업 심리검사, 대학진학·비진학자 경력개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이해 - 대안학교 등 진로·직업교육 컨설팅 내용 및 실무안내	2015.06.04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개 권역 실시)'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개 권역 실시) -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사업 소개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이해와 멘토링을 위한 지원 방법 -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사례 - 해외의 학업중단 예방 대책	2015.0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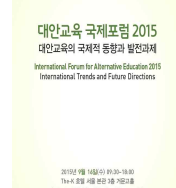
- 우수사례 공모전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4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2014년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교원부문 25개, 학생부문 5개 사례	2015.04.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초등학교 6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1개 사례	2016.03.08

- 대안교육 교원/담당자 연수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4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연수	2014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연수 - [심리특강]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대안, 대안교육 톺아보기 - [진로교육특강] 웃음을 활용한 진로지도, SCEP 진로교육 프로그램 - [리더십특강]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리더십 - 대안교육 모범프로그램(영산 성지교)	2014.08.22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개 권역 실시) -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의 이해 - 대안교실 구성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 대안교실 운영 사례	2015.05.22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 동기회복법: 청소년 무기력의 원인과 해결책 및 동기회복 프로그램 - 창의적 진로개발(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의 이해와 활용, 청소년 기업가정신) - 진로지도 사례 - 대안학교 대입진학지도	2015.07.0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4개 권역 실시) -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의 이해 - 대안교실의 성공적인 운영 전략 - 대안교실 운영사례	2016.01.22

- 국제포럼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정책과 실천 International Forum for Alternative Education 2014 International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Policy and Practice	2014년 대안교육 국제포럼 - 영국, 미국, 독일, 덴마크 등 대안교육 발전 동향 및 정책현황 - 샌즈스쿨(영국), 메트스쿨(미국), 발도르프 학교(독일), 헤스테하베 자유학교(덴마크), 이우학교(한국) 등 대안교육 사례	2014.09.25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International Forum for Alternative Education 2015 International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2015년 대안교육 국제포럼 - 독일, 호주, 덴마크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 - 생산적 학습(독일), 한즈온 러닝(호주), 곤잘로 가르자 독립학교(미국), 빅피처 러닝(미국), 프레네 교육(프랑스),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콜레(덴마크) 등 대안교육 사례	2015.09.16

○ 자료실 > 학업중단대책매뉴얼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길라잡이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교사용) - 학업중단 현황 및 학교 밖 청소년 실태 - 학업중단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방안 -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배경 및 단계별 운영방법 -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사례 등	2015.02.27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길라잡이 - 부록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목록 - 17개 시도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목록	2015.02.27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 - 학교 밖 상담 · 학업 · 취업 및 진로 · 경제적 지원 안내 및 관련 기관 소개	2015.08.25
학업중단 예방 길라잡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업중단 예방 길라잡이	학업중단 예방 길라잡이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업중단 위기 대처 방안, 관련 정책 및 위기 극복 사례 소개	2016.1

○ 알림공간 > 학업중단을 고민하고 있나요?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학교 희망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학업중단 예방 리플릿 - 학업중단숙려제 · 학생지원 · 예방체제와 대안교육에 대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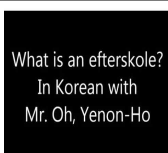
◎ 영상 콘텐츠

○ 자료실 > 영상콘텐츠

“교육의 길을 묻다” (EBS)			
자료명	주요 내용	방영시간	
	1부 대안교육, 다시 대안을 찾다	- 밀알 두레학교, 간디 자유학교, 덴마크 자유학교, 독일 발도르프 학교 등 국내·외 대안학교 장·단점	44'57"
	2부 거리에서 헤매는 학교 밖 아이들	-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실태(가출, 비행 등) - 학교 밖 청소년 포용 방안 모색	47'56"
	3부 변화? 힘들지만 두렵지 않다	- 두드림청소년회복센터, 샘물의 집, 경북청소년진흥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사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가정과 학교가 양립한 일본 오사카부립 슈토쿠 학원 사례	46'42"
	4부 기로에 선 학교 부적응 아이들	- 재미있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종암중학교의 신바람 대안교실 프로그램 사례 -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복귀 프로그램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 사례	48'05"
	5부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교육복지	- 농어촌 교육환경을 극복한 군포중, 속리산중 소개 - 다문화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48'35"

“대안교육을 돌아보다” (SBS)			
자료명	주요 내용	방영시간	
	1부 대안학교의 현실	- 태봉고, 서울실용음악고, 다인학교 등 국내 대안학교의 특징과 덴마크 대안교육의 제도 소개	56'
	2부 대안학교의 미래	- 태봉고, 서울실용음악고의 대안학교 운영사례 - 덴마크(니스테드 애프터스쿨레), 프랑스(프레네 교육) 등 해외 대안교육의 제도 소개 및 우수사례	50'
	1부 대안학교 문제 사례	- 미인가 대안학교의 문제점 등 국내 대안교육의 실제	14'28"
	2부 국내 대안학교 우수사례	- 태봉고, 서울실용음악고의 대안학교 우수사례 - 공립학교(웅상중) 대안교실 우수사례	12'24"
	3부 국외 대안학교 우수사례	- 덴마크, 프랑스 등 국외 대안학교 운영 우수사례	16'57"

“우리는 두 번째 학교에 간다” (KBS)			
자료명	주요 내용		방영시간
	1부 경계에 선 아이들	-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계기와, 현재 학업중단과 복교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56'55"
	2부 세상을 향해 외치다	- 좌절과 소외 속에 살아가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연극치료를 통해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	56'07"
	1부 SOS 학교 밖 아이들	-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학업중단 원인별 학생들의 이야기	11'07"
	2부 벼랑 끝에서 만난 두 번째 학교	- 서울시 친구랑센터,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등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성공사례 -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등 학업중단 예방 제도	11'27"
	3부 학업중단자를 위한 세계의 학교	- 일본 프리스쿨 도쿄슈레, 덴마크 애프터스쿨, 미국 빅피쳐스쿨 등 국외 대안학교 우수 프로그램	11'43"

2015 국제포럼			
자료명	주요 내용		시간
	덴마크 프리젠보그 애프터스쿨레 소개	덴마크 프리젠보그 애프터스쿨레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학교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 프리젠보그 애프터스쿨레 학생들의 일과와 다양한 활동을 소개	1'47"
	미국 곤잘로 가르자 독립고등학교 소개	곤잘로 가르자 학교는 위기학생의 수행성과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어 대안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화된 학생들의 이야기	7'01"
	Hands On Learning	국내의 '학교 내 대안교실'과 비슷한 해외사례. 팀 프로젝트, 목공, 집짓기 등 다양한 노작활동 중심의 활동 학습으로 학업중단위기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또는 스스로 성공경험을 쌓아가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습득하며 변화된 학생들의 이야기	4'49"
	덴마크 애프터스쿨레 홍보 (애니메이션)	덴마크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숙학교인 애프터스쿨레에 대해 애니메이션으로 소개하는 영상	2'36"
	덴마크 애프터스쿨레 홍보(국문)	덴마크 애프터스쿨레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	58"

연수자료집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인 쇄 : 2016년 5월 10일

발 행 : 2016년 5월 10일

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발행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혁

인쇄처 : (주)계문사(02-725-5216)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함.
